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역량 분석 -

An Analysi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Capacity in Northeast China

김수한·전유정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역량 분석-

An Analysi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Capacity in Northeast China



■ 연구책임

김 수 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참여

전 유 정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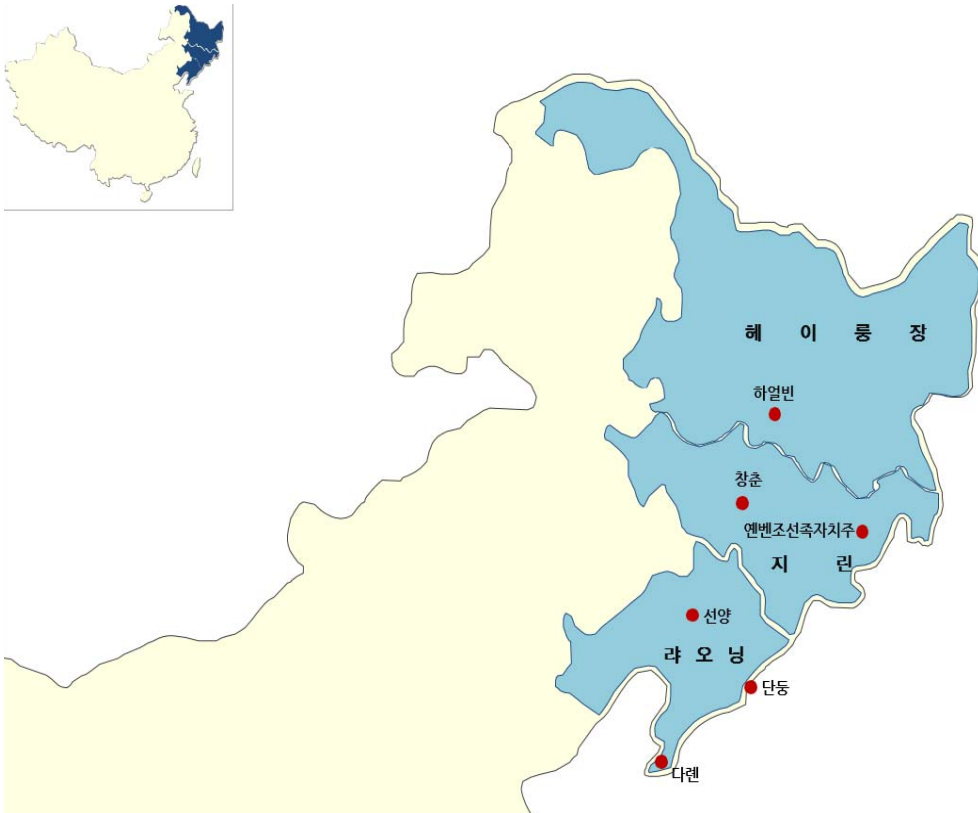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

- 조사대상은 중국 동북 3성과 각 성 도시 36개임
- 랴오닝성에는 성도 선양과 다롄의 2개 부성급시 외에 12개의 지급시가 있음
- 지린성은 성도 창춘 외에 7개의 지급시, 옌볜조선족자치주로 구성
- 헤이룽장성은 성도 하얼빈과 11개의 지급시, 1개의 다싱안링 지구로 구성

〈표 1〉 조사 대상 및 위치

	인구		면적		행정구역
	규모 / 만명	전국대비	규모/km ²	전국대비	
랴오닝	4,378	3%	14.8	3%	부성급시(2), 지급시(12)
지린	2,733	2%	18.7	4%	부성급시(1), 지급시(7), 자치주(1)
헤이룽장	3,799	3%	42.5	9%	부성급시(1), 지급시(11), 지구(1)



	도시
랴오닝	선양(성도, 부성급), 다롄(부성급), 안산, 번시, 차오양, 단둥, 푸순, 푸신, 후루다오, 진저우, 랴오양, 판진, 테링, 잉커우
지린	창춘(성도, 부성급), 지린, 바이청, 바이산, 랴오위안, 쓰핑, 송위안, 통화, 옌벤(조선족자치주)
헤이룽장	하얼빈(성도, 부성급), 치치하얼, 무단장, 자무쓰, 다칭, 지시, 쑹아산, 이춘, 치타이허, 허강, 헤이허, 쑤이화, 다싱안링(지구)

II. 주요 연구 내용

-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각 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표 2〉 본문 분석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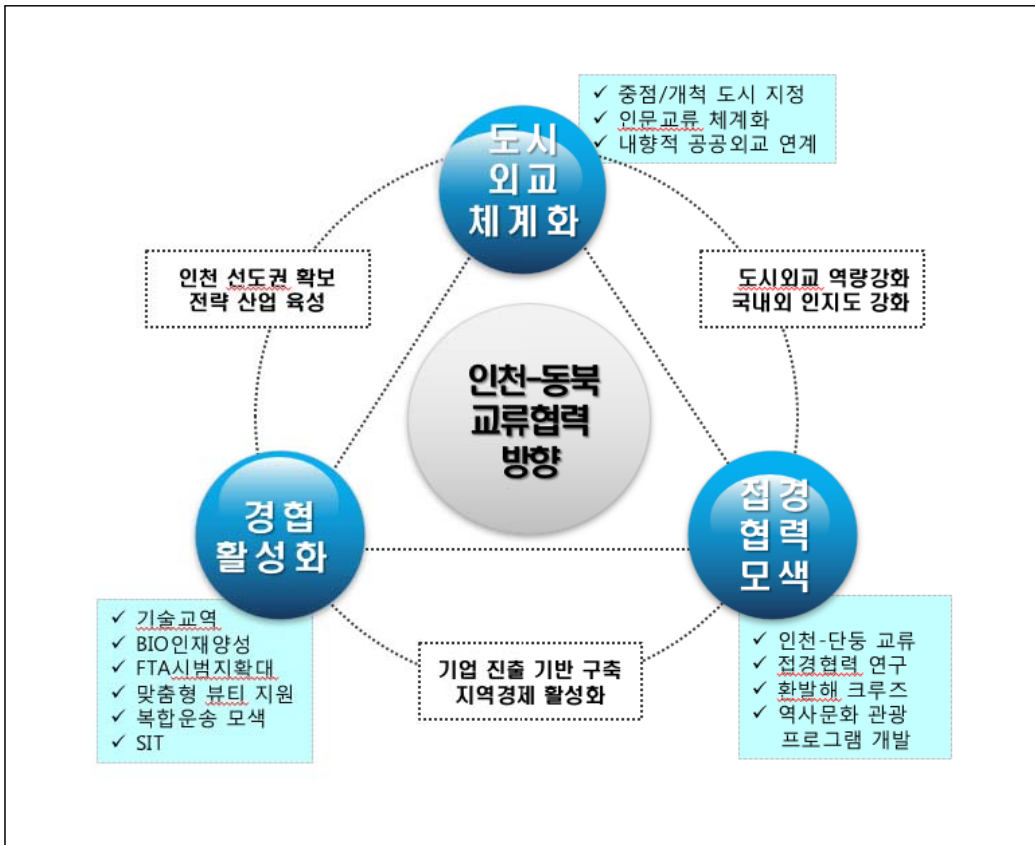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동북지역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역 발전패러다임과 연동한 동북진흥전략의 단계적 변화• 동북3성 성별 도시군 집중 육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일대일로와 연계한 서항(西向)대외 교통·물류 루트 개척• 최근 북중협력 재개에 따른 단둥, 옌변조선족자치주 주목				
2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	<table><tr><td rowspan="2">성별 특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닝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산업: 제조업 기반 견조, 중고위기술 산업 발달- 3차 산업: 생산자 소비자서비스업 특화• 지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BIO 특화, 중저위기술 산업 발달- 창춘시 단일 경제거점• 헤이룽장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생산 공급업 제조업 및 관련 R&D 특화- 의약제조업 발달- 농업 비중 큼</td></tr><tr><td></td><td></td></tr></table>	성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닝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산업: 제조업 기반 견조, 중고위기술 산업 발달- 3차 산업: 생산자 소비자서비스업 특화• 지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BIO 특화, 중저위기술 산업 발달- 창춘시 단일 경제거점• 헤이룽장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생산 공급업 제조업 및 관련 R&D 특화- 의약제조업 발달- 농업 비중 큼		
성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닝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산업: 제조업 기반 견조, 중고위기술 산업 발달- 3차 산업: 생산자 소비자서비스업 특화• 지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BIO 특화, 중저위기술 산업 발달- 창춘시 단일 경제거점• 헤이룽장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생산 공급업 제조업 및 관련 R&D 특화- 의약제조업 발달- 농업 비중 큼					
3	동북 지급시 경제·산업 역량 비교	<table><tr><td rowspan="2">주요 도시 특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성 주요 도시와 기타 지급시 간 경제역량 차이 큼• 4대 수위도시의 GRDP/소비·대외경제 선도성 뚜렷• 각 성 수위도시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td></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양<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정치·경제 중심- 중공업 위주,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발달- 한국·북한 지방외교 중심지• 다롄<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 환발해 권역 국제 항만 물류 허브- 중공업 발전,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창춘<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 내륙 제조업 중심지- 자동차/BIO 고도 특화- 북한을 통한 출해루트의 중심• 하얼빈<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부 중심 도시- 에너지 업종 발달, 관련 생산자 서비스업 특화- 러시아 교류·비즈니스 거점• 단둥<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접경도시- 대북 인프라·인적 자원 풍부- 북한 신의주 조국경 협력 지대• 옌변조선족자치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 집거지- 한반도 교류 협력 인문자원 풍부- 대북 협력 거점·동북의 출해루트</td></tr></table>	주요 도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성 주요 도시와 기타 지급시 간 경제역량 차이 큼• 4대 수위도시의 GRDP/소비·대외경제 선도성 뚜렷• 각 성 수위도시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양<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정치·경제 중심- 중공업 위주,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발달- 한국·북한 지방외교 중심지• 다롄<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 환발해 권역 국제 항만 물류 허브- 중공업 발전,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창춘<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 내륙 제조업 중심지- 자동차/BIO 고도 특화- 북한을 통한 출해루트의 중심• 하얼빈<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부 중심 도시- 에너지 업종 발달, 관련 생산자 서비스업 특화- 러시아 교류·비즈니스 거점• 단둥<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접경도시- 대북 인프라·인적 자원 풍부- 북한 신의주 조국경 협력 지대• 옌변조선족자치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 집거지- 한반도 교류 협력 인문자원 풍부- 대북 협력 거점·동북의 출해루트	
주요 도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성 주요 도시와 기타 지급시 간 경제역량 차이 큼• 4대 수위도시의 GRDP/소비·대외경제 선도성 뚜렷• 각 성 수위도시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양<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정치·경제 중심- 중공업 위주,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발달- 한국·북한 지방외교 중심지• 다롄<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 환발해 권역 국제 항만 물류 허브- 중공업 발전,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창춘<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 내륙 제조업 중심지- 자동차/BIO 고도 특화- 북한을 통한 출해루트의 중심• 하얼빈<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부 중심 도시- 에너지 업종 발달, 관련 생산자 서비스업 특화- 러시아 교류·비즈니스 거점• 단둥<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접경도시- 대북 인프라·인적 자원 풍부- 북한 신의주 조국경 협력 지대• 옌변조선족자치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 집거지- 한반도 교류 협력 인문자원 풍부- 대북 협력 거점·동북의 출해루트					

III. 인천-동북 교류협력 기본 방향 및 과제

▣ 인천-동북 지역 교류협력 기본 방향

○ 본문의 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천-동북 교류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① 도시외교 체계화 필요
- ② 인천-동북지역 경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제 발굴·추진
- ③ 한반도-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도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모색



〈그림 1〉 인천-동북 지역 교류협력 기본 방향

■ 주요 사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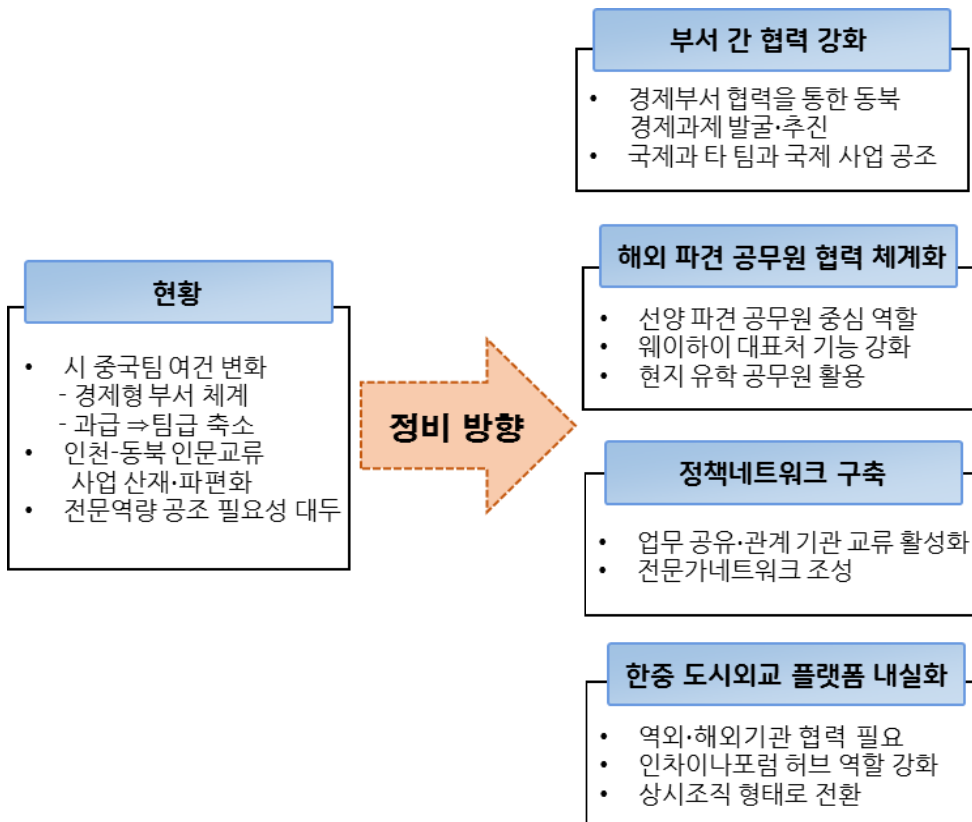
- 3대 기본 방향 관련 다음과 같이 13개의 사업과제를 제시함
 - 사업과제의 배경·목적, 주요 내용, 기대효과는 본문 참고

〈표 3〉 인천-동북 교류협력 사업(안)

방향	주요 과제
도시외교 체계화	① 중점교류지역과 개척지역 지정을 통한 내실있는 도시외교 추진 ② 인천 지역 기관·대학의 동북 인문교류 사업 공조 및 협력 ③ 중국동포·유학생 내향적 공공외교 추진 및 연계 도시마케팅 추진
경협 활성화	① 기술 교역을 통한 산업협력 ② BIO산업 정보·기술 교류 및 인재 공동양성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 경험 및 성과 확대 적용 ④ 현지 맞춤형 소비재·뷰티 진출 지원 ⑤ 해륙복합운송시스템 적용 모색 ⑥ 특수목적관광을 통한 동북지역 관광·MICE 확대
접경협력 모색	① 인천-단둥 도시교류 재개 ② 인천-단둥-신의주 협력방안 연구 ③ 환발해 남북중 크루즈 루트 개척 ④ 남북중 역사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IV. 추진체계의 정비

- 인천-동북 교류협력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특히 축소된 인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주무부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긴요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① 부서 협력 강화
- ② 해외사무소 및 파견 공무원 협력 체계화
- ③ 정책네트워크 구축
- ④ 한중 도시외교 플랫폼 내실화



V.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 이 연구에서는 동북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시 차원으로 분류한 접근을 강조함
- 이 연구를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지방외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토대 자료의 제공을 기대함
- 이런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최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을 매개로 한 초국경 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연구에서 지역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경제지표의 기준연도는 2016년으로 일정한 시기적 차이가 존재함
- 동북지역 특히 랴오닝성의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랴오닝성 및 성 주요 도시에 대한 경제역량·잠재력 평가와 전망에 한계를 가짐
- 북중 접경협력 모색기로서 관련 보다 정확한 정책정보를 취득이 어려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 같은 연구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연구 주제를 보다 예각화한 후속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환황해권역 도시정부간 교류 여건 조사와 협력 방안, 초국경협력지대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방안, 변경시장에 대한 참여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단둥-신의주 초국경협력지대 인프라 분야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3
3. 연구접근법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9

II 중국 지역발전과 동북진흥

제1절 중국 지역발전전략 변화와 특징	13
1. 동부연해 위주의 불균형 발전 전략 (1980년~)	13
2.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의 조정- 권역별 성장 전략 (2000년~)	15
3. 권역 성장 거점 - 도시군 육성 전략 (2006년~)	16
4. 다핵네트워크형 지역발전 전략 (2014년~)	17
제2절 동북진흥 전략의 주요 내용	19
1. 동북 3성의 근대화 시기	19
2. 동북진흥 전략의 형성과 발전	20
제3절 <13·5규획>기간 동북진흥 정책 동향	27
1. 성장거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27
2. 산업구조 조정과 전략산업 육성	30
3. 대외개방과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33
4. 북중 접경협력 관련 정책 동향	35
제4절 종합	37

차 례

III 동북3성 경제·산업 조사

제1절 동북지역 경제 규모 및 추이	41
1. 지역경제 규모 및 추이	41
2. 대외경제 규모 및 추이	50
제2절 동북지역 산업구조 및 특화도	55
1. 동북지역 1·2·3차 산업구조	55
2. 동북지역 산업 특화도	60
제3절 종합	72

IV 동북 지급시 경제·산업 역량 비교

제1절 조사 개요	75
제2절 동북지역 지급시 경제 현황	76
1. 동북 지급시 지역경제·소비경제	76
2. 동북 지급시 대외경제	81
제3절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구조 및 특화도	85
1. 지급시 1·2·3차 산업구조 특징	85
2.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특화도	88
제4절 동북지역 주요 거점도시 조사	96
1. 랴오닝성 선양시	96
2. 랴오닝성 다롄시	101
3. 지린성 창춘시	105
4.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109
5. 랴오닝성 단둥시	113
6.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115

차 례

V 결론 :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종합	121
1. 국가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연동한 동북지역 개발 정책 흐름	121
2. 동북3성 경제·산업 특징	121
3. 동북 지급시 경제역량 비교	122
제2절 인천-동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124
1. 기본 방향	124
2. 분야 별 주요 과제	130
3. 추진체계 정비	153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156
참고문헌	157

표 차례

<표 1> 동북3성 개요	4
<표 2> 관련 선행연구 개요 및 연구 차별성	8
<표 3> <동북진흥 12·5 계획> 산업 및 대외개방 주요 내용	26
<표 4> <동북진흥 13·5 계획> 경제산업 정책 방향	30
<표 5> <동북진흥 13·5 계획> 장비제조업 중점 사업 분야 및 거점	31
<표 6> 동북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산업	32
<표 7> <동북진흥 13·5 계획> 대외개방 정책 방향과 과제	33
<표 8> <동북진흥 13·5 계획> 교통 인프라 건설 중점 사업	34
<표 9> 중국 동북지역 GRDP 규모 및 성장률	42
<표 10> 중국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규모 및 성장률	45
<표 11> 중국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및 성장률	48
<표 12>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 및 성장률	51
<표 13> 중국 동북지역 FDI 규모 및 성장률	54
<표 14> 랴오닝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57
<표 15> 지린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58
<표 16> 헤이룽장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59
<표 17> 동북지역 2차산업 LQ(2016년)	61
<표 18> 동북지역 3차 산업 LQ(2016년)	68
<표 19> 동북지역 지급시 지역 경제 현황 (2016년)	76
<표 20> 동북지역 지급시 대외경제 현황 (2016년)	81
<표 21>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규모 및 비중 (2016년)	86
<표 22> 랴오닝성 지급시 LQ(2016년)	88
<표 23> 지린성 지급시 LQ(2016년)	91
<표 24> 헤이룽장성 지급시 LQ(2016년)	93
<표 25>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개요	97
<표 26> 선양시 개요	98
<표 27> 선양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100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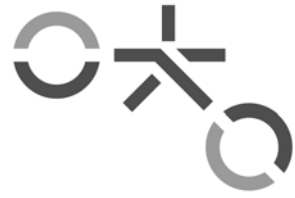
<표 28> 다롄시 개요	102
<표 29> 다롄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104
<표 30> 창춘시 개요	106
<표 31> 창춘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108
<표 32> 하얼빈시 개요	110
<표 33> 하얼빈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112
<표 34> 단둥시 개요	113
<표 35> 단둥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114
<표 36>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요	116
<표 37> 연변조선족자치주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117
<표 38> 동북 지역 발전전략 · 경제/산업 분석 종합	123
<표 39> 면접조사 개요	124
<표 40> 중국 연변자치주 주요 교육 ·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132
<표 41> 전국/인천시 국적별 외국인 인구 현황(2017년)	134
<표 42> 인천 중국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2017년)	135
<표 43> 인천-중국 친환경 기술 교역 사례	138
<표 44> 국내 항만 대중국 수출입액 및 비중(2017년)	140
<표 45> 인천 수출입 현황 및 비중 추이(2004년-2017년)	141
<표 46> 중국 소비시장 맞춤형 뷰티상품 판촉 사례 (JM솔류션)	143
<표 47> 중국 다롄-산둥 열차페리 사례	144
<표 48> 단둥 호시무역구 개요	148
<표 49> 단둥 접경 제도 및 인프라 - 황금평 관련 계획 및 위치	149
<표 50> 단둥 접경 인프라 - 신압록강대교 및 압록강철교 인근 교역시설	150
<표 51> 중국 주요 크루즈항만 개발 현황	152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수행체계	9
<그림 2> 중국 동부 연해도시의 발전 과정	14
<그림 3> 중국 4대 권역 지역발전 전략	16
<그림 4> 2형3종의 다핵네트워크형 중국 지역발전 프레임	18
<그림 5> 랴오닝성 도시군 공간 분포	23
<그림 6> 지린성 도시군 공간 분포	24
<그림 7> 헤이룽장 도시군 공간 분포	25
<그림 8> 동북 다핵네트워크 공간 구상	28
<그림 9> <13·5규획> 기간 동북-환반해 연계 고속철망	29
<그림 10> 랴오닝 일대일로종합실험구건설 구상도	36
<그림 11> 중국 및 동북지역 발전 전략 흐름	38
<그림 12> 동북지역 GRDP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43
<그림 13> 중국 동북지역 GRDP 성장률 추이(2001-2016)	44
<그림 14>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46
<그림 15> 중국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추이(2001-2016)	47
<그림 16>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49
<그림 17> 중국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성장률 추이(2001-2016)	50
<그림 18>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 및 전국대비 비중 추이	52
<그림 19>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성장률(2001-2016)	53
<그림 20> 랴오닝성 2차 산업 LQ(2016년)	63
<그림 21> 지린성 2차 산업 LQ(2016년)	65
<그림 22> 헤이룽장성 2차 산업 LQ(2016년)	67
<그림 23> 랴오닝성 3차산업 LQ(2016년)	69
<그림 24> 지린성 3차산업 LQ(2016년)	70
<그림 25> 헤이룽장성 3차산업 LQ(2016년)	71
<그림 26> 동북지역 지급시 GRDP (2016년) /(단위 : 억 위안)	78
<그림 27> 동북지역 지급시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2016년) /(단위 : 억 위안)	79

그림 차례

<그림 28> 동북지역 지급시 1인당 가처분소득 규모 (2016년) /(단위 : 위안)	80
<그림 29> 동북지역 지급시 수출입 규모 현황 (2016년) /(단위:만 달러)	82
<그림 30> 동북지역 지급시 FDI 규모 현황 (2016년) /(단위:만 달러)	84
<그림 31>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비중 (2016년)/(단위:/%)	87
<그림 32> 랴오닝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90
<그림 33> 지린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92
<그림 34> 헤이룽장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95
<그림 35> 선양시 산업 LQ(2016년)	99
<그림 36> 다롄시 산업 LQ(2016년)	103
<그림 37> 창춘시 산업 LQ(2016년)	107
<그림 38> 하얼빈시 산업 LQ(2016년)	111
<그림 39> 인천-중국 동북지역 교류협력 기본 방향	125
<그림 40>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분포 현황	127
<그림 41> 동북지역 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	127
<그림 42> 인천 대 동북지역 교류협력 중심지/개척지 분포	130
<그림 43> 인천의 제조업종별 중국 누적투자 총액(1992-2017년)	136
<그림 44> 인천의 중국 지역별 투자 누적 총액 및 추이(2008년-2017년)	137
<그림 45> 텐진국유기업 경영진 인천연수프로그램 주요 활동 (2014.8.24.-29)	146
<그림 46> 환발해 남북·중 크루즈 노선 구상	151
<그림 47> 추진체계 정비 방향 및 과제	155



I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I.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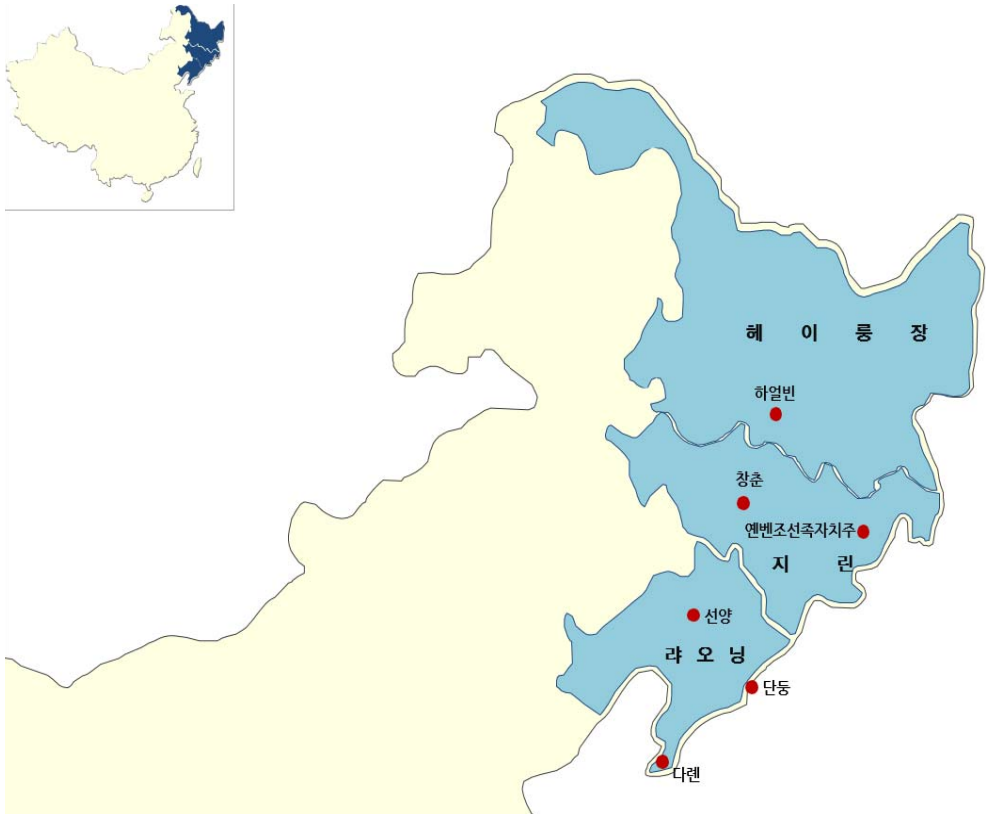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3성과 각 성의 지급시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동북 지역 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랴오닝성에는 성도 선양(沈阳)과 다롄(大连)의 2개 부성급시 외에 12개의 지급시가 있다. 동북 내륙의 지린성은 성도 창춘(长春) 외에 7개의 지급시 그리고 옌볜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동북 북단의 헤이룽장성은 성도 하얼빈(哈尔滨)과 11개의 지급시, 1개의 다싱안링(大兴安岭)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성의 인구, 면적, 행정구역 그리고 각 성 부성급시의 위치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동북3성 개요

	인구		면적		행정구역
	규모 / 만명	전국대비	규모/k㎡	전국대비	
랴오닝	4,378	3%	14.8	3%	부성급시(2), 지급시(12)
지린	2,733	2%	18.7	4%	부성급시(1), 지급시(7), 자치주(1)
헤이룽장	3,799	3%	42.5	9%	부성급시(1), 지급시(11), 지구(1)



	도시
랴오닝	선양(성도, 부성급), 다롄(부성급) , 안산, 번시, 차오양, 단둥, 푸순, 푸신, 후루다오, 진저우, 랴오양, 판진, 테링, 잉커우
지린	창춘(성도, 부성급) , 지린, 바이청, 바이산, 랴오위안, 쓰핑, 송위안, 통화, 옌볌(조선족자치주)
헤이룽장	하얼빈(성도, 부성급), 치치하얼, 무단장, 자무쓰, 다칭, 지시, 솜아산, 이춘, 치타이허, 허강, 헤이허, 쑤이화, 다싱안링(지구)

자료 : BAIDU백과 참고

3. 연구접근법

1) 문헌 연구 및 정책 분석

중국 동북 지역발전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보고서, 정책문건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중국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5개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五年计划)>을 수집·분석한다. 5개년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정책으로, 1953년 제1차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현재 제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 (이하 13·5규획)이 추진 중이다.¹⁾ 동북 3성과 지급시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지역 <13·5규획>을 분석한다. 동북 진흥전략에 대한 보다 총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중앙 동북진흥 관련 정책문건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2) 통계 분석

동북 지역 3개 성과 36개 도시의 경제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성 및 도시의 경제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규모, 소비시장, 대외경제 관련 지표를 추출하여 정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3장 및 4장의 1절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에 측정대상 지표에 활용된 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DB, 2017년 <중국도시통계연감(中国城市统计年鉴)>, 3개 성과 36개 도시의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각 성과 도시의 산업특화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업종별 종사자수를 활용한 입지상(LQ)분석을 실시했다. 성별 제조업 고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수준별 특화도를 진행하였다. 성 및 도시의 3차 산업 발달 정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3차 산업 업종을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이 같은 접근은 각 성과 도시별 경제역량과 산업고도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 5개년 규획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김수한·전유정(2017:5) 참고

3) 전문가 자문

중국 동북 지역 현지 정보의 취득, 조사 결과 및 도출한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 기간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착수회의 외에 3차례에 걸친 중국 전문가·공무원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인천-동북 교류 현황 파악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류 방향 제시를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 및 교류기관 실무자 면접을 2회 실시하였다. 인천-동북 교류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코트라, 중국현지 뷰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²⁾

4) 현지조사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4월 26일-27일 랴오닝성의 다롄시와 단둥시를 방문하여 ①취순항 열차페리시설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②단둥 북중접경 인프라 및 상업시설 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10월 12일-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를 방문하여 ③동북지역-북한 인문교류 인적 인프라 및 기관 협력 현황 ④훈춘 교통인프라 및 도시개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면접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5장 2절 참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중국 동북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정책연구의 경우 한국정부와 기업의 북방경제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초국경 협력이 추진되었던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북중 경협 및 지역개발 여건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³⁾ 이후 점차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 및 교통체계 등 현지 토대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2013년 시진핑 정부에 의해 일대일로 등 북방네트워크 국제협력 구상이 대두되고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정 기조에 따라,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 방안 모색 및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전략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⁵⁾ 이 같은 연구는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와 접점을 이루는 동북 지역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와 함께 동북 제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 역시 주목할 만하다.⁷⁾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중국 동북지역 기초 조사 연구 및 한반도-중국 접경협력 방안을 모색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한 연구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우선 이 연구는 동북 지역이 하나의 일체화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유사한 근대화 경험과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랴오닝과 지린·헤이룽장 등 내륙성과의 경제 역량 격차와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역 기초 조사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중국 거점도시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국토발전 전략 흐름 속에서 형성된 동북의 성장거점인 주요 도시들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한다. 동부 연해의 경우 상하이시 등 특대도시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대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도시는 특대도시를 축으로 하여 긴밀한 도시군(城市群)을 이루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⁸⁾ 반면 중국 동북 지역의 경우 주요 거점도시들과 기타 지급시 간의 역량 차이가 뚜렷하다. 동북 도시군들은 동부 연해에 비해 여전히 기초 교통·물류 인프라를 연결하는 초보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다.

3) 관련 논의로는 조명철 외(2005), 최수영(2007), 김원배(2006), 양운철·유현정(2012), 김수한(2012) 등을 들 수 있다.

4) 관련 주요 연구로는 김천규 외(2011) 및 서종원 외(2012) 등을 들 수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의 이현주 외(2016) 및 이현주 외(2017) 등의 연구가 있다.

6) 한반도신경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인 이현주(2018)에서는 한반도 남북경협의 대외여건으로서 주변국의 대외전략 및 인프라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이현태 외(2017a)는 13·5규획 시기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협 과제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태 외(2017b)에서는 중국 <제조업2025> 전략에 따른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8) 중국 동부연해 지역의 도시군집 현상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전유정(2017:74-8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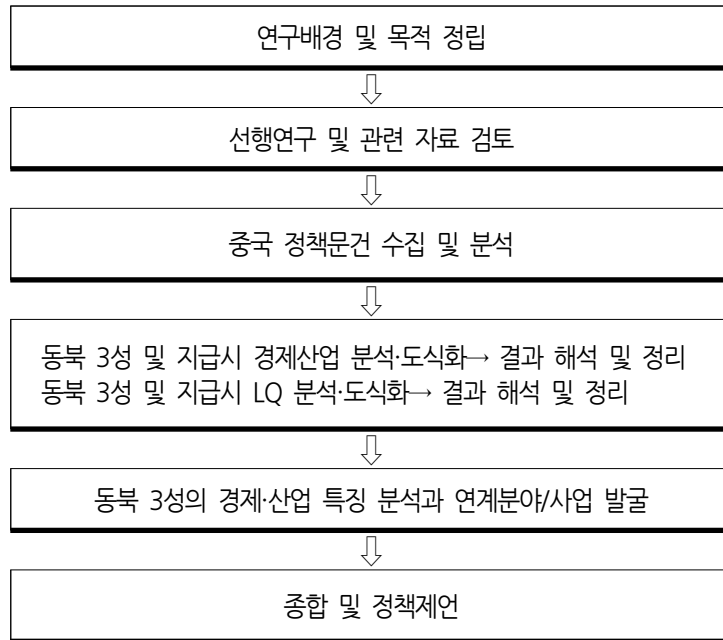
본문에서는 이 같은 동북 공간발전 단계에 주목하여 성 단위 뿐만 아니라 지급시를 분석 단위로 다루고 있다. 동북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시 차원으로 예각화하여 접근하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지방외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토대 자료 제공을 기대한다.

〈표 2〉 관련 선행연구 개요 및 연구 차별성

	주제	선행 연구 개요
1	북중 경험 지역개발 연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명철(2005) 북중경협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분석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2007) 북중 경험 확대 배경, 현황·특징 분석과 한국 대응방안 모색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원배(2006)
		‘창지투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양운철·유현정(2012) 창지투 개발 검토를 통한 국가전략의 도출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김수한(2012) 북중 접경협력 성공 가능성 탐색·지방정부 연계 방안 모색
2	동북 기초 조사 연구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 계획의 특성 분석 연구’ 김천규 외(2011) 중국 동북 발전계획 문제점 파악 및 시사점,활용방향 제시
		‘중국동북지역 교통체계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서종원(2012) 동북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과 기능별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도출
3	한반도+북방 연계방안 연구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이현주(2016) 중몽러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현황·정책, 연계안 제시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현주 외(2017). 나선 훈춘일대 동해권역 개발 및 연계방안 검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현주 외(2018) 주변국의 북방경제 인프라 구축 정보 제공
4	동북과의 신경협 방안 모색	‘13·5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이현태 외(2017a). 침체 국면의 동북지역과 경협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제기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현태 외(2017b) 〈제조업2025〉 국가전략에 따른 중국제조업 변화 전망
차 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경제역량 및 산업구조 특징 비교 • 동북 거점도시 중심 역할 연구 	
	개별 성과 지급시의 총합으로서의 동북지역 동북 공간발전 단계에 주목, 성/지급시 경제역량·산업구조 비교 도시정부 차원의 지방외교 방안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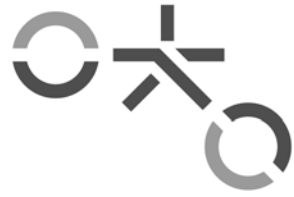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이 보고서의 연구수행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수행체계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 과정과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북진흥 전략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두된 동북 지역 성장 거점 주요 도시 및 이를 결절점으로 하는 다핵네트워크 구상 등의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동북 3성의 경제·산업 특징 파악을 위해 각 성의 지역경제 현황과 산업 특화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동북 3성의 경제지표를 ▲지역·소비경제 ▲대외경제로 나누어 전국과 비교하여 그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지역 지급시 경제·산업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경제역량 분포 현황과 산업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경제역량이 각 성의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동북 4대 경제 수위도시인 선양, 다렌, 창춘, 하얼빈 기본 현황 및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본다. 아울러 북중 접경 협력에 거점으로서 전략적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단둥시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의 결론인 5장에서는 본문의 동북지역 지역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현황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천-동북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Ⅱ

중국 지역발전과 동북진흥

제1절 중국 지역발전전략 변화와 특징

제2절 동북진흥 전략의 주요 내용

제3절 <13·5규획>기간 동북진흥 정책 동향

제4절 종합

Ⅱ. 중국 지역발전과 동북진흥

이 장에서는 중국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 과정과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북진흥 전략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두된 동북 지역 성장 거점 주요 도시 및 이를 결절점으로 하는 다핵네트워크 구상 등의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본장 제1절의 내용은 김수한·전유정(2017:13-17)에 기초하여 재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구성하였다.

제1절 중국 지역발전전략 변화와 특징

1. 동부연해 위주의 불균형 발전 전략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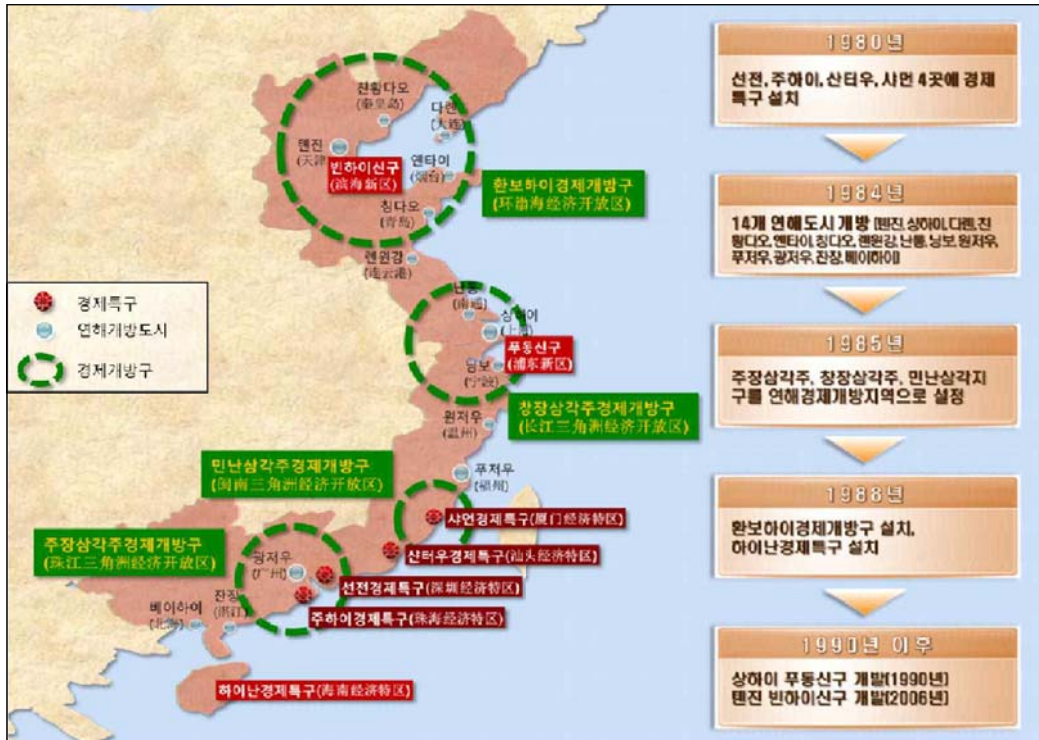
1978년 개혁개방에 착수한 중국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 종종 “돌다리 두드리며 건너기”(摸着石头过河)로 묘사되곤 하는 중국의 점진식 개혁 경로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급진적인 개혁 조치와 구별된다.⁹⁾ 그러나 점진식이란 꼭 속도의 측면에만 맞추어진 특징이 아니다. 중국의 점진식 개혁은 기존 체제의 핵심 요소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요소, 요컨대 시장가격메커니즘, 민영기업과 같은 비국유경제 요소를 도입·육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체제 전환을 수행하는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점진식 개혁은 위험회피(risk-avoiding)의 보수적인 개혁 전략이며 “증량개혁”(增量改革: incremental reform)의 특징을 가진다.¹⁰⁾

중국정부는 농촌에서 증량개혁을 통한 초보적 성공을 획득한 후 이 같은 개혁방식을 대외개방 분야에 적용, ‘점-선-면’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실시했다. 동부 연해 도시에 시장화 체제개혁이 시범적으로 실행되었고 대외개방 정책이 선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선 화교 자본 유치에 위해 1980년 광둥(廣東)성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9) 중국과 소련·동구사회주의와 개혁방식에 대한 비교 내용은 Gregory C.Chow(2005:57) 참고

10) 위험회피의 보수적 중국 전략 특징과 중국 증량식 개혁 특징에 대해서는 吳敬璠(1998:76) 참고

산터우(汕頭)와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등 4개 도시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1984년에는 동부지역 해안선 18,000km를 따라 위치한 14개 연해도시의 대외개방이 결정되었다.¹¹⁾ 1990년대 들어 상하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푸둥신구(浦東新區)개발이 국가 정책으로 격상되었다. 상하이 푸둥개발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 성장거점이 기존의 14개 개방도시 및 주장 삼각주 유역에서 화둥으로까지 확대되고 점차 연해를 따라 복잡하였다. 2006년에는 환발해의 텐진시 빈하이신구(滨海新区)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그림 2〉 중국 동부 연해도시의 발전 과정

자료 : 김수한·김현수(2013:16)

11) 동부지역 14개 도시는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다롄(大連), 천황다오(秦皇島), 옌타이(煙台), 칭다오(靑島), 쉰원강(連雲港), 난통(南通),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간장(湛江), 베이하이(北海)이다.

2.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의 조정- 권역별 성장 전략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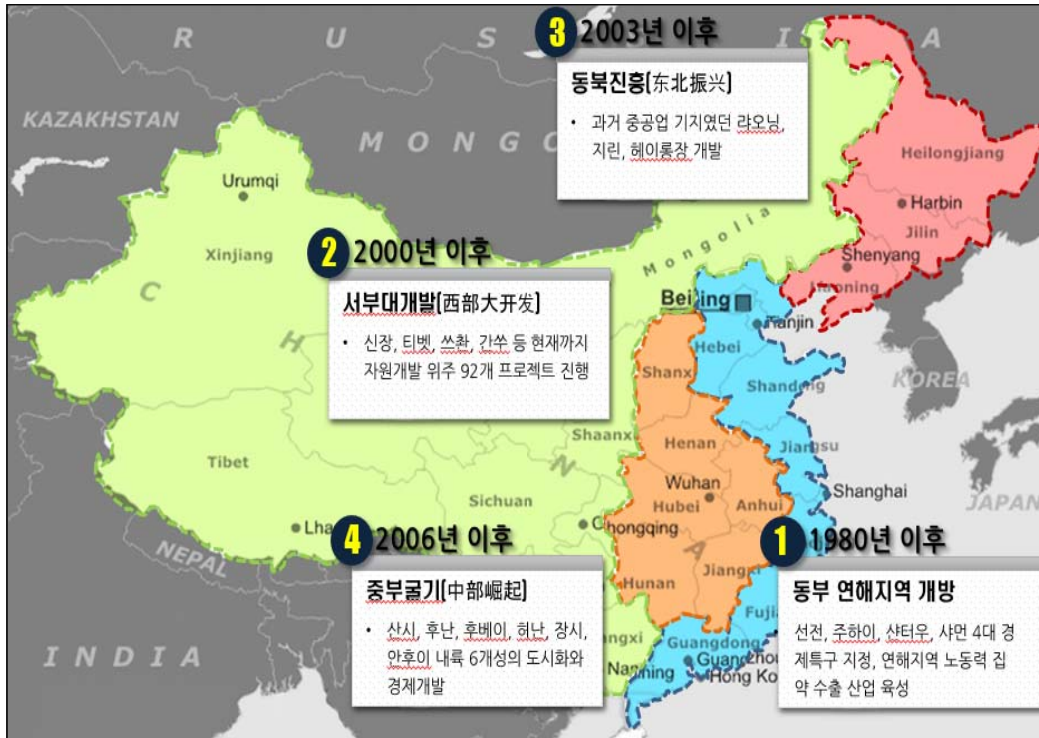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한 동부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에 힘입어 연해 지역 도시들은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추진해 온 동부 연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었다. 중국 정부는 동부 연해 중심의 발전전략을 통해 내륙은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연해에 제공하고, 연해는 내륙지역에 산업제품·기술·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연해의 선도적 경제성장이 내륙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간 격차를 인정하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분업 실현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효율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동부 연해와 중서부 내륙의 경제역량과 발전단계의 차이를 강조하는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이었다.¹²⁾

1996년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9·5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권역별 성장전략 기초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2003년 <동북진흥(東北振興)> 그리고 2006년 <중부굴기(中部崛起)> 등 권역 지역발전 전략이 차례로 등장하였다. 장쩌민 집권기 착수된 서부대개발 전략은 소수민족 집거지인 광활한 서부권역의 발전을 위한 단계적 지역개발 프로젝트이다. 1단계 사업은 자원개발과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북부 산시성의 시안시와 서남부의 충칭, 쓰촨의 청두 등의 도시들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¹³⁾ 산시, 후난, 후베이, 허난, 장시, 안후이 등 중부 내륙 6개성의 도시화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굴기전략은 2006년 착수된 이후 다른 권역에 비해 그 추진이 미미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상하이로 중심으로 한 창장 삼각주를 시점으로 하여, 중부를 관통하여 창장상류의 충칭 등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 구상에 힘입어 본격적인 중부지역 발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¹⁴⁾

12) 중국 동부연해 개방과 도시발달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김현수(2013:15-18) 참고

13) 서부대개발과 권역 거점도시 성장에 관한 내용은 김수한·전유정(2017:103-115) 참고

14) 중부굴기전략은 중부를 중국의 식량생산기지, 에너지기지, 장비제조첨단산업기지이자 종합교통 허브로 육성하고 동부지역 산업이전 및 민간경제 활성화 등의 지향을 담고 있다. 중부 권역 기본 현황은 김수한·전유정(2017:95-96) 참고



〈그림 3〉 중국 4대 권역 지역발전 전략

3. 권역 성장 거점 - 도시군 육성 전략 (2006년~)

중국에서 권역 발전 기조가 확립됨에 따라 지역별 권역 거점도시와 도시군(城市群)육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1·5규획>을 통해 도시군 개념이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후진타오 집권 2기인 2006~2010년 동안 도시군 전략이 중국 지역발전과 공간배치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¹⁵⁾ 중국 정부는 권역별 도시군을 통해 도시인구를 전국 차원에서는 분산하되 지역 차원에서는 집중시키는 대규모 분산 집중식 도시화를 통한 생산구조의 고도화, 소비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¹⁶⁾ 이 같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화는 새로운 관점에서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도시군과 그 중심도시를 통해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중도를

15)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는 도시집합체를 의미하는 도시군은 도시간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이다. 중국 도시 및 지역공간 연구에 있어 도시군이 점차 중요한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최근 연구로는 刘士林, 刘新静(2016) : Chuanglin Fang&Dan Yu(2016), FulongWu(2015), 김현수·김수한(2017) 등이 있다

16) 중국 도시군 형성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2014b:9-11)을, 중국 권역별 성장거점 조성에 대한 함의는 김원배(2011) 참고

높임으로써 지역별 성장동력과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고도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기존의 불균형성장 전략이 낳은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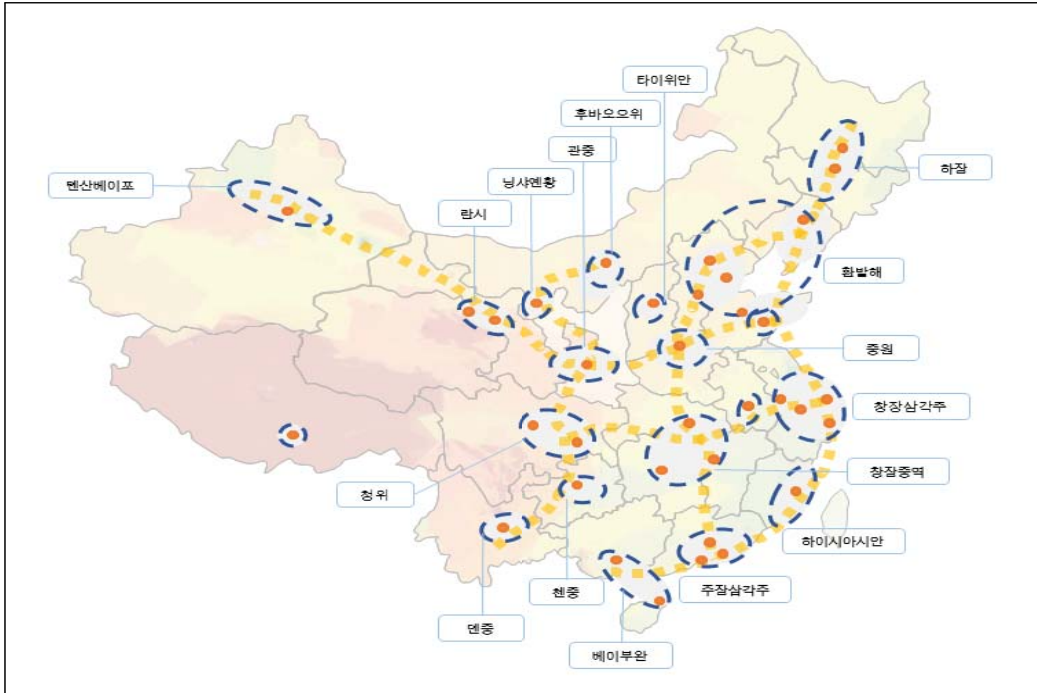
권역거점 육성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연해 지역에 새로운 발전도시 및 도시연계망이 부상하고 내륙지역에 성장거점 대도시가 나타나는 등, 중국의 경제·사회적 공간구조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군 육성을 통한 내수경제 성장점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12·5규획>에서는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도시군 전략이 전면화 되었다. <12·5규획>에서는 기존의 권역별 지역발전전략과 도시군을 결합한 형태의 공간발전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서부대개발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여 각 성의 도시군을 서부의 성장지대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3성은 랴오닝연해 경제대(辽宁沿海经济带) 및 선양경제구(沈阳经济区), 창지투경제구(长吉图经济区), 하다치(哈大齐)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부지역 또한 도시군 중심의 중부굴기를 촉진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4. 다핵네트워크형 지역발전 전략 (2014년~)

시진핑 중국정부는 2014년 중국 도시화 종합계획인 <국가신형도시화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중국이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에서 내수주도형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권역 거점도시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계획에서는 2개의 횡축과 3개의 종축을 중심으로 분포한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상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권역 성장거점인 도시를 결절점(node)으로 하여 중국 전역을 초광역망으로 연결, 경제자원의 집적도와 대외 개방성을 보다 강화하고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¹⁸⁾

17) 중국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도시군 형성 및 현황에 대해서는 김수한·김현수(2013) 참고. 중국 내륙 중부 지역 도시군 분포 및 발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김현수(2014) 제4장 등 참고

18) 중국 신형도시화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의에 대해서는 김수한(2014a) 참고



〈그림 4〉 2형3종의 다핵네트워크형 중국 지역발전 프레임

자료 : 〈전국국토계획강요(全国国土规划纲要)〉 본문 내용 참고하여 작성

중국정부는 이 같은 배경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그리고 징진지 전략을 통해 권역 도시군을 연결하여 행정권역을 초월한 초광역경제권 형성 구상을 제기하였다.¹⁹⁾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구상은 기본적으로 성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시군 (또는 성 거점도시)을 결절점으로 하여 이를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고 이에 기초한 산업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2017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국토발전종합계획인 〈전국국토계획강요(全国国土规划纲要) (2016-2030)〉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전국국토계획강요〉에서는 권역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핵으로 하는 다핵네트워크형(多中心网络型) 국토개발프레임 구축 방안을 제기, 국토 공간의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²⁰⁾

19)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양 방향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복원을 통한 유라시아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상인데, 기본적으로 “선으로서 점을 꿰고, 점으로서 면을 견인하는(一线串点, 一点带面)” 중국 공간발전 기조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의 도시군을 결절점으로 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각 지방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해서는 김수한 외(2016e)참고. 창장경제벨트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 외(2015a:13-16) 참고.

20) 〈전국국토계획강요〉에서는 자원환경 수용능력이 강하고 집약개발 수준이 높으며 발전잠재력이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부, 서부, 동북3성, 중부의 4대 권역에 바탕을 두고 시진핑의 지역전략을 통한 견인, 국가개발구를 중점으로 하고 대하천·교통간선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핵심축 구축

제2절 동북진흥 전략의 주요 내용

1. 동북 3성의 근대화 시기

1) 일본의 군수기지 조성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제정러시아에 의한 중동철도(中東鐵道) 및 남만철도(南滿鐵道) 건설과 같은 현대적 교통시스템의 출현은 동북지역의 빠른 도시생성을 가져왔다. 1908년 이후 동북의 도시인구는 지역 전체인구의 11%에 달하는 15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중국 평균 도시화율인 6.5%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다. 공간구조상 동북철도의 T자형 구조가 동북 4대 도시인 다롄, 선양, 창춘, 하얼빈의 입지 및 발전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²¹⁾

1910년대 이후부터 일본이 만주지역에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동북지구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²²⁾ 당시 일본은 이 지역에 경제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중공업 및 철도건설 투자를 집중하였다. 일본은 조밀한 철도망을 건설하여 이 지역의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수탈하는 한편, 군수 무기 제조를 위한 제철소 등 중공업을 육성하였다. 예컨대 1917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안산(鞍山)제철소는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철강회사의 모태가 되었다. 안산제철소는 생산이 안정화되고 이윤을 내기까지 15년 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중국 국내자본으로는 이와 같은 거대 산업프로젝트 투자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동북지역 공업화는 중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군수산업 형태로 전환되어 1936년에서 1942년 사이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였다. 1942년에 이르면 전력, 철, 시멘트 등의 공산품의 중국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동북지역에서 생산되었다.²³⁾

등을 제시하였다.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2017) 참고.

21) 김천규 외. 2011:11)

22) 당시 중국의 공업 성장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항된 조약항에 설치되었던 외국인 거주지역, 즉 조계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 성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중심의 공업 성장이었다.

23) 만주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산업은 일본의 국내 산업을 위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에 집중되었으며,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되었다. 이러한 공업화의 주요한 관리는 일본인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술직 역시 의도적으로 일본 국적의 사람들에게만 배정되었다. 따라서 당시 동북지역은 활발한 중공업 단지가 형성되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연관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 사회주의 중국의 중공업 기지

일본에 의해 설립된 중화학설비 및 산업기반은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에 일시 접수되었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에는 중공 정권에 의해 계획경제 육성의 근간으로 활용되었다. 경제개발 제1차 5개년(1953-57년)기간 중 구소련으로부터 도입된 156개 프로젝트 가운데 56개(투자총액의 37.3%)가 동북지역에 투자되어 공업기계 설비와 장비제조업 등 계획경제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1959년까지 동북지역에는 5,683개의 국영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동북3성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구소련이 지원했던 대형 중화학 공업 프로젝트와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우선 전략을 기반으로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공업생산을 주도했다.

3) 개혁개방 초기 동북지역의 침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연해 지역의 고속성장에 비해 이 지역은 국유기업 위주의 낙후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규 투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동북지역은 국유기업의 경영부진과 낙후된 설비로 인해 경제성장의 정체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동북지역의 공산품생산 비중은 1960년 23%, 1980년 16.2%, 2000년 9.8%로 하락했으며 GDP도 각각 전국의 18.0%, 14.3%, 10.9%로 떨어져 경제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80년 랴오닝성의 총공업생산량은 광둥성의 2배였지만 2002년 동북3성의 공업생산량은 다 합쳐도 광둥성의 62% 정도에 불과했다.²⁴⁾

2. 동북진흥 전략의 형성과 발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고 중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구가하는 상황에서도 동북지역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장쩌민 뒤를 이어 새롭게 구성된 후진타오 지도부는 동북진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본격적인 지역 진흥을 추진했다. 동북진흥전략 흐름을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집중했던 시작단계,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 확대 시기,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된 국가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략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다.

24) (유희문. 2004 : 38~39)

1) 동북지역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확대

(1) 국유기업 구조조정 착수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산업구조 재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 동북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1기인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에서 동북지역의 낙후된 공업기지를 새롭게 정비·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북지역 체제·산업구조 재편을 국가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²⁵⁾

동북지역 약 1,300개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착수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북3성내 제조업 부문에서 297건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총 1,089억 위안을 투자했다. 중북투자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한 기업합병, 노동자 감원, 주식회사제 전환 및 민영화,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선진기술, 자본, 경영기법 도입이 추진되었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 의약, 화학비료, 농약, 철강, 비철금속, 농산물 가공 등 19개 업종이었다. 동북3성의 약 60개 도산기업에 대해 중국 전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약 23.3%를 차지하는 163억 위안이 지급되었다. 동북진흥전략에 따라 2006년 말까지 랴오닝 대형국유기업의 85% 이상이 주식제 개혁을 단행했고 지린성은 816개 국유기업이 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완성했다. 헤이룽장은 개혁 대상 국유기업의 96%인 3,302개 기업이 개혁을 마쳤다.²⁶⁾

(2) 대외개방의 확대와 접경협력 추진

중국 당국은 동북진흥전략의 실시 3년 후 그동안 진행된 관련 정책결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통해 전략의 실제 성과는 국유기업 소유제 개혁에만 머물렀고, 외자 유치 등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는 미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동북지역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내부순환 경제에서 동북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요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5월 중국 당국은 <동북진흥3년평가보고>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외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국무원동북진흥영도소조 명의의 <동북지구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계획에서는 우선 기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의 동북3성에 국한되었던 진흥 공간 범위를 네이멍구자치구의 동부지역까지 포함하여 러시아, 몽골 등과의 접경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동북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그 구체적 대상으로 러시아, 몽골과 함께 북한을 적시하고 있다. 변경세관의 기초인프라와 주변 국가와의 국제물류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동북 각 성의 외부연계를 중요 전략으로 상정했다.

25) 동북진흥전략의 주요 내용 및 그 추이에 대해서는 중국 동북진흥넷(振興東北網) 참고

26) 동북진흥전략 도입 초기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내용은 장윤미(2007) 참고

2) 동북지역 도시군 전략의 도입과 확대

(1) 성급 도시군의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동북진흥전략의 대외연계 강조 속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제안되었던 성급 단위의 도시군 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09년 7월 랴오닝성 연해도시군 발전전략인 <랴오닝성연해경제대계획>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비준하였다. 또한 다음 달인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창지투개발 개방선도구를 위한 두만강구역 합작개발 요강(창지투 계획)>을 국가 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다.²⁷⁾ 중국 정부는 2012년 4월 훈춘(琿春)을 창지투 권역의 환동해 통로이자 물류거점으로 삼기 위해 국제협력시범구로 지정하였다.²⁸⁾ 또한 2010년 3월 랴오닝성 중부도시군 발전전략이 <선양 경제구신형공업화종합개혁방안>으로 확대·재편되어 국가급전략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도시군 중심의 동북진흥전략 재편은 2008년 미국금융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에 대한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대응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에 투자와 생산을 집중한 동부연해 일변도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는 투자자의 축소 및 대외무역 판매처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성장거점 창출을 위해 도입했던 동북진흥과 같은 지역발전의 핵심기조로 대외연계 강조와 더불어 도시군 전략을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2) <동북진흥 12·5규획>의 성별 도시군 전략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2·5규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내수 우선 경제구조 전환을 기조로 설정하고 있으며 랴오닝연해경제대 및 선양경제권 등의 도시군 전략을 중요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전략 변화는 2012년 3월에 비준된 <동북진흥 12·5 규획>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 규획에서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 창지투경제구, 하다치공업화랑, 두만강·쑤이편허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과 같은 각 성의 도시군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²⁹⁾

27) 창지투 선도구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 및 추진현황은 한국어 인민일보 홈페이지의 두만강지역개발 특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176256/index.html>)

28) 국제협력시범구는 총 90km의 면적으로 훈춘시 서북쪽의 북중 훈춘경제합작구역을 비롯해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중러 훈춘경제합작구역 등 총 4개 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아주경제, 2012.6.18.).

29) 관련 내용은 <동북진흥 12·5규획>의 pp. 27-28 내용 참고

❖ 라오닝성 2대 도시군 기능 강화

라오닝성은 선양을 중심으로 한 내륙 중부도시군의 육성과 잉커우로의 남쪽 출해항구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오닝 중부도시군은 선양을 중심으로 안산, 라오양, 푸순, 변시, 테링, 잉커우, 푸신의 8개 도시로 구성된다. 라오닝성의 핵심 중공업지대로서 산업분업체계 형성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 대외교역 창구인 다롄을 축으로 하여 동서 연해지역의 6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라오닝연해도시군은 각 도시간의 교통·물류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체화된 임항경제권 형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단둥은 북한 신의주와의 접경지역으로서 관련 초국경협력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라오닝성은 중부도시군과 연해도시군의 공간분포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라오닝성 도시군 공간 분포

자료 : <동북진흥 12·5규획>의 pp. 27-28 내용 참고하여 작성

■ 지린성 중부도시군과 창지투 개발계획

동북 내륙의 지린성은 성도인 창춘을 중심으로 한 중부도시군 육성과 국가급 전략인 창지투를 활용한 출해루트 개척을 도모하고 있다. 지린 중부도시군은 창춘과 지린시를 중심으로 쓰핑, 랴오위안, 쑹위안의 도시 기능 일체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창지투 계획은 <동북지구진흥계획>에서 제기되었던 창춘-지린 경제구를 골간으로 하여 엔지, 훈춘까지 개발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나진항을 국제물류통로로 활용, 창춘-지린 도시군의 대외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중국이 창지투 개발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주요 계획은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제 연결루트(大通道)건설 △과학기술창조지역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건설 △현대물류지역 건설 △생태여행지 건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 △현대농업모범지역 건설 등이다.



〈그림 6〉 지린성 도시군 공간 분포

자료 : <동북진흥 12·5규획>의 pp. 27-28 내용 참고하여 작성

❖ 북반부 헤이룽장 도시군 육성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헤이룽장성의 경우 성도인 하얼빈과 에너지생산·공급업이 발달해 있는 다칭의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군을 육성하고 있다. 하다치무도시군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서는 하얼빈·무단장과 다칭·치치하얼을 발달시키고中间的 쑤이화시와의 교통·물류 연계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7〉 헤이룽장 도시군 공간 분포

자료 : <동북진흥 12·5규획>의 pp. 27-28 내용 참고하여 작성

이상과 같은 각 도시군들은 동북지역의 성장 거점으로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지역으로 관련 정책 지원이 집중된다. 또한 다음 <표 3>과 같이 대외개방의 핵심 지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3〉 〈동북진흥 12·5 계획〉 산업 및 대외개방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제산업	제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우위산업(장비제조, 자동차, 야금, 석화)구조 고도화 농림생산물 및 특색 방직 공업 발전 기업 연합 합병 및 재편 지속
	신흥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환경보호 및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등 중점 육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지역의 공업·농업 비교 우세 발휘하여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 정보기술, 디지털,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 지적재산권, 하이테크 서비스 등 발전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체제 개혁 심화 출판인쇄, 영상, 연예오락, 애니메이션게임, 관광 등 문화산업 육성 지재권과 혁신역량 구비 문화기업·기업집단 육성 문화산업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제고
대외개방	연해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닝연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동북대외개방 선도 다롄동북아국제해운중심 국제물류센터 가속화
	창지투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이룽장, 네이멍구 지역 변경 개발개방 적극 추진하여 동북동부연해지역대의 개방 확대 만저우리, 얼옌하오터, 훈춘, 헤이허, 쉰이펀허, 푸순, 단둥 등 도시 혁신 체제 지원하여 대외개방 수준 업그레이드
	러시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서시베리아지역합작규획요강(2009-2018) 실시하여 철도 다리 건설 가속화 동북지역 대 러시아 과학기술 합작 강화 중러지역합작발전(투자) 기금 설립
	한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연계·인적왕래를 밀접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금융, 물류 등 현대서비스와 하이테크산업 이전 과학기술합작 역량 강화, 한·일 기술 도입과 인재 관리
	북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자원, 기초설비, 여행, 건축업, 농업, 상업무역물류 협력
	대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다보스포럼(다롄), 중국지린·동북투자무역박람회, 하얼빈국제경제무역 상담회 역할 발휘

자료 : 〈동북진흥 12·5 계획〉, pp.15-20; pp.60-61. 내용 정리

제3절 <13·5규획>기간 동북진흥 정책 동향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동북진흥 13·5규획>에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 온 국가 및 지방의 동북진흥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 그리고 각 성별 거점도시 및 도시군 형성 등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규획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북지역의 경우 신성장 동력이 미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 등 전통적 경제역량이 쇠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성장거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전통제조업 고도화와 전략 산업 육성, 일대일로에 따른 서항 개방 루트 개척과 인프라 구축 등의 동북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⁰⁾

1. 성장거점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1) 국가급 신규 지정 및 운영

<12·5규획>기간 동북 각 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성장거점 육성 기조가 <13·5규획>에서 보다 발전하였다. 2014년 지정된 다롄진푸신구(大连金普新区)에 이어 2015년 12월 하얼빈신구, 2016년 2월 창춘신구(长春新区)가 설립되는 등 성장거점 육성 방안이 강화되었다.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중대 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종합기능복합지구로서 2018년 현재 전국에 총 20개의 국가신구가 운영되고 있다.³¹⁾

동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다롄시의 진푸신구는 동북아국제항공·해운 물류 중심지 역할에 특화되어 있다. 하얼빈신구는 대외개방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물류 관련 제도 개혁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창춘신구의 경우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학기술산업 혁신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육지 해관 및 공항 등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두만강 지역의 다자간 국제협력을 지원하게 된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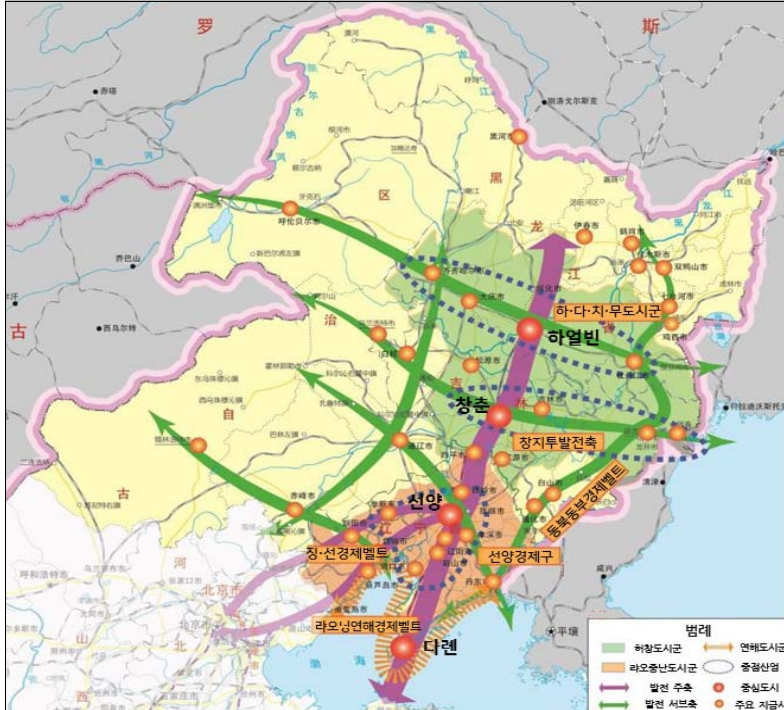
30) <12·5규획>기간 동북진흥 성과 평가 및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규획>의 pp.1-8 참고

31) 국가급 신구에 기본정보는 BAIDU 백과 참고

32) 동북지역 국가급 신규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 규획> p.32. 참고

2) 동북 다핵네트워크 구축

〈동북진흥 13·5규획〉에서는 다음 〈그림 8〉과 같이 주요 거점도시 및 도시군을 교통·물류망으로 연결하는 동북지역 다핵네트워크 공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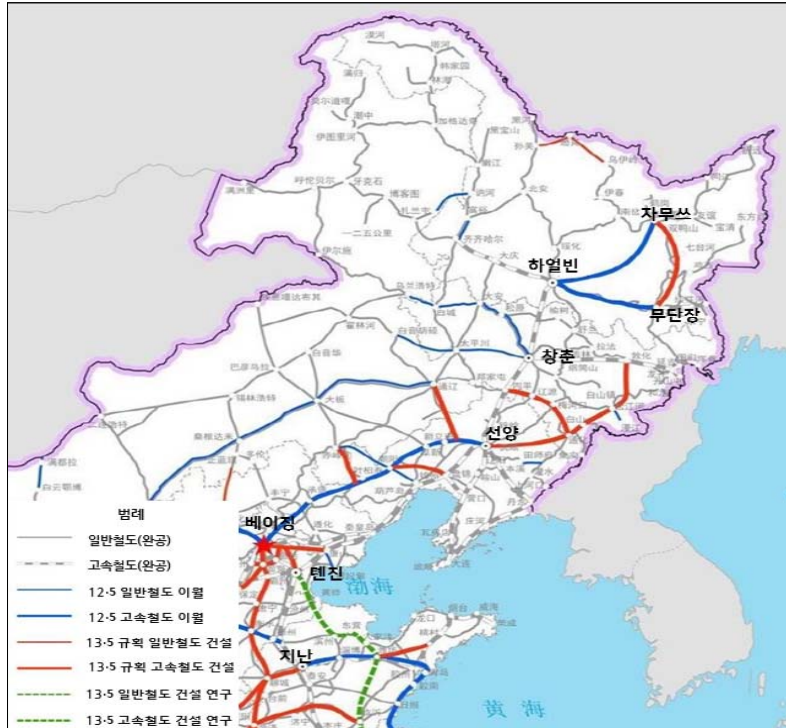


〈그림 8〉 동북 다핵네트워크 공간 구상

자료 : 〈동북진흥 13·5 규획〉 p.32.

각 성별 거점도시 및 도시군을 결절점으로 한 동북 다핵네트워크 공간 구상의 중추는 다롄-선양-창춘-하얼빈 발전축이다. 이 중심축에 기초하여 랴오닝성에는 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가 자리잡고 있다. 동북 내륙 지린의 창춘 도시권과 헤이룽장의 하얼빈 도시권을 통합 발전시키는 ‘하창발전축’ 공간 구상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한편 〈동북진흥 13·5 규획〉에서는 일대일로 국가전략에 따라 동북지역을 넘어서 환발해, 네이멍구, 러시아 등으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베이징-선양경제벨트 구성을 통해 동북-환발해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그림 9〉 〈13·5규획〉 기간 동북-한반해 연계 고속철망

자료 : 〈13·5현대종합교통운수체제발전규획〉 부록

또한 치치하얼-츠핑, 쑤이판허-만저우리, 훈춘-아얼산시, 단둥-휘이린허, 진저우-시린 하오터 등 북부로의 경제벨트 연장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지린성 동부지역에서 한반도 접경을 따라 남하하고 단둥시로 연결하여 출해 루트를 조성하는 동부경제벨트 구상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중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북한 나선을 통해 출해항구 개척을 추진했던 창지투 전략의 일대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

〈그림 9〉와 같이 중국정부는 〈13·5규획〉기간 선양-베이징 연결 고속철망을 확대하고 북쪽으로는 동북경제벨트와 연계하여 지린 동부와 연결한다. 또한 베이징으로부터 허베이성 및 산둥성 등으로 연결하게 된다.

33) 관련 공간 배치 구상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규획〉의 pp.30-35 참고

2. 산업구조 조정과 전략산업 육성

1) 기본 방향

〈동북진흥 13·5규획〉에서는 동북지역 제조업과 전통우위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대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개혁과 관련 하여 첨단장비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제조 2025〉 국가전략을 통해 장비제조업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을 추진하여 신행 공업화 시범기지 건설 그리고 군수 산업과 관련하여 군수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시범구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철강, 석탄 등에 대한 생산을 통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한 기술 투입 및 신행소재 기지 육성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³⁴⁾

〈표 4〉 〈동북진흥 13·5 규획〉 경제산업 정책 방향

방향	주요 내용
제조업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장비제조업 적극 발전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동북 장비경쟁력 강화 • 정보화·공업화 융합 추진, 신행공업화시범기지 건설 • 군수융합산업 발전 추진, 군수융합 혁신시범구 건설
전통 우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통제 • 정밀가공 수준 향상(공정플라스틱, 화학공업신소재) • 비교우위 자원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동북지역을 국가 신행 소재기지로 육성
전략적 신행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신행산업 육성(IT, 신에너지차, 첨단장비 및 소재, 환경보호) • 선양, 하얼빈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신행산업혁신발전기지 건설 • 농산물정밀가공을 통하여 네이멍구 의약품 등 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 인터넷+촉진(전자상거래, 인터넷의료, 인터넷교육)
현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서비스업 : 현대물류업, 물류정보플랫폼·표준화체계 개선 • 소비자 서비스업 : 관광, 문화, 체육, 보건, 양로 소비 구조 개선 • 관광 인프라를 통한 생태, 공업, 변경, 문화 발전 • 제조업 서비스화 추진(제품연구개발, 첨단서비스, 품질진단 등 온라인 부가가치서비스 발전 지원) • 생산제조→생산서비스형으로 전환 • 선양·창춘·하얼빈 서비스·제조업 심층융합 시범 기지 건설

자료 : 〈동북진흥 13·5 규획〉 pp.23-29 정리

34) 동북지역 경제구조 재편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규획〉의 pp.23-29 참고

2) 장비제조업 중점 사업 분야 및 거점

〈동북진흥 13·5 계획〉에서는 동북지역 주력 산업인 장비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점 사업 분야 및 산업 거점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장비제조업 분야는 ▲전력 ▲우주항공 ▲궤도교통 ▲스마트제조 ▲농기계 ▲선박해양 ▲신에너지 ▲석유화학 ▲야금 9개 분야이다.

〈표 5〉 〈동북진흥 13·5 계획〉 장비제조업 중점 사업 분야 및 거점

		내 용
전력	중점 사업	원자력장비, 대형고효율 석탄발전 장비 세트, 대용량 수력발전 세트, 중형 가스 터빈(gas turbine), 초고압 전력 송전 장비,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설비
	거점	전력장비제조기지(하얼빈, 자무쓰, 지린, 선양), 치치하얼 원자력장비제조기지, 다렌 액류전지저장 장비산업화기지
우주항공	중점 사업	헬리콥터, 통용항공기, 경량다용도항공기, 지선 비행기, 무인기, 위성, 우주기기, 신형항공엔진, 항공기 동력 전달 시스템, 대형정밀전용부품 등 핵심부품
	거점	하얼빈 우주항공장비제조기지, 통용항공산업기지(지린, 다렌), 선양 우주항공제조기지
궤도교통	중점 사업	고속전동차, 신형내연기관차, 철도화물차, 현대궤도전철, 도시고속궤도열차 등 궤도교통장비
	거점	궤도교통장비제조지(창춘, 하얼빈, 치치하얼, 다렌), 랴오양 장비제조산업기지
스마트제조	중점 사업	고정밀·고성능 정밀측정설비, 고정밀 디지털제어장비, 3D프린터 설비, 로봇 부품
	거점	하얼빈 스마트장비제조기지, 치치하얼 수치제어기계 제조기지, 첸단스마트장비산업기지(선양, 창춘), 선양 로봇산업기지, 다렌 스마트제조장비기지, 푸순 스마트장비기지, 안산 레이저전자 및 자동화 장비산업기지
농기계	중점 사업	종합수확기계, 정밀파종·시비기계, 정지기계, 선진 목축업 기계, 대형농기계제저시스템
	거점	후룬베이얼 목축업기계장비제조기지, 농기계장비제조기지(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자무쓰, 치타이허, 쓰핑, 송위안, 선양)
선박해양	중점 사업	고기술선박, 대형원양선박, 크루즈, 해양광산자원개발장비, 심해탐측장비, 해상작업보장장비
	거점	다렌 선박·해양공정장비기지, 하얼빈 해양공정장비기지 등
신에너지	중점 사업	풍력발전장비, 고성능태양에너지전지, 연계형 발전소, 분포식 태양발전광
	거점	하얼빈 신에너지장비산업기지, 풍력발전장비산업기지(무단장, 헤이허, 자무쓰), 바이청 풍력발전장비산업단지, 다렌 풍력장비핵심부품개발기지, 차오양 신에너지산업기지, 진저우 태양광산업기지
석유화학	중점 사업	대형석유화학제품 생산라인, 대형천연가스액화 생산라인, 대형석탄화공 생산라인, 대형고품질석유정제장비, 석유채취장비
	거점	다칭 석유화학장비제조기지, 치치하얼 석유화학장비기지, 무단장 석유화학장비산업기지, 선양 석유화학장비기지, 다렌 석유화학통용장비기지, 판진 석유천연가스장비기지
야금	중점 사업	대형고효율금속냉열압연기, 철강고효율정밀설비, 철광석 배소설비, 철탄압연장비
	거점	치치하얼 야금장비기지, 푸신 유압산업기지, 다렌야금장비제조기지, 랴오닝(랴오양) 알루미늄합금정밀가공산업기지

자료 : 〈동북진흥 13·5 계획〉 pp.25-26. 참고하여 정리

3)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진흥 13·5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북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과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랴오닝성에서는 선양과 다롄을 중심으로 항공, 로봇, 해양공정, 신에너지자동차, BIO·의약, IT·서비스 등의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린성에서는 창춘시를 중심으로 하여 BIO·의약, IT소재, 궤도차량, 자동차 전장 등의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헤이룽장성에서는 하얼빈과 다칭 등 중심도시에 BIO·의약, 클라우드, 클린에너지장비, 로봇 등의 산업집적지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동북 권역에 일부 편입된 네이멍구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BIO·의약, 클라우드, 신에너지산업 육성 방향이 제시되었다.³⁵⁾

〈표 6〉 동북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산업

성	지역 및 육성 산업
랴오닝성	선양(민용항공산업), 선양·다롄(로봇산업), 다롄·판진 (해양공정장비산업), 선양(신에너지자동차산업), 다롄·번시(바이오의약산업), 선양(정보기술·서비스산업), 안산 (레이저응용산업), 다롄(정보기술·서비스산업), 다롄(직접회로디자인·제조산업)
지린성	창춘·통화·옌벤(바이오의약산업), 창춘·지린(전자상품제조산업), 지린·통화(고성능화학섬유 복합소재산업), 창춘(인공위성·응용산업), 창춘(궤도차량제조산업), 창춘(자동차전자산업)
헤이룽장성	하얼빈·다칭·무단장(바이오의약산업), 하얼빈(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지시·허강(흑연소재료), 하얼빈(로봇산업), 하얼빈·치치하얼(클린에너지장비산업), 다칭(고급석유화학산업), 치치하얼(중장비산업)
네이멍구 동부	통랴오·초핑(몽골 약·바이오의약산업), 통랴오·초핑(바이오제조산업), 싱안맹·초핑(바이오육성산업), 초핑(클라우드컴퓨팅), 초핑(신에너지산업)

자료 : 〈동북진흥 13·5 계획〉 p.28 정리

35) 동북지역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 육성 지역 및 산업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계획〉의 p.28 참고

3. 대외개방과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동북진흥 13·5 계획〉의 대외개방 및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중몽러경제회랑 구축이다. 또한 대외 경제협력 프로젝트 역시 러시아 및 몽골에 집중되어 있다. 대 러시아·몽골 인문교류가 동북지역 정부의 중요 지방외교 의제로 대두되었다.³⁶⁾

〈표 7〉 〈동북진흥 13·5 계획〉 대외개방 정책 방향과 과제

방향	과제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유라시아 대통로 정책, 몽골 ‘초원의길’ 전략과 연계하여 촉진 계획 • 러시아·몽골과 함께 도로, 철도, 항공, 항구 등 기초 인프라 구축 • 국제물류통로, 국경 기초설비 및 국경 물류 등 협력 강화 • 중몽러 정기 국제컨테이너물류 운송 열차 운행 • 에너지광산자원,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등 협력 강화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상하이협력은행, 실크로드펀드 등 소통·연계 강화
대 러시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극동개발전략 연계 강화하여 중·러지역협력 완비 • 우주항공, 철도, 전력, 현대농업, 임업, 광업 등 투자 협력 강화 • 중·러 과학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건설을 통한 중·러 환경산업협력 강화 • 중·러 국제협력시범구 추진하여 하얼빈 대 러시아 협력중심도시, 무단장 중·러 지역 우호협력 시범도시 건설
대 몽골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몽 발전계획, 단지 건설, 통관 편리화, 생태보호 등 협의 강화 • 얼렌하오터(二连浩特) 등 네이멍구 항구 기능 향상 • 우란차부시-얼렌하오터-울란바토르 철도 업그레이드 • 에너지자원 심층 가공 및 농목업 합작을 심화시켜 과학 교육, 국경 관광, 체육경기 등 교류 협력 강화

자료 : 〈동북진흥 13·5 계획〉 pp.50-51 정리

〈동북진흥 13·5 계획〉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방향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동북지역 거점도시들은 이 같은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잇는 결절점이자 허브로 조성되고 있다.

36) 동북지역 대외개방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은 〈동북진흥 13·5계획〉의 pp.50-51 참고

〈표 8〉 〈동북진흥 13·5 계획〉 교통 인프라 건설 중점 사업

구분	내용
고속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얼빈~자무쓰, 하얼빈~무단장, 무단장~자무쓰, 베이징~선양 철도 및 츠핑~베이징~선양 고속철도 연결선 건설 가속화 선양~통화~바이허~둔화, 쓰핑~통화 등 고속철도 건설 계획 무단장~둔화, 허강~자무쓰 철도 연구 계획
일반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춘~시바옌화 철도건설, 창춘~바이청~우란호터 확장, 헤이허~우이링 철도건설 창춘~투먼, 선양~단둥, 선양~지린, 쓰핑~통화, 쓰핑~치치하얼, 치치하얼~자거다치, 라파~하얼빈, 허강~자무쓰, 베이안~허강, 하얼빈~자무쓰 등 철도 개선 실시 한자위안~헤이허, 둥닝~훈춘 등 철도 연구 계획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1211 하얼빈~지린 구간 고속도로 건설, 순차적으로 G9111번시~지안 도로 추진 G4515 츠핑~쑤이중 국가고속도로 사전 작업 G1 하얼빈~창춘 구간, 쑤이중~진저우~판산 구간, G203선 지린 국도 확장 추진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얼빈 공항, 창춘 공항, 선양, 안산, 조양, 다칭 치치하얼, 통화 공항 확장 추진 옌지 공항 이전 추진 다렌신공항, 하이랄얼 공항, 무단장 공항 이전 초기 연구 송위안, 바이청, 젠싼장, 우다렌츠, 쑤이펀허 공항 및 정란기 지선 공항 건설
종합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얼빈, 창춘, 선양, 다렌 등의 종합 교통 허브 기능 전면적으로 높임 치치하얼, 지린, 잉커우, 통랴오 등 권역 종합교통허브 건설 추진 옌벤, 단둥, 훈춘, 쑤이펀허, 헤이허, 만저우리, 옌렌하오터 등 육해해관 건설



자료 : 〈동북진흥 13·5 계획〉 p.41 및 〈13·5현대종합교통운수체제발전계획〉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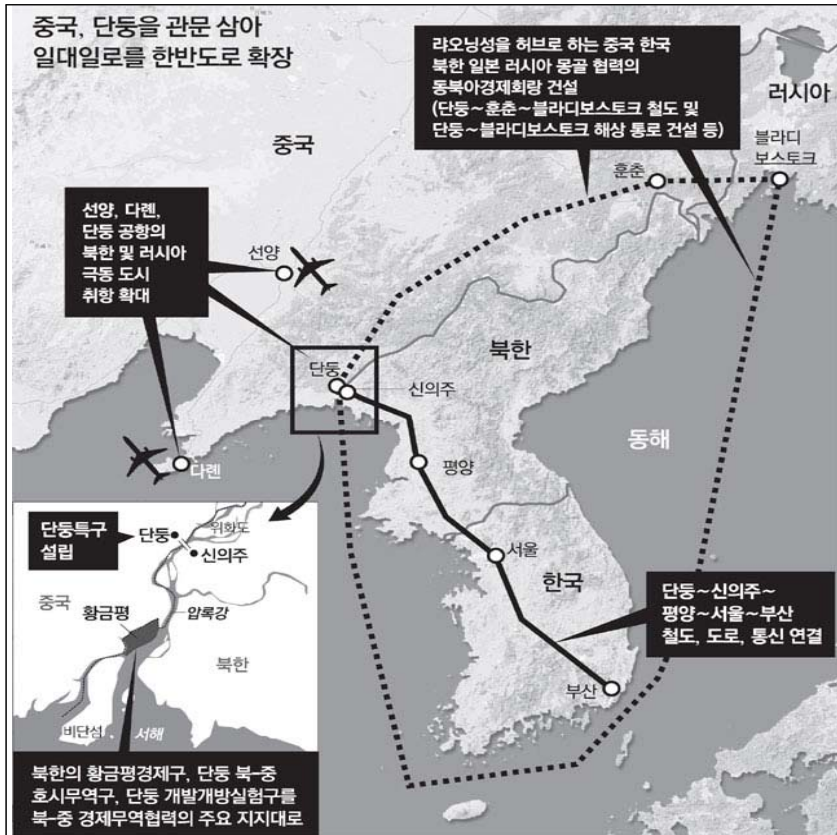
4. 북중 접경협력 관련 정책 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5규획>기간 동북진흥전략의 주요 내용은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13년 제창된 일대일로는 북방경제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줄곧 한반도와 접경에서의 협력을 배제한 상태로 서향 개방과 개발 일변도로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2015년 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동북진흥 <12·5>규획에서 제기되었던 동북3성과 북한과의 접경협력 및 교통루트 연계 방안이 <13·5규획>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해항구가 절실한 지린성의 경우 접경선을 따라 남하하여 랴오닝성의 단둥을 통한 교통·물류망 구상이 제기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순망치한(唇亡齒寒) 즉 상호의존적 동맹관계의 틀속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정은 집권기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변화하였고,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조건속에서 중국 당국은 북한으로의 동북지역 대외개방 루트 계획을 중단하고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서향개방 일변도의 동북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 같은 서향 일변도의 일대일로와 동북지역 정책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랴오닝성 정부는 2018년 9월10일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공개하였다. 문건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 호전을 기회로 활용해 북한, 한국, 일본, 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경제회랑'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와 도로, 통신망을 잇는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중앙에 건의해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경제 교류 중심 도시인 단둥특구(特區)를 조성하고 황금평경제구와 단둥 북중 국제호시(互市)무역구를 북중 무역 협력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언급하고 있다.

비록 랴오닝 지방정부의 정책 문건이지만 중앙정부의 허가 속에서 제출된 북중접경협력 구상에서 '동북아경제회랑'과 단둥특구 등에 대한 구상이 제기되었다. 대북재제 국면에서 불필요한 미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명의를 차용하고 있지만, 문건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고 최근 반부패 투쟁과정에서 주요 당정간부가 처벌된 랴오닝성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주장이 담겨 있다.³⁷⁾

37) 중국 랴오닝성 공공부문 연구자 인터뷰 (2018.10.14)



〈그림 10〉 라오닝 일대일로종합실험구건설 구상도

자료 : 동아일보(2018.9.16)

제4절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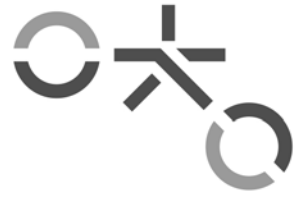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초기 제한된 자원의 집중과 이용 효율 그리고 대외개방에 따른 체제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연해 중심의 거점도시 육성 전략을 채택했다. 이후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내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 같은 권역별 성장거점 도시와, 이 도시를 노드로 삼아 중국 전역을 광역망으로 연결하는 ‘다핵네트워크’ 지역발전 전략이 형성되었다.³⁸⁾

동북진흥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역 발전패러다임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권역별 발전전략 기초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동북진흥전략이 개시되었다. <12·5규획>기간 도시군 위주의 발전전략에 따라 동북3성은 성장거점으로서 성별 도시군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이 같은 도시군과 그 중심도시에 대한 경제역량이 집중되었다. <13·5규획>기간 일대일로와 연계한 서향(西向)대외 교통·물류 루트 개척이 본격화되었다. 각 성의 주요 도시들은 이 같은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북핵 실험 등으로 인해 경색되었던 북중관계 속에서 동북지역과 한반도 간의 접경협력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북한을 통한 출해항구 개척 구상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중협력 재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북중 접경인 단둥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및 동북의 지역발전 전략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다음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8) 중국 지역발전 전략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전유정(2017:13-17) 참고

주요 사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천안문사건	남순강화, 한중수교, WTO가입	글로벌 금융위기, G2국가	일대일로, 경제자유무역지대			
주요사상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삼개대표론	과학발전, 조화사회	심화개혁, 중국의 꿈			
지도자	1978	1986	1992	1996	2002	2006	2012	2016
경제발전계획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8·5계획		9·5계획	10·5계획	11·5계획	12·5계획		
시기구분	계획경제시기	개혁개방초기	성장거점의 확산·분포 시기					
지역발전 전략	균형발전전략		불균형발전전략		중충적불균형 발전전략			
	삼선건설	연해경제특구설치						
	경제개발구설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전략							
	도시군 육성 전략							
						초광역네트워크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군사적 목적의 지역 발전 전략• 낙후 내륙지역(3선)에 집중 투자 전략• 비효율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해지역 발전전략• 지역격차 인정• 연해성장 거점 점차 확대• 효율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발전전략• '동/중/서/동북4대' 광역권 구분, 지역별성장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 전면화• 도시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도시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핵네트워크• 일대일로·창장경제벨트·장진지			
동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경제의 요람• 군수산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 위주 산업 구조• 단위계 사회관리 지속• 내생적 발전동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진흥 착수• 구조조정 확대• 대외개방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도시군 육성• 접경협력 확대• 북중 교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대일로 연계• 서항개방 위주• 대북교류 단절			

〈그림 11〉 중국 및 동북지역 발전 전략 흐름



Ⅲ

동북3성 경제·산업 조사

제1절 동북지역 경제 규모 및 추이

제2절 동북지역 산업구조 및 특화도

제3절 종합

Ⅲ. 동북3성 경제·산업 조사

이 장에서는 동북3성의 경제·산업 특징 파악을 위해 각 성의 지역경제 현황과 산업 특화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동북3성의 경제지표를 ▲지역·소비경제 ▲대외경제로 나누어 전국과 비교하여 그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정리한다. 지역경제 부문의 세부항목으로는 GRDP,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을 대외경제의 세부항목은 교역액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용한다. 제3절에서는 각 성의 산업구조 및 특화도를 분석한다. 동북3성의 2차 산업 고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16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업 고도화 정도를 비교한다. 3차 산업은 각 업종을 생산자·소비자·공공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발달 정도를 측정한다.

제1절 동북지역 경제 규모 및 추이

1. 지역경제 규모 및 추이

1) 지역내총생산(GRDP)

2001-2016년 중국 대비 동북지역 GRDP 규모 및 성장률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동북지역 전체 GRDP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약 5배 증가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GRDP 규모는 2015년 기준 각각 28,669억 위안, 14,063억 위안, 15,084억 위안으로 2001년 대비 각각 5배, 6배, 4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국 GRDP 689,052억 위안으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4%, 2%, 2% 차지한다. 2001년 랴오닝 GRDP 규모는 5,033억 위안으로 이미 동북지역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2007년 랴오닝 GRDP 규모는 10,000억 위안 이상, 2011년에는 20,0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지린, 헤이룽장성 지역과 약 2배 차이가 난다. 이는 동북지역 내 실질적 경제 수준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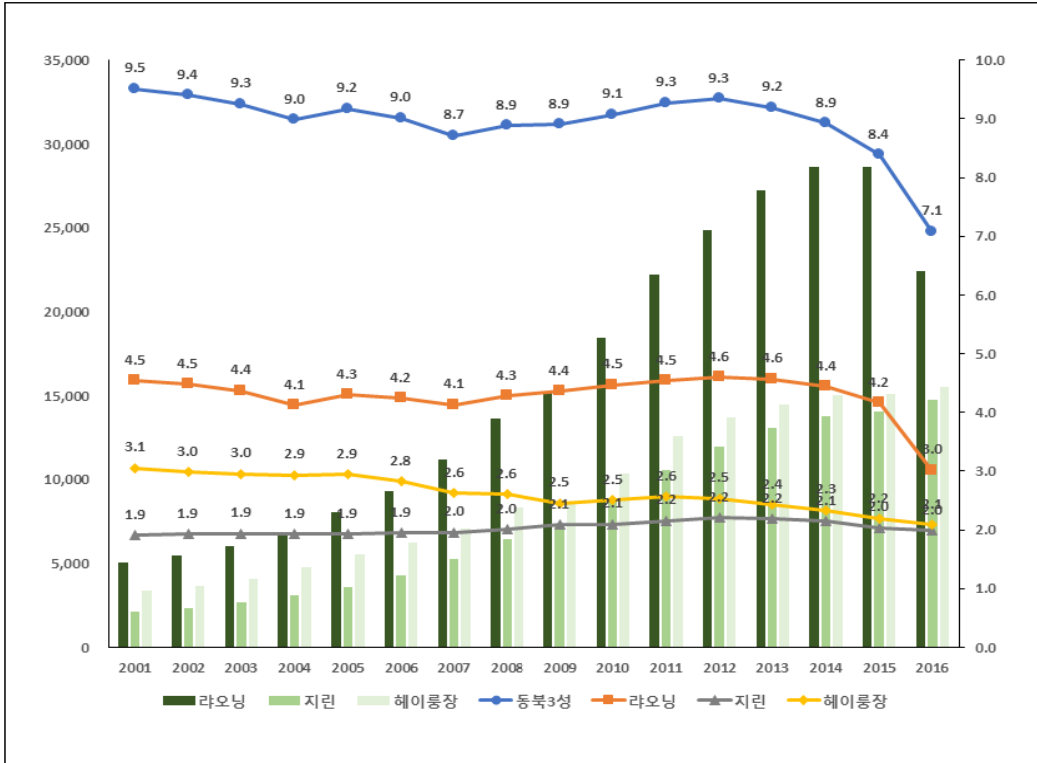
〈표 9〉 중국 동북지역 GRDP 규모 및 성장률

(단위:억 위안/%)

연도	전국		동북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2001	110,863	0.5	10,544	7.9	5,033	7.8	2,120	8.7	3,390	7.6
2002	121,717	9.8	11,444	8.5	5,458	8.4	2,349	10.8	3,637	7.3
2003	137,422	12.9	12,722	11.2	6,003	10	2,662	13.4	4,057	11.6
2004	161,840	17.8	14,545	14.3	6,672	11.2	3,122	17.3	4,751	17.1
2005	187,319	15.7	17,181	18.1	8,047	20.6	3,620	16	5,514	16.1
2006	219,439	17.1	19,791	15.2	9,305	15.6	4,275	18.1	6,212	12.7
2007	270,232	23.1	23,553	19	11,164	20	5,285	23.6	7,104	14.4
2008	319,516	18.2	28,409	20.6	13,669	22.4	6,426	21.6	8,314	17
2009	349,081	9.3	31,078	9.4	15,213	11.3	7,279	13.3	8,587	3.3
2010	413,030	18.3	37,493	20.6	18,457	21.3	8,668	19.1	10,369	20.7
2011	489,301	18.5	45,378	21	22,227	20.4	10,569	21.9	12,582	21.3
2012	540,367	10.4	50,477	11.2	24,846	11.8	11,939	13	13,692	8.8
2013	595,244	10.2	54,715	8.4	27,213	9.5	13,046	9.3	14,455	5.5
2014	643,974	8.2	57,469	5	28,627	5.2	13,803	5.8	15,039	4
2015	689,052	7	57,816	0.6	28,669	0.1	14,063	1.9	15,084	0.3
2016	744,127	8	52,727	-8.8	22,431	-21.8	14,773	5	15,523	2.91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전국 대비 동북지역 GRDP 비중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9%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대비 랴오닝 비중은 2015년까지 줄곧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헤이룽장, 지린 지역이 각각 3%대, 2%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 동북지역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하여 랴오닝 GRDP 규모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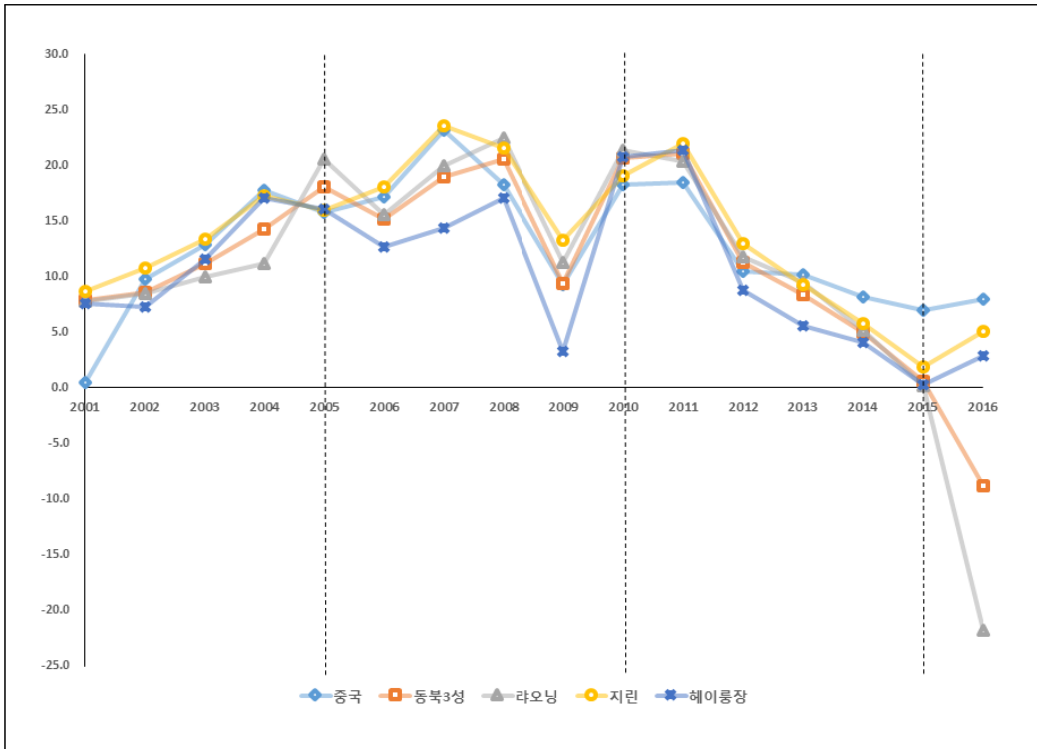


〈그림 12〉 동북지역 GRDP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동북지역 GR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9.3%까지 하락하였다. 동북지역 성장률 추이는 중국 전체 성장률 변동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동북지역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하여 랴오닝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10·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1.3%에 달했다. 동북지역은 각각 11.6%, 13.2%, 11.9%로 전국 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7.2%이며 동북지역은 각각 18.1%, 19.1%, 13.6%로 헤이룽장 지역을 제외한 랴오닝, 지린 지역이 중국 평균 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2·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0.8%이며 동북지역은 각각 9.4%, 10.4%, 8.0%이다. 〈12·5규획〉기간 지린성을 제외한 동북지역 평균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에 비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중국 동북지역 GRDP 성장률 추이(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고정자산투자

2001-2016년 중국 대비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규모 및 성장률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 각각 17,918억 위안, 12,705억 위안, 10,183억 위안으로 2001년 대비 12배, 18배, 10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국 고정자산투자 562,000억 위안으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3%, 2%, 2% 차지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10·5규획〉기간 랴오닝(12,317억 위안), 지린(5,431억 위안), 헤이룽장(6,416억 위안)에서 〈11·5규획〉기간 랴오닝(51,480억 위안), 지린(29,297억 위안), 헤이룽장(20,587억 위안)으로 각각 약 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표 10〉 중국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규모 및 성장률

(단위: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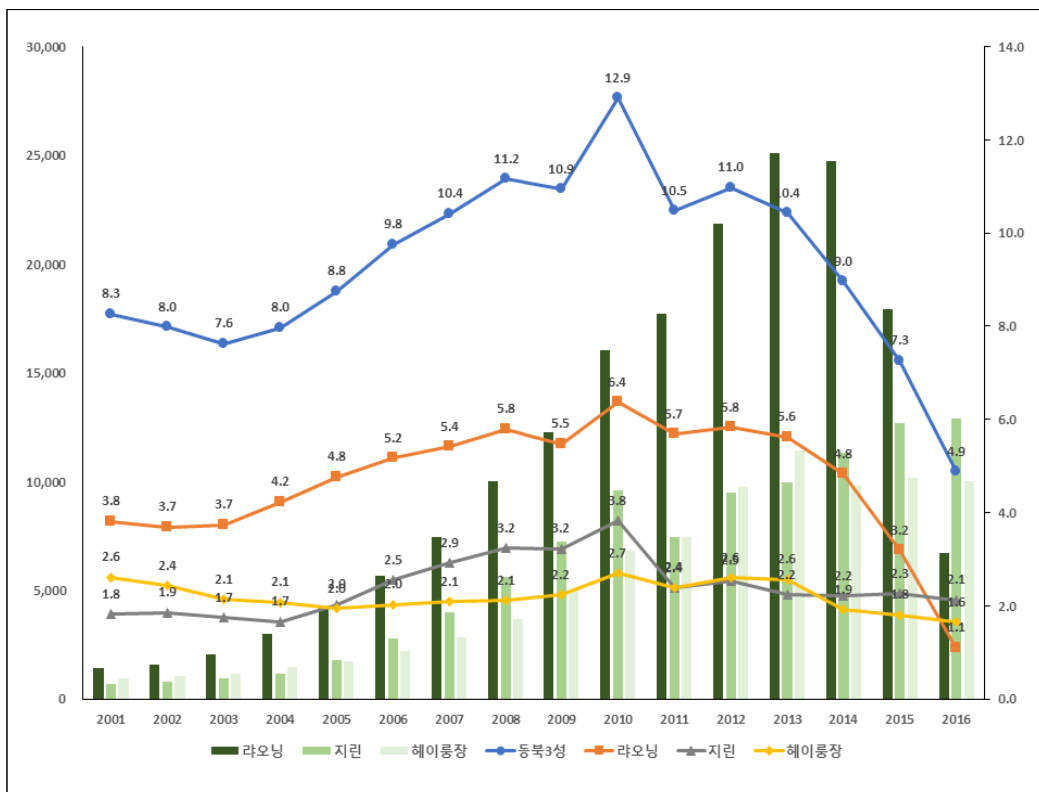
연도	전국		동북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2001	37,213	13.1	3,074	13.3	1,421	12.2	680	16	973	13.3
2002	43,500	16.9	3,469	12.9	1,606	13	808	18.9	1,056	8.5
2003	55,567	27.7	4,236	22.1	2,076	29.3	969	19.9	1,191	12.8
2004	70,477	26.8	5,616	32.6	2,980	43.5	1,172	20.9	1,465	23
2005	88,774	26	7,768	38.3	4,234	42.1	1,802	53.8	1,732	18.2
2006	109,998	23.9	10,730	38.1	5,690	34.4	2,804	55.6	2,236	29.1
2007	137,324	24.8	14,303	33.3	7,435	30.7	4,003	42.8	2,864	28.1
2008	172,828	25.9	19,283	34.8	10,019	34.8	5,608	40.1	3,656	27.6
2009	224,599	30	24,581	27.5	12,293	22.7	7,260	29.4	5,029	37.5
2010	251,684	12.1	32,467	32.1	16,043	30.5	9,622	32.5	6,802	35.3
2011	311,485	23.8	32,643	0.5	17,726	10.5	7,442	-22.7	7,475	9.9
2012	374,695	20.3	41,128	26	21,836	23.2	9,512	27.8	9,780	30.8
2013	446,294	19.1	46,540	13.2	25,108	15	9,979	4.9	11,453	17.1
2014	512,021	14.7	45,899	-1.4	24,731	-1.5	11,340	13.6	9,829	-14.2
2015	562,000	9.8	40,806	-11.1	17,918	-27.5	12,705	12	10,183	3.6
2016	606,465	7.9	29,566	-27.5	6,692	-62.7	12,880	-1.4	9,994	1.9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전국 대비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점차 하회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2.9%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음 〈그림 14〉와 같이 2001-2015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전국 대비 비중 각각 5%, 3%, 2%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 동북지역 가운데 지린성만 유일하게 고정자산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2009년)에 27.5%로 하락했다. 동북지역 〈10·5규획〉, 〈11·5규획〉기간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12·5규획〉기간 성장률이 5.4%로 크게 하락했다. 〈10·5규획〉

기간 중국 전체 평균 성장률은 22.1% 기록했으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각각 28.0%, 25.9%, 15.2%로 랴오닝, 지린 지역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1·5 계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23.3%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30.6%, 40.1%, 31.5%로 동북지역 모두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다. <12·5계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7.5%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3.9%, 7.1%, 9.5%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2·5계획>기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랴오닝 지역이 2014년 이후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4〉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그림 15〉 중국 동북지역 고정자산투자 성장률 추이(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3) 사회소비품판매

2001-2016년 중국 대비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및 성장률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동북지역 전체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약 6.5배 증가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사회소비품판매 규모는 2015년 기준 각각 12,774억 위안, 6,646억 위안, 7,640억 위안으로 2001년 대비 약 6배, 7배, 6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국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은 300,931억 위안으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4%, 2%, 3% 차지한다. 2001년에 랴오닝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은 이미 2,035억 위안에 달했으며 지린(909억 위안), 헤이룽장(1,199)억 위안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랴오닝성 지역이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역과 소비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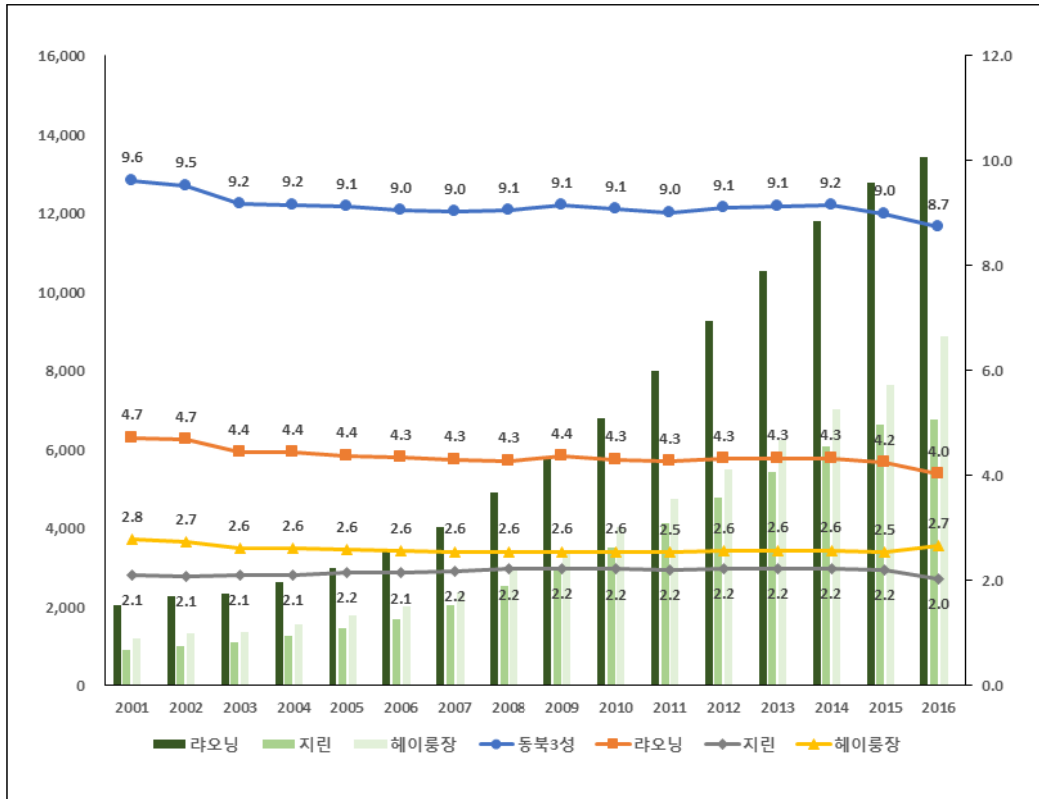
〈표 11〉 중국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및 성장률

(단위:억 위안/%)

연도	전국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2001	43,055	26.1	4,143	10.4	2,035	10.2	909	12.2	1,199	9.6
2002	48,136	11.8	4,587	10.7	2,258	11.0	1,008	10.9	1,320	10.1
2003	52,516	9.1	4,818	5.0	2,331	3.2	1,110	10.1	1,376	4.3
2004	59,501	13.3	5,453	13.2	2,643	13.4	1,253	12.8	1,557	13.1
2005	68,353	14.9	6,243	14.5	2,999	13.5	1,470	17.4	1,774	13.9
2006	79,145	15.8	7,161	14.7	3,435	14.5	1,698	15.5	2,029	14.4
2007	93,572	18.2	8,455	18.1	4,030	17.3	2,038	20.1	2,386	17.6
2008	114,830	22.7	10,395	23.0	4,918	22.0	2,549	25.1	2,928	22.7
2009	133,048	15.9	12,172	17.1	5,813	18.2	2,957	16.0	3,402	16.2
2010	158,008	18.8	14,354	17.9	6,810	17.2	3,505	18.5	4,039	18.7
2011	187,206	18.5	16,874	17.6	8,004	17.5	4,120	17.5	4,750	17.6
2012	214,433	14.5	19,521	15.7	9,257	15.7	4,773	15.9	5,491	15.6
2013	242,843	13.2	22,202	13.7	10,524	13.7	5,426	13.7	6,251	13.8
2014	271,896	12.0	24,889	12.1	11,793	12.1	6,081	12.1	7,015	12.2
2015	300,931	10.7	27,060	8.7	12,774	8.3	6,646	9.3	7,640	8.9
2016	332,316	10.4	29,041	7.3	13,414	5.0	6,763	1.8	8,864	16.0

자료: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전국 대비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비중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대 비중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대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4%, 2%, 2%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동북지역 비중 가운데 헤이룽장 지역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6〉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자료: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3년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008년에는 23%로 크게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북지역 성장률 추이는 전국 성장률 추이와 동조화 되고 있다. <10·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5%를 기록했으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10.2%, 12.7%, 10.2%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1·5규획>기간에는 전국 평균 성장률이 18.3% 기록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17.8%, 19.0%, 17.9%로 지린 지역이 전국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12·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13.8%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13.5%, 13.7%, 13.6%로 동북지역은 전국 평균 성장률 추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6년 헤이룽장 지역을 제외한 랴오닝, 지린 지역은 성장세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림 17〉 중국 동북지역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성장률 추이(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대외경제 규모 및 추이

1) 수출입

2001-2016년 중국 대비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 및 성장률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동북지역 전체 수출입 규모를 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약 5배 증가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수출입 규모는 2015년 기준 각각 961억 달러, 189억 달러, 209억 달러로 2001년 대비 약 5배, 6배, 4.5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국 수출입 규모 39,280억 달러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각각 2.4%, 0.5%, 0.5% 차지한다. 2001년 랴오닝성은 <10·5규획>기간 이미 약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100억 달러 미만을 넘지 못했다. 랴오닝성은 연해도시 대외개방 및 다렌 물류 중심지로 내륙에 위치한 지린, 헤이룽장 지역과 수출입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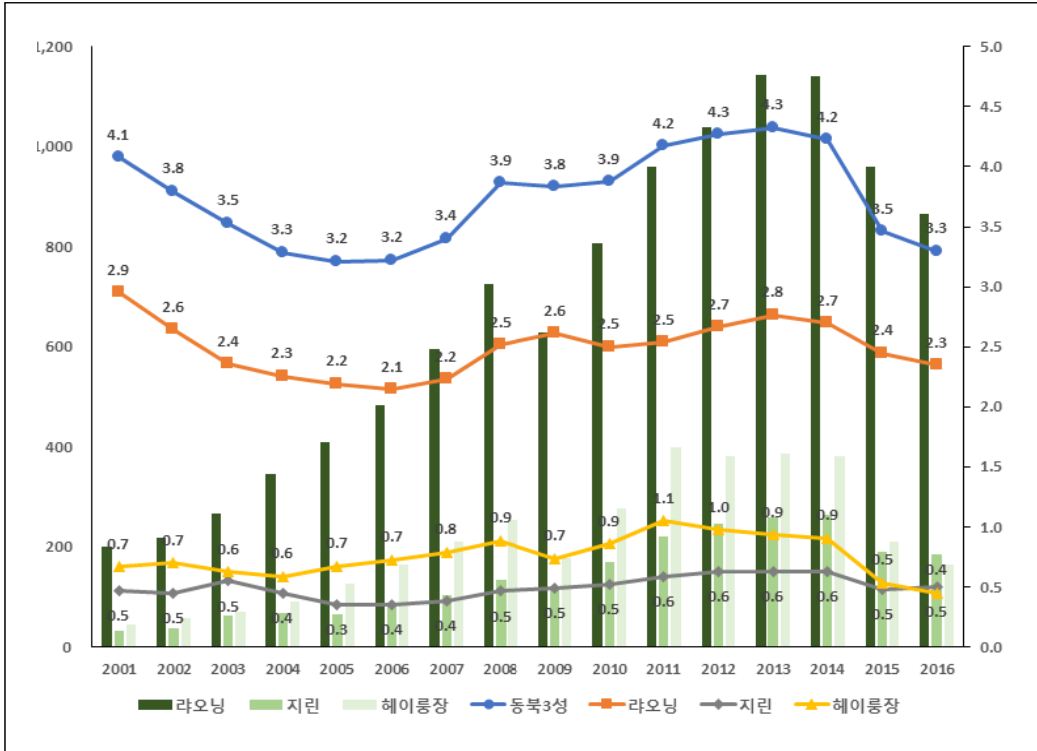
〈표 12〉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 및 성장률

(단위:억 달러/%)

연도	전국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2001	6,749	7.4	275	7.8	199	4.7	31	22.7	45	13.3
2002	8,221	21.8	312	13.4	217	9.2	37	18.3	58	28.5
2003	11,277	37.2	398	27.5	266	22.2	62	66.5	71	22.5
2004	15,286	35.5	502	26.2	344	29.7	68	10.1	90	27.4
2005	18,707	22.4	601	19.6	410	19.1	65	-3.9	125	39.5
2006	22,556	20.6	727	21	484	18	79	21.2	164	30.8
2007	26,708	18.4	908	24.9	595	22.9	103	30.1	210	28.3
2008	28,787	7.8	1,112	22.5	724	21.8	133	29.5	254	20.9
2009	24,104	-16.3	924	-16.9	629	-13.1	117	-11.9	177	-30.3
2010	32,276	33.9	1,251	35.4	807	28.2	168	43.4	276	55.8
2011	37,824	17.2	1,578	26.1	960	19	220	30.9	398	44.1
2012	39,066	3.3	1,668	5.7	1,040	8.4	246	11.4	382	-4
2013	41,307	5.7	1,787	7.1	1,143	9.9	259	5.2	385	0.9
2014	42,279	2.4	1,786	0	1,140	-0.3	264	2	382	-0.8
2015	39,280	-7.1	1,359	-23.9	961	-15.7	189	-28.2	209	-45.3
2016	36,855	-6.2	1,214	-10.7	865	-10	184	-2.8	165	-21.1

자료: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전국 대비 동북지역 수출입 비중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3~4% 비중을 차지하다 2014년 이후 하회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대비 랴오닝 지역은 2%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린, 헤이룽장 지역은 1% 미만을 미치지 못했다.



〈그림 18〉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 및 전국대비 비중 추이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동북지역 수출입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 2009년 성장률이 크게 줄어 -16.9%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북지역 수출입 성장률은 중국 성장률과 동조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동북지역이 전국 평균 성장률 보다 큰 파동을 보이고 있다.

〈10·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24.9% 차지했으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각각 17.0%, 22.7%, 26.3%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1·5규획〉기간에는 전국 평균 성장률 12.9%를 차지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15.6%, 22.5%, 21.1%로 지린, 헤이룽장 지역이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2·5규획〉기간에는 전국 평균 성장률은 4.3%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4.3%, 4.3%,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랴오닝, 지린 지역은 전국 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헤이룽장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19〉 중국 동북지역 수출입 성장률(2001-2016)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FDI

2001-2016년 중국 대비 동북지역 FDI 규모 및 성장률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동북지역 전체 FDI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동북지역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하여 2015년 동북지역 FDI 규모는 1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배 이상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FDI 규모는 2015년 기준 각각 51.9억 달러, 21.3억 달러, 54.5억 달러로 2001년 대비 약 1배, 7배, 6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국 FDI 규모 1,262억 달러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4%, 2%, 4% 비중을 차지한다. 랴오닝성 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 274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북지역 FDI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동북지역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해 2014년 이후 랴오닝 FDI 추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지역 FDI 규모와 마찬가지로 성장률 역시 큰 파동을 보이고 있다. <10·5규획>기간에 전국 평균 성장률은 8.4% 차지했으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각각 10.7%, 16.6%, 11.9% 성장률을 기록했다. <10·5규획>기간 동북지역 FDI 성장률은 중국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1·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 12.3%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34.4%, 42.7%, 14.1%로 중국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동기간 랴오닝성, 지린성이 각각 2배, 3배 가량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2·5규획>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은 3.7%이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각각 -10.2%, 10.7%, 15.6%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13〉 중국 동북지역 FDI 규모 및 성장률

(단위:억 달러/%)

연도	전국		동북3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2001	468.8	15.1	43.1	15.9	31.1	22.0	3.4	0.2	8.6	3.6
2002	527.4	12.5	51.8	20.1	39.2	25.8	3.2	-6.1	9.5	9.8
2003	535.1	1.4	69.3	33.8	55.8	42.6	3.2	0.3	10.3	8.9
2004	606.3	13.3	71.0	2.4	54.1	-3.1	4.5	42.3	12.4	20.1
2005	603.3	-0.5	57.0	-19.7	35.9	-33.6	6.6	46.1	14.5	17.0
2006	630.2	4.5	84.5	48.4	59.9	66.7	7.6	15.0	17.1	18.0
2007	747.7	18.6	120.7	42.7	91.0	52.0	8.8	16.3	20.9	22.1
2008	924.0	23.6	155.6	28.9	120.2	32.1	9.9	12.2	25.5	22.2
2009	900.3	-2.6	189.5	21.8	154.4	28.5	11.4	14.7	23.6	-7.3
2010	1,057.4	17.4	246.9	30.3	207.5	34.4	12.8	12.3	26.6	12.7
2011	1,160.1	9.7	290.0	17.4	242.7	17.0	14.8	15.7	32.5	22.0
2012	1,117.2	-3.7	323.4	11.5	267.9	10.4	16.5	11.3	39.0	20.1
2013	1,175.9	5.3	354.7	9.7	290.4	8.4	18.2	10.4	46.1	18.3
2014	1,195.6	1.7	344.8	-2.8	274.2	-5.6	19.7	8.1	50.9	10.3
2015	1,262.7	5.6	127.6	-63.0	51.9	-81.1	21.3	8.2	54.5	7.1
2016	1,260.0	-0.2	110.9	-13.1	30.0	-42.2	22.7	6.9	58.2	6.8

자료: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제2절 동북지역 산업구조 및 특화도

1. 동북지역 1·2·3차 산업구조

1) 랴오닝성 산업구조 비중 추이 및 특징

다음 <표 14>와 같이 2001-2016년 랴오닝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가 각각 4배, 5배, 6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랴오닝성 1·2·3차 규모는 각각 2,384억 위안, 13,198억 위안, 13,321억 위안을 기록했다. 산업구조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은 8.2 : 45.7 : 46.1로 2차,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기간 10%대 비중을 차지하다가 <11·5규획>기간 9%대로 하회했으며 <12·5규획>기간에는 8%대까지 감소했다. 2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기간 50%대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고 <11·5규획>기간에 5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2014년 2차 산업이 50.5% 비중을 차지하다 2015년 4.8%p 감소했다. 3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기간에 40%대를 차지하다 <11·5규획>기간에 점차 30%대 비중으로 하회하고 있다. <12·5규획>기간을 들어선 이후 3차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50% 이상을 돌파했다.

2) 지린성 산업구조 비중 추이 및 특징

다음 <표 15>와 같이 같이 2001-2016년 지린성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가 각각 4배, 8배, 6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랴오닝성 1·2·3차 규모는 각각 1,596억 위안, 7,006억 위안, 5,461억 위안을 기록했다. 산업구조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지린성 지역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은 11.4 : 49.8 : 38.8로 2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린성 1차 산업 비중의 경우 200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 <11·5규획>기간에 40%대를 유지하다가 <12·5규획>기간에 50%대 이상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전년 대비 3%p 감소하면서 40%대 비중으로 하회했다. 3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기간 40%대를 유지하다가 <11·5규획>기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30%로 하회했다. 한편 <12·5규획>기간에도 꾸준히 30%대의 비중을 보이다가 2016년에 40% 이상을 돌파했다. 이처럼 지린성은 동북지역 가운데 2차 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2차 산업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3) 헤이룽장성 산업구조 비중 추이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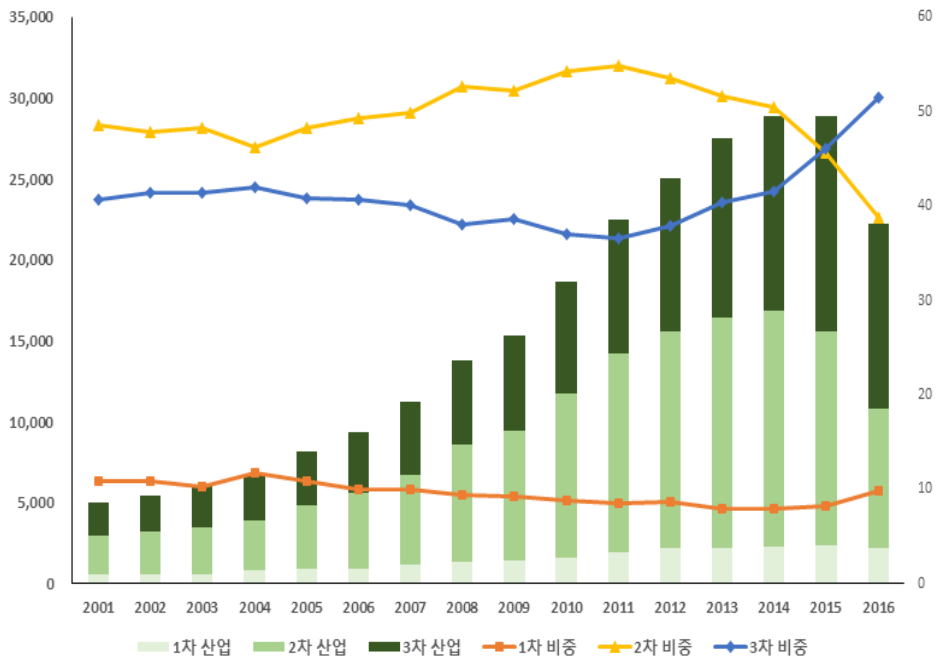
다음 <표 16>과 같이 2001-2016년 헤이룽장 산업 규모를 보면 2001년 대비 2015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가 각각 6배, 3배, 6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랴오닝성 1·2·3차 규모는 각각 2,634억 위안, 4,848억 위안, 7,694억 위안을 기록했다.

산업구조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헤이룽장 지역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는 17.4 : 31.9 : 50.7로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다. 헤이룽장 지역은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나, 앞서 살펴본 랴오닝, 지린 지역과 달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10·5규획>, <11·5규획> 기간 50% 안팎의 비중을 보이다 <12·5규획>기간 40%대로 하회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5p 감소했다. 3차 산업 가운데 2008년, 2015년을 제외한 2001-2016년 기간에는 점차 상회하고 있다. 특히 <12·5규획>기간에 4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 50% 이상을 돌파했다. 이처럼 헤이룽장성은 동북지역 가운데 1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독특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2,3차 산업 간의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이뤄졌다.

〈표 14〉 랴오닝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단위:억 위안/%)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1	544	10.8	2,441	48.5	2,048	40.7
2002	590	10.8	2,610	47.8	2,258	41.4
2003	616	10.3	2,899	48.3	2,488	41.4
2004	798	11.8	3,109	46.2	2,828	42
2005	882	10.9	3,926	48.3	3,315	40.8
2006	939	10	4,629	49.3	3,821	40.7
2007	1,133	10	5,621	49.9	4,514	40.1
2008	1,302	9.4	7,246	52.6	5,240	38
2009	1,415	9.2	8,013	52.2	5,930	38.6
2010	1,631	8.8	10,108	54.2	6,894	37
2011	1,916	8.5	12,327	54.9	8,211	36.6
2012	2,156	8.6	13,412	53.5	9,519	37.9
2013	2,216	8	14,179	51.6	11,105	40.4
2014	2,286	7.9	14,597	50.5	12,028	41.6
2015	2,384	8.2	13,198	45.7	13,321	46.1
2016	2,173	9.8	8,607	38.7	11,467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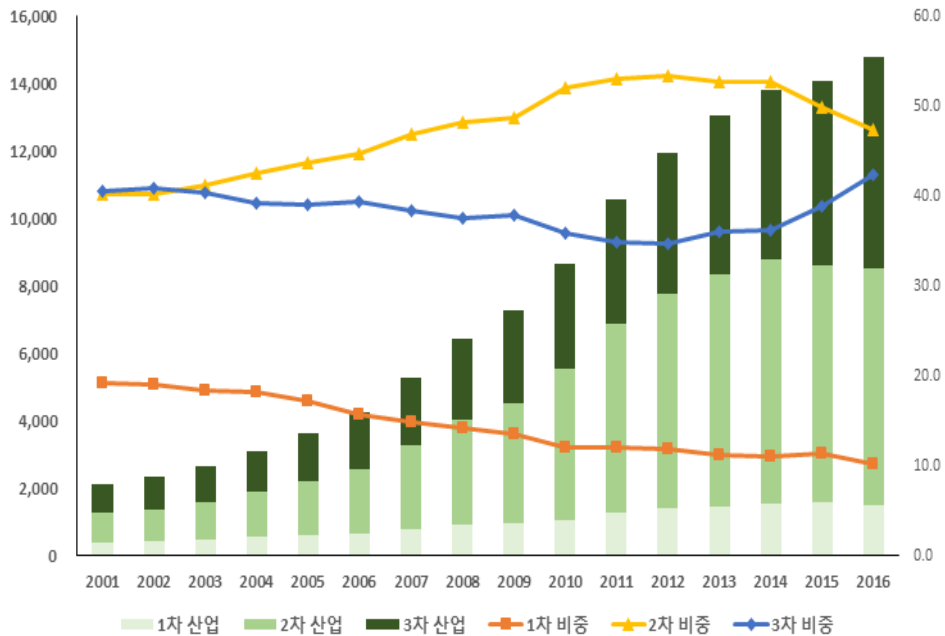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자료 참고하여 작성

〈표 15〉 지린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단위:억 위안/%)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1	409	19.3	853	40.2	859	40.5
2002	446	19.0	943	40.2	959	40.8
2003	488	18.3	1,098	41.3	1,075	40.4
2004	569	18.2	1,330	42.6	1,224	39.2
2005	626	17.3	1,581	43.7	1,414	39.1
2006	673	15.7	1,915	44.8	1,687	39.5
2007	784	14.8	2,475	46.8	2,025	38.3
2008	917	14.3	3,097	48.2	2,412	37.5
2009	981	13.5	3,542	48.7	2,756	37.9
2010	1,050	12.1	4,506	52.0	3,111	35.9
2011	1,277	12.1	5,611	53.1	3,680	34.8
2012	1,412	11.8	6,377	53.4	4,150	34.8
2013	1,467	11.2	6,872	52.7	4,708	36.1
2014	1,524	11.0	7,287	52.8	4,993	36.2
2015	1,596	11.4	7,006	49.8	5,461	38.8
2016	1,499	10.1	7,005	47.4	6,273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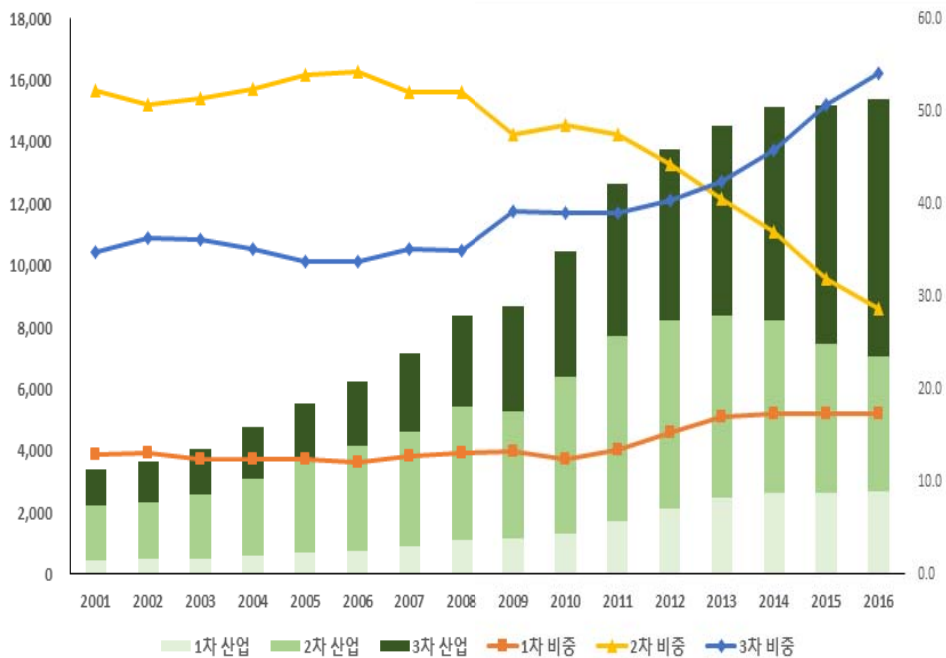


자료 : 『吉林统计年鉴(2017)』 자료 참고하여 작성

〈표 16〉 헤이룽장성 산업 규모 및 비중 추이(2001-2016)

(단위:억 위안/%)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1	436	12.8	1,773	52.3	1,181	34.8
2002	474	13.0	1,844	50.7	1,319	36.3
2003	505	12.4	2,085	51.4	1,468	36.2
2004	593	12.5	2,487	52.4	1,670	35.2
2005	685	12.4	2,991	54.0	1,868	33.7
2006	750	12.0	3,388	54.2	2,109	33.8
2007	915	12.8	3,722	52.1	2,507	35.1
2008	1,089	13.0	4,354	52.0	2,924	34.9
2009	1,154	13.3	4,104	47.4	3,395	39.2
2010	1,303	12.5	5,073	48.6	4,066	38.9
2011	1,702	13.4	6,014	47.5	4,946	39.1
2012	2,114	15.3	6,092	44.2	5,573	40.4
2013	2,474	17.0	5,898	40.5	6,174	42.4
2014	2,611	17.3	5,598	37.0	6,922	45.7
2015	2,634	17.4	4,848	31.9	7,694	50.7
2016	2,671	17.4	4,401	28.6	8,315	54.0



자료 : 『黑龙江统计年鉴(2017)』 자료 참고하여 작성

2. 동북지역 산업 특화도

중국 성·도시의 산업구조를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성급·지급 지역의 업종별 종사자를 활용한 접근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 특징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우선 동북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개 성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업종별 종사자수 수치를 활용하여 입지 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산출하고 각 지역의 산업특화도를 살펴본다.

입지상 분석은 아래 산식과 같이 비교대상지역의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특정 지역 산업의 전국의 동일한 산업에서 차지한 비중의 상대적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한 지역의 특정산업의 특화 또는 전문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입지상 계수가 1 이상인 산업을 전국대비 특화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LQ_i = \frac{j\text{도시의}i\text{산업의고용인구}/j\text{도시의총고용인구}}{\text{전국}i\text{산업의 고용인구}/\text{전국총고용인구}}$$

1) 동북지역 2차 산업 특화도

〈표 17〉과 같이 2016년 기준 동북지역 3개 성의 2차 산업 41개 업종 종사자 수치를 활용하여 성별 2차 산업 산업특화도를 산출하였다. 조사에서는 2차 산업을 ▲채광업 ▲전력·열에너지·가스·물 생산 및 공급업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은 산업별 평균 R&D 집중도(intensity)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및 저위기술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2016년 기준 동북지역 2차 산업 특화도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 17〉 동북지역 2차산업 LQ(2016년)

	업종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채광업		1.93	1.64	4.05
	석탄채굴 및 채광업	1.49	1.13	3.84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81	3.44	12.9
	철금속 채광업	2.19	1.90	0.47
	비철금속 채광업	1.62	2.20	0.45
	비금속 채광업	1.19	0.71	0.71
	채광보조활동	7.14	4.76	2.81
	기타 채광업	2.41	1.91	-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 및 공급업		1.83	2.02	4.11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	1.68	2.13	4.73
	가스 생산 및 공급업	2.21	1.55	1.78
	물 생산 및 공급업	2.55	1.58	1.58
제조업		0.89	0.91	0.64
	농부식품가공업	1.43	2.02	2.66
	식품제조업	0.69	0.98	1.32
	주류, 음료 및 정제차 제조업	0.65	1.95	1.46
	담배제품업	0.39	1.29	2.11
	방직업	0.21	0.49	0.52
	방직의류, 복식업	0.61	0.21	0.06
	가죽, 모피, 오리털 및 기타제품과 신발제조업	0.08	0.04	0.07
	목재가공및목재제품업	0.50	2.84	1.58
	가구제조업	0.61	0.52	0.85
	제지, 종이제품업	0.41	0.59	0.43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0.27	0.42	0.36
	문화교육, 공예미술, 체육, 오락용품 제조업	0.11	0.12	0.25
	석유가공, 코크스, 핵연료가공업	4.00	0.62	3.97
	화학원료, 화학제품제조업	0.48	1.07	0.05
	화학섬유제조업	0.74	1.07	0.58
	고무, 플라스틱 제품업	1.06	0.46	0.41
	비금속광물제품업	0.92	1.06	0.59
	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2.89	0.66	0.42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0.90	0.37	0.26
	금속제품업	0.94	0.43	0.25
	금속제품, 기계 및 설비 수리업	5.00	0.54	0.43
	통용설비제조업	1.63	0.41	0.73
	전용설비제조업	1.05	0.64	0.85
	자동차제조업	1.17	3.75	0.23
	철로, 선박, 항공 및 기타 운송설비 제조업	2.16	0.86	0.71
	전자기계 및 전자제품 제조업	0.56	0.22	0.30
첨단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28	0.07	0.03
	계측기기 제조업	0.88	0.22	0.40
	의약제조업	0.70	3.86	1.55
기타	기타 제조업	0.42	0.29	2.21
	폐기물 종합 이용업	0.77	0.98	0.40

자료 : 中国工业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 랴오닝성 2차 산업 특화도

랴오닝성 2차 산업 가운데 채광업 LQ 계수는 1.93을 기록, 관련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랴오닝성에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뿐만 아니라 철광석과 비철금속 관련 광물 역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³⁹⁾ 이에 따라 관련 채광업이 발전해 있으며 특히 채광보조 활동 관련 업종 LQ 계수가 7.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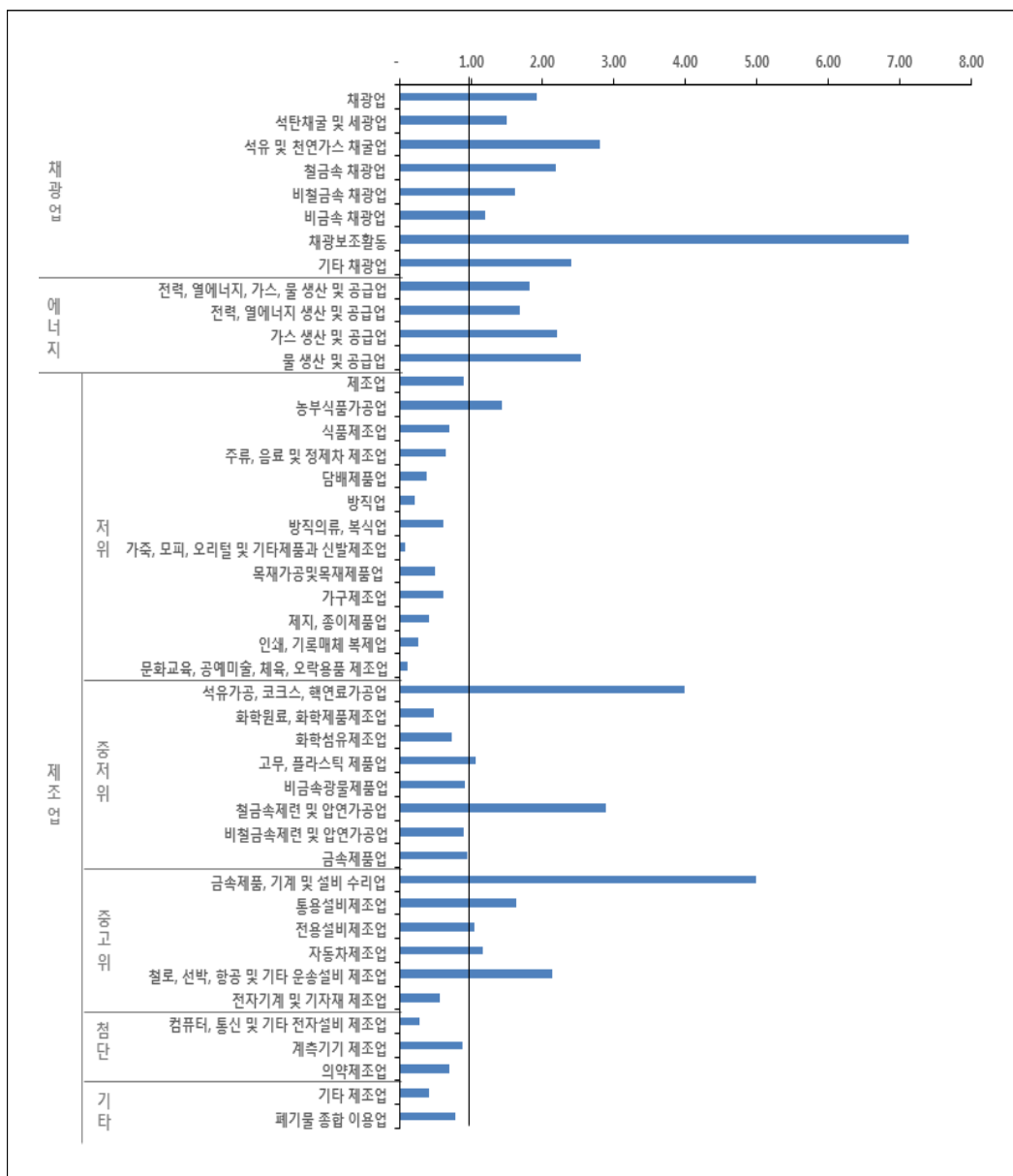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관련 업종 LQ 계수 역시 1.83으로 비교적 풍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설비와 업종이 랴오닝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 LQ 계수는 1에 미치지 못하는 0.8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술 수준별 제조업 특화도를 살펴보면, 중고위와 중저위 제조업을 중심으로 랴오닝성의 제조업 특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위기술 업종 가운데 농부식품가공업(1.43)을 제외하고는 모두 LQ 계수가 0.7 미만을 기록하였다. 랴오닝성은 시민들의 생활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경공업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랴오닝성의 중저위 기술 제조업과 중고위 기술 제조업 LQ 평균은 각각 1.49와 1.93을 기록하여 관련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 중저위 기술 제조업 가운데 석유가공, 코크스, 핵연료가공업이 입지계수 4를 기록하였으며 관련 화공 업종 역시 특화되어 있다. 한편 랴오닝성은 중공업 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제철 업종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입지계수가 2.89를 기록하였다. 랴오닝성은 금속제품, 기계 및 설비 수리업 LQ 계수가 5를 기록하는 등 중고위 기술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랴오닝성의 2차 산업은 특화되어 있는 채광업과 에너지공급업에 기반을 두고 제철업종과 금속제조 산업이 발달해 있는 반면 경공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랴오닝성 첨단기술 제조업 가운데 특화 산업은 없으며 계측기기제조업 LQ가 0.88로 가장 높은 계수 값을 보였다. IT 산업의 경우 LQ가 0.28을 기록, 관련 업종 발전수준이 낮다.

39) 랴오닝성은 광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각종 광산물 110종이 발견됨. 비교적 우세한 광산은 석탄층 메탄, 천연가스, 금, 은, 아금, 야금용 백운암, 야금용 석영암, 규회석, 내화점토 등이 있음.



〈그림 20〉 라오닝성 2차 산업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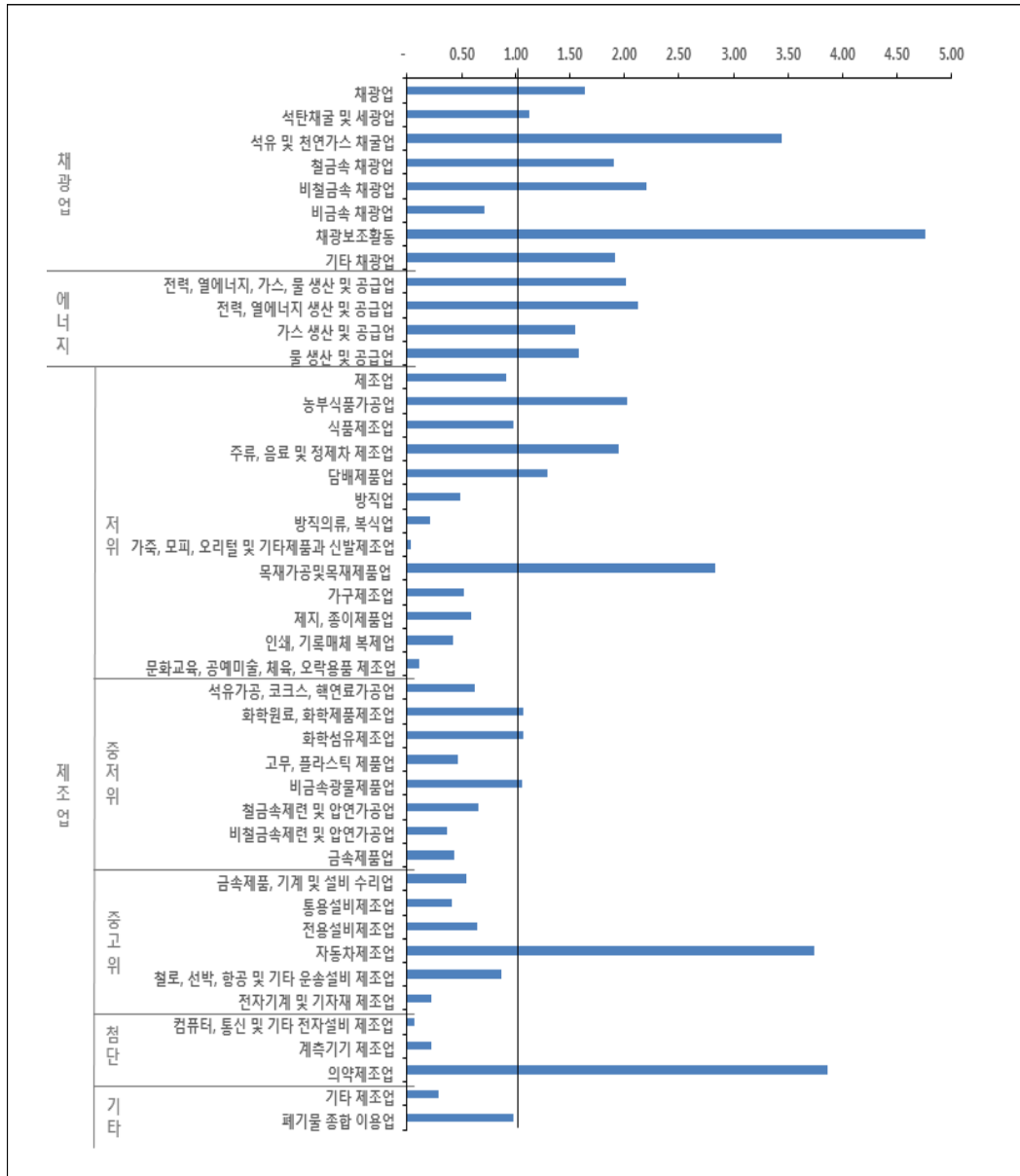
자료 : 中国工业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지린성 2차 산업 특화도

랴오닝성과 마찬가지로 지린성 역시 2차 산업 가운데 채광업 LQ 계수는 1.64를 기록했다. 지린성에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뿐만 아니라 철광석과 비철금속 관련 광물 역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지린성은 랴오닝성에 비해 비철금속 채광업이 발전, 관련 업종 입지계수가 2.20을 기록했다.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관련 업종 LQ 계수 역시 2.02를 기록했다. 제조업 LQ 계수는 비록 1에 미치지 못하는 0.91을 기록하였지만 동북3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저위기술 업종 특화도가 낮았던 랴오닝성과 달리 지린성의 경우 농부식품가공업(2.02), 식품제조업(0.98), 주류,음료 및 정제차 제조업(1.95), 담배제품업(1.29) 등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식품 제도가공 업종이 발전해 있다. 한편 중저위 제조업 가운데 화공업종 및 비금속 광물제조업 LQ 계수가 1이상을 기록하였지만 제철 및 금속 관련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화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린성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제조업(3.75)과 의약제조업(3.86) 업종에 힘 입어 중고위기술산업과 첨단기술산업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린성의 첨단기술산업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중국의 첫 자동차를 제조한 중국디이자동차(中国第一汽车集团)가 입점해있다. 이 기업은 판매량·생산량 기준이 중국내 3위의 국유 자동차기업으로 자동차 산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지린성은 1차 산업과 연관된 식품가공업과 비철금속 관련 채광 및 가공제조업이 발달해 있지만 랴오닝성에 비해 중저-고위 기술 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40) 중국디이자동차(中国第一汽车集团)에 대한 내용은 코트라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2018) 내용 참고



〈그림 21〉 지린성 2차 산업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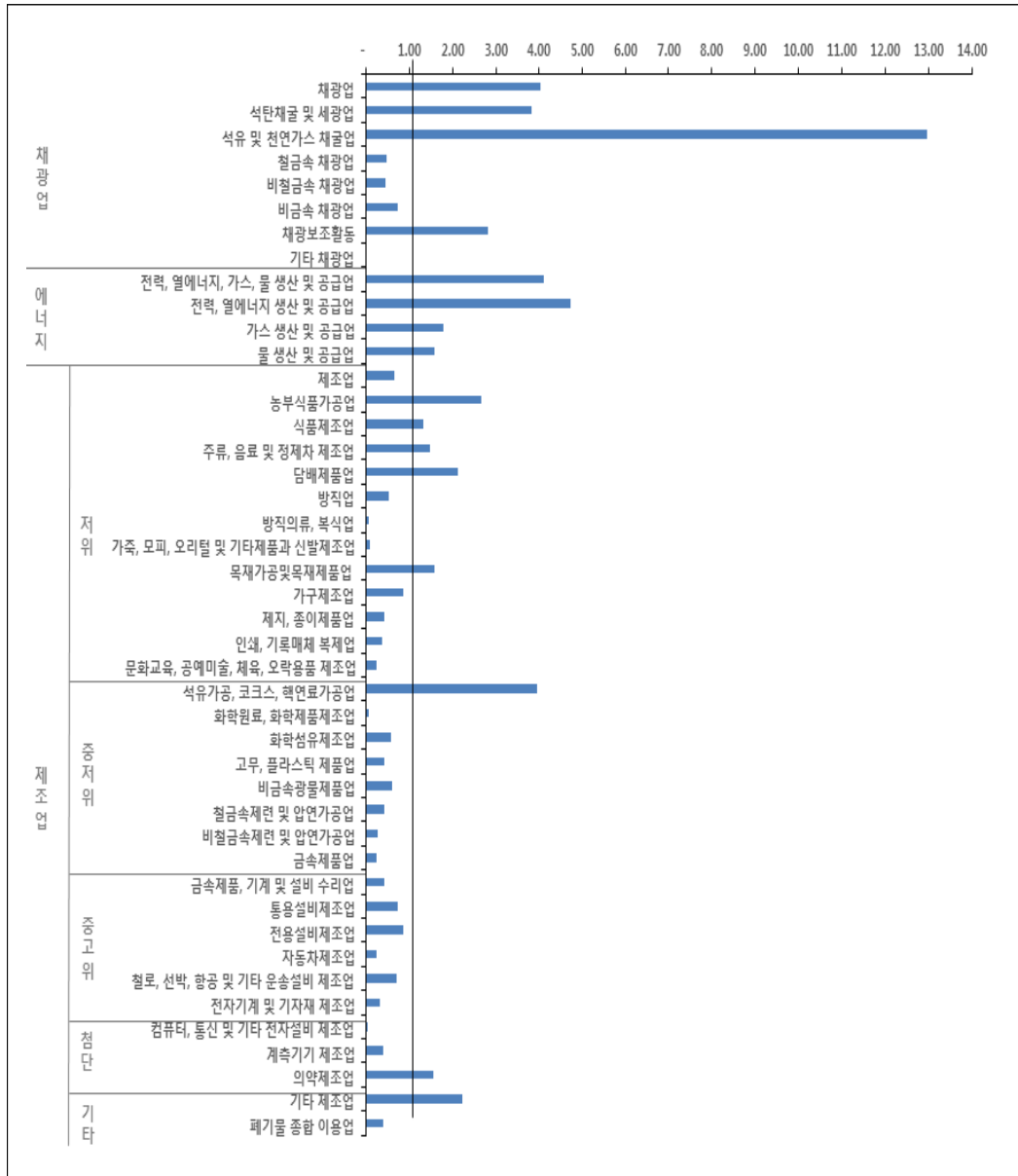
자료 : 中国工业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3) 헤이룽장성 2차 산업 특화도

중국 최대 유전이 매장되어 있는 헤이룽장성은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12.9) 및 석탄 채광(3.84)등 관련 업종이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⁴¹⁾ 또한 전력 생산 업종 역시 4.11로 발달해 있다. 반면 헤이룽장성 제조업은 랴오닝성 및 지린성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지린성과 마찬가지로 농부식품가공업(2.66), 식품제조업(1.32), 주류,음료 및 정제차 제조업(1.46), 담배제품업(2.11) 등 농업 관련 식품 가공 경공업이 발전해 있다. 헤이룽장 <13·5규획>에서는 농업 관련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헤이룽장 지역을 국가현대농업생산기지로 육성하고 2020년까지 1차 산업 연평균 증가율을 5%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헤이룽장은 농업현대화, 농업서비스업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석유 채굴과 관련된 석유가공, 코크스, 핵연료 가공업(3.97)을 기록했다. 중국 주요 석유 공업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1이상의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 중저위-고위기술 제조업은 없다. 통용설비제조업과 전용설비제조업의 LQ 계수가 각각 0.73과 0.85를 기록하고 있다. 의약제조업은 1.55를 기록 특화되어 있다. 헤이룽장에는 하야오유한공사(哈药集体股份有限公司) 제약 회사가 있다. 이 제약회사는 2018년 9월 전국 의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17년 중화민족 의약 100대 브랜드 기업 발표”에서 가치있는 브랜드로 선정되어 선두회사로 입지를 다졌다.⁴²⁾ 이처럼 헤이룽장성은 랴오닝, 지린성과 달리 농업 관련 식품 가공 특화 정도가 높고 중저위-중고위 기술 산업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적다.

41) 헤이룽장성은 중국 최대 석유 생산지역 중 하나이며 다칭유전(大庆油田)과 치치하얼유전(齐齐哈尔油田)이 자리하고 있음.

42) 하야오유한공사 제조회사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http://www.hayao.com/news/gronews/4223.html>)



〈그림 22〉 헤이룽장성 2차 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工业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동북지역 3차 산업 특화도

〈표 18〉과 같이 2016년 기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3차 산업 14개 업종 종사자 수치를 활용하여 동북지역 3차 산업 특화도를 산출하였다. 동북지역의 3차 산업 특화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14개 업종을 그 성격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 가운데 정부·기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업종을 공공서비스업으로 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거치면서 중국 도시에서는 소비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발달여부에 상관없이 지역 도시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단체와 관련 업종이 양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종사자수 역시 많다. 일반적으로 3차 산업이 저발달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공공서비스 업종의 비중과 공공서비스업 산업특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⁴³⁾

〈표 18〉 동북지역 3차 산업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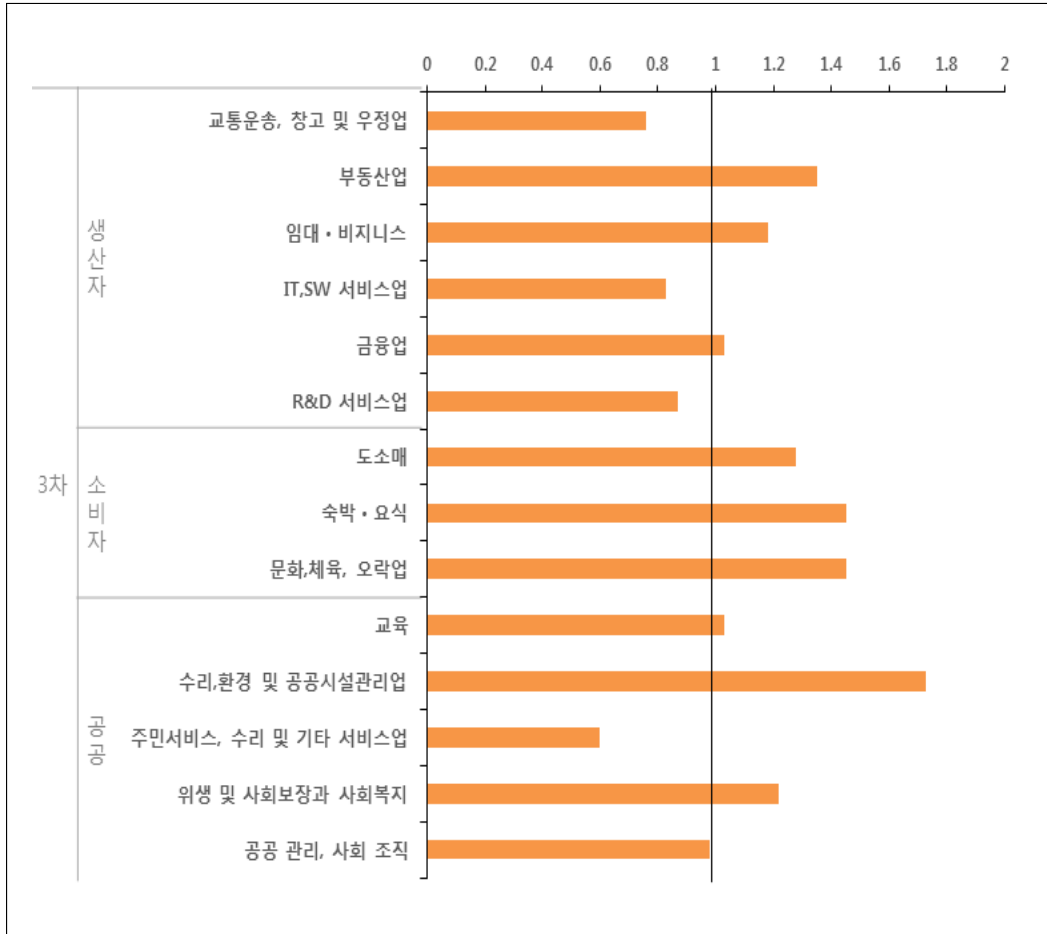
	업종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소 비 자	도소매업	0.76	0.49	0.60
	숙박 및 요식업	1.35	1.07	0.97
	문화, 체육, 오락업	1.18	1.28	1.16
생 산 자	교통운송, 창고 및 우정업	0.83	0.68	0.92
	부동산업	1.03	0.95	0.71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0.87	0.73	0.67
	IT, SW 서비스업	1.28	1.16	1.31
	금융업	1.45	1.03	1.54
	R&D 서비스업	1.45	0.73	1.33
공 공	교육	1.03	1.23	1.14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1.73	1.86	1.72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0.60	1.19	1.45
	위생 및 사회보장과 사회 복지업	1.22	1.26	1.18
	공공관리, 사회조직	0.98	1.25	1.25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43) 중국 도시경제발달 정도에 따른 공공서비스 업종의 발달에 대한 설명은 김수한 외(2016:88)참고

(1) 랴오닝성 3차 산업 특화도

랴오닝성의 3차 산업 LQ를 다음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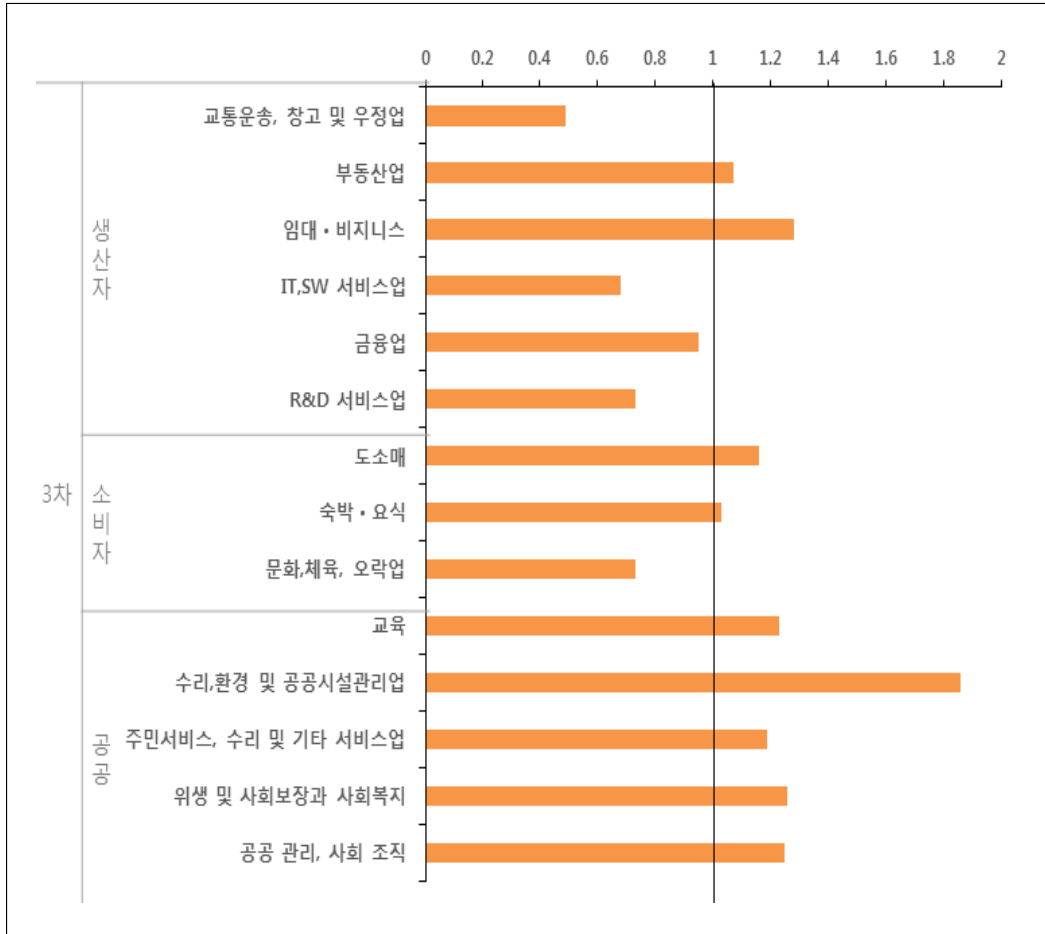
<그림 23> 랴오닝성 3차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랴오닝성 3차 산업 각 분류 평균값은 소비자서비스업의 특화도(1.10), 생산자서비스업(1.15), 공공서비스업(1.11)로 3차 산업 관련 업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서비스업 가운데 숙박 및 요식업이 1.35로 특화되어 있다.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IT/SW 서비스업, 금융업, R&D 서비스업이 각각 1.28, 1.45, 1.45를 기록하였다. 공공서비스업은 주민서비스·수리 및 기타서비스, 공공관리·사회조직 서비스업이 각각 0.6, 0.98 보통 수준의 산업 특화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 서비스업(1.73)으로 고도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린성 3차 산업 특화도

지린성의 3차 산업 LQ를 <그림 2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 지린성 3차산업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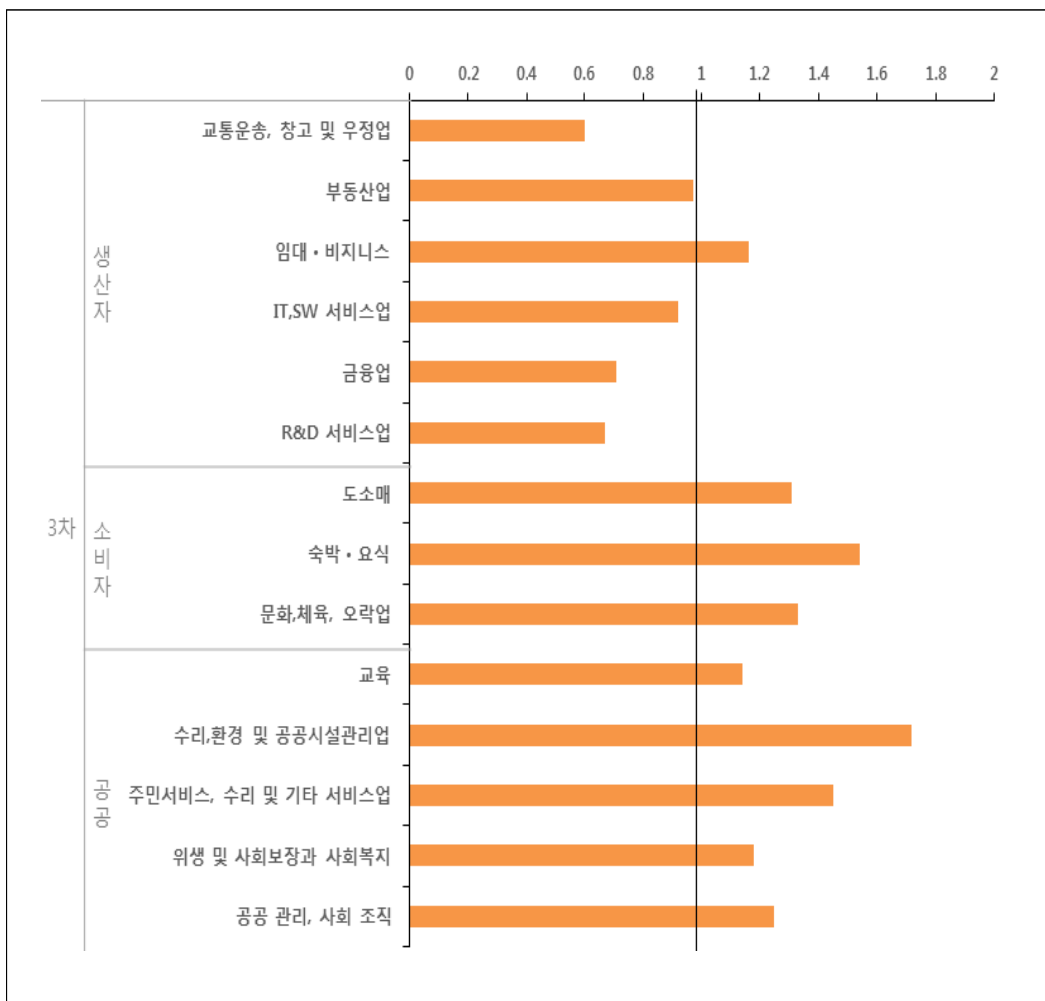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지린성 3차 산업 각 분류 평균값은 소비자서비스업(0.95), 생산자서비스업은(0.88), 공공 서비스업(1.36) 기록했으며 공공서비스업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서비스 업종 가운데 숙박 및 요식업, 문화·체육, 오락업이 각각 1.07, 1.28 특화되어 있다.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IT/SW 서비스(1.16), 금융업(1.03)로 특화되어 있다. 공공서비스업 관련 업종은 교육(1.23),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1.86),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1.19), 위생 및 사회보장(1.26), 공공관리, 사회조직(1.25) 모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헤이룽장성 3차 산업 특화도

헤이룽장성의 3차 산업 LQ를 <그림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헤이룽장성 3차 산업 각 분류 평균값은 소비자서비스업(0.91), 생산자서비스업(1.08), 공공서비스업(1.35)로 생산자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업 업종 가운데 문화, 체육, 오락업(1.16)으로 특화되어 있다. 생산자서비스업 업종은 IT/SW 서비스업(1.31), 금융업(1.54), R&D 서비스업(1.33)으로 특화되어 있다. 공공서비스업 업종은 교육(1.14),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1.72),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1.45), 위생 및 사회보장(1.18), 공공관리, 사회조직(1.25) 기록, 지린성과 마찬가지로 헤이룽장성 역시 공공서비스업 업종 전반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헤이룽장성 3차산업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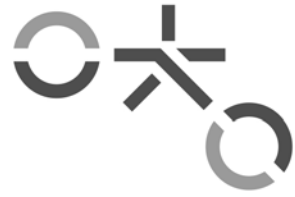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제3절 종합

동북지역 경제·산업 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각 지역별 특징을 도출하고 동북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추세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3성을 단일화된 경제·산업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각 성 간 경제 규모와 산업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랴오닝성과 내륙의 지린·헤이룽장 사이의 경제 규모 차이가 크다. 이 같은 랴오닝성의 선도성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보다 뚜렷하다. 연해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랴오닝성의 수출입 규모는 지린, 헤이룽장과 약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2014년 이후 랴오닝성 FDI가 급격히 감소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지표 변동에 따른 변화 추세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3성의 지역간 산업체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록 동북3성이 사회주의 중국의 중공업 기지로 육성되었지만 각 성 간의 산업체계 고도화 수준 및 특화도 차이 역시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랴오닝성의 경우 2차 산업의 제조업 기반이 견조하며 중고위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다. 3차 산업 가운데 생산자·소비자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랴오닝성 산업구조는 2,3차 산업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13·5규획>기간 제조업 고도화 전환에 정책 역점을 두고 있다. 지린성은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은 꾸준한 감소하고 있다. 지린성은 자동차 제조업과 BIO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하지만 2차 산업 가운데 중저위기술산업 위주로 산업체계가 성장했다. 원전이 있고 부존지하자원이 풍부한 헤이룽장성의 경우 에너지 생산·공급업이 발달했고 이와 관련된 R&D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의약제조업 역시 발달해 있다. 헤이룽장의 1차 산업 비중이 크고 식품제조업과 담배제조업 등 저위기술산업 특화도가 높은 편이며, 중저위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 가운데 LQ 지수가 1이상인 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북진흥전략에 힘입어 고성장을 구가했던 동북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경제 위주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내생적 발전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에 힘입어 일시적인 경기 반동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 이후 좀처럼 경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북 3성 발전을 선도했던 랴오닝성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대일로 등 북방 대외경제 확대 및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힘 입어 헤이룽장성이 성장하고 있다. 지린성은 자동차 및 BIO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랴오닝성과 지린·헤이룽장 내륙 지역과의 대외경제 역량 차이가 뚜렷하며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역시 격차가 크다. 향후 일정한 조정기를 거친 이후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 개혁과 대외개방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동북 지급시 경제·산업 역량 비교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동북지역 지급시 경제 현황

제3절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구조 및 특화도

제4절 동북지역 주요 거점도시 조사

IV. 동북 지급시 경제산업 역량 비교

제1절 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동북지역 지급시 경제·산업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경제역량 분포 현황과 산업특징을 살펴본다. 조사대상은 동북3성의 34개 지급시, 1개 자치주, 1개 지구이다. 제2절에서는 조사 대상 도시의 경제 현황을 ▲지역·소비경제 ▲대외경제로 나누어 조사한다. 지역경제 세부항목으로는 GRDP, 사회소비품판매총액, 1인당 가처분소득을 사용하며, 대외경제에서는 세부항목으로 수출입 총액 및 FDI를 검토한다. 통계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조사 대상 도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 특화도를 분석한다. 동북지역 지급시들의 1·2·3차 산업 비중을 살펴보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를 살펴본다. 조사 도시의 산업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분석을 실행한다. 지급시 업종별 종사자 지표는 2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 건축업, 에너지생산·공급업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반면 3차 산업의 경우 14개로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을 생산자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공공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도시들의 3차 산업 고도화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경제역량이 각 성의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동북 4대 경제 수위도시인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기본 현황 및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본다. 아울러 북중 접경 협력에 거점으로서 전략적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단둥시와 옌볜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2절 동북지역 지급시 경제 현황

1. 동북 지급시 지역경제·소비경제

각 동북 지역 도시들의 경제 규모와 발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 기준 도시별 GRDP, 사회소비품판매총액, 1인당가처분소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각 도시들의 수출입, FDI를 비교하여 대외경제 수준을 비교한다. 동북 각 도시들의 관련 경제지표 및 비중을 다음 <표 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9> 동북지역 지급시 지역 경제 현황 (2016년)

성	지급시	GRDP (억 위안)	비중 (%)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억 위안)	비중 (%)	1인당가처분소득 (위안)
랴오닝성	선양	5,546	10.3	3,986	13.8	38,995
	다렌	6,810	12.7	3,410	11.8	38,050
	안산	1,462	2.7	992	3.4	31,443
	푸순	865	1.6	670	2.3	28,467
	번시	767	1.4	377	1.3	29,137
	단둥	751	1.4	542	1.9	26,111
	진저우	1,033	1.9	611	2.1	28,484
	잉커우	1,156	2.2	503	1.7	32,318
	푸신	408	0.8	282	1.0	23,980
	랴오양	667	1.2	320	1.1	28,133
	판진	1,013	1.9	373	1.3	34,322
	테링	589	1.1	429	1.5	21,788
	차오양	717	1.3	449	1.6	22,381
	후루다오	647	1.2	471	1.6	26,338
지린성	창춘	5,928	11.0	2,650	9.2	27,195
	지린	2,531	4.7	1,447	5.0	25,520
	쓰핑	1,205	2.2	606	2.1	23,707
	랴오위안	766	1.4	226	0.8	23,725
	통화	1,060	2.0	532	1.8	23,929
	바이산	715	1.3	293	1.0	21,270
	송위안	1,712	3.2	669	2.3	23,947
	바이칭	731	1.4	340	1.2	21,090
	연변조선족자치주	875	1.6	531	1.8	23,276
헤이룽장성	하얼빈	6,102	11.4	3,744	13.0	30,978
	치치하얼	1,325	2.5	749	2.6	23,022
	지시	518	1.0	243	0.8	21,227
	허강	264	0.5	126	0.4	18,891

성	지급시	GRDP (억 위안)	비중 (%)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억 위안)	비중 (%)	1인당가처분소득 (위안)
헤이룽장성	쑹아산	438	0.8	119	0.4	21,248
	다칭	2,610	4.9	1,093	3.8	34,402
	이춘	251	0.5	119	0.4	20,844
	자무쓰	845	1.6	446	1.5	23,033
	치타이허	217	0.4	100	0.3	20,776
	무단장	1,231	2.3	588	2.0	26,673
	헤이허	471	0.9	115	0.4	22,935
	쑤이화	1,316	2.5	569	2.0	20,664
	다싱안링	143	0.3	63	0.2	23,220

자료: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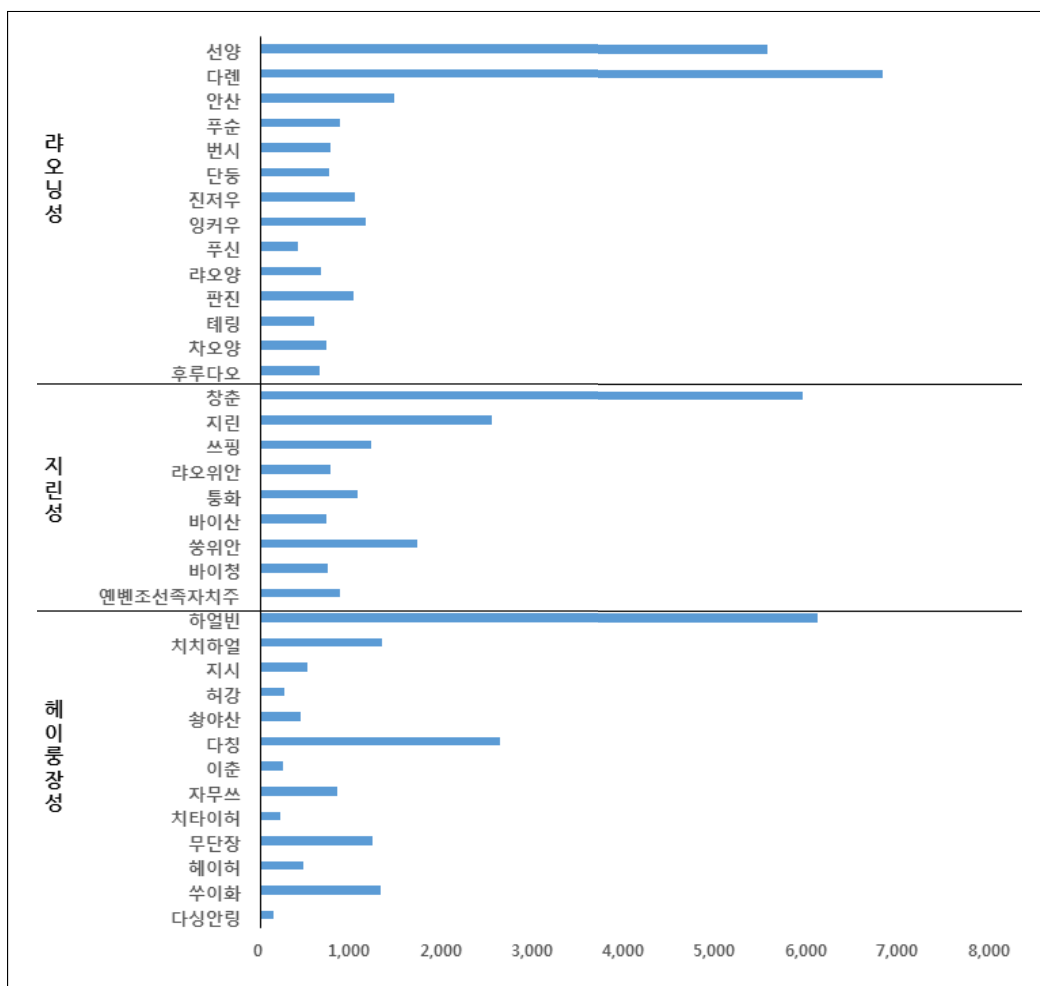
1) 지급시 GRDP 비교

동북지역 지급시 2016년 기준 GRDP 규모를 다음 <그림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롄시가 6,810억 위안(12.7%)으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하얼빈시 6,102억 위안(11.4%), 창춘시 5,928억 위안(11.0%), 선양시 5,546억 위안(10.3%)으로 뒤를 잇고 있다. 동북 지역 4대 경제 수위도시의 GRDP 총합이 전체의 45.4%에 이른다.

랴오닝성 차원에서 보면 선양시와 다롄시 GRDP 합계가 12,356억 위안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선양경제구에 포함되어 있는 안산시 (1,462억 위안/7%), 잉커우시 (1,156억 위안/5%), 연해도시군에 속해 있는 진저우 (1,033/5%), 판진 (1,013억 위안/5%) 등이 양호한 경제 역량을 나타냈다. 랴오닝 서북부 낙후 지역인 푸신, 테링, 차오양 등의 지역내총생산 합계는 1,714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랴오닝성의 지역경제 역량이 중부 및 연해 도시군에 몰려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선양, 다롄시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린성에서는 창춘시가 GRDP 성 전체의 38%인 5,928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지린시가 16%로 뒤를 잇고 있다. 창춘과 지린, 쓰펑, 랴오위안, 쑹위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부도시군 GRDP 총합이 성 전체의 78%인 12,142억 위안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옌벤조선족자치주는 지역내총생산은 875억 위안으로 지린성 전체의 6%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헤이룽장성 역시 성도인 하얼빈에 경제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하얼빈의 GRDP 는 6,102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39% 비중을 기록하였다.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하다치무도시군에 속해 있는 다칭(2,610억 위안), 치치하얼(1,325억 위안), 무단장(1,231억위안)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26〉 동북지역 지급시 GRDP (2016년) /(단위 : 억 위안)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지급시 사회소비품판매총액 비교

동북지역 지급시 2016년 기준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를 다음 〈그림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선양시가 3,986억 위안(13.8%)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시가 3,744억 위안(13.0%), 다롄시 3,410억 위안(11.8%), 지린성의 창춘시 2,650억 위안(9.2%)을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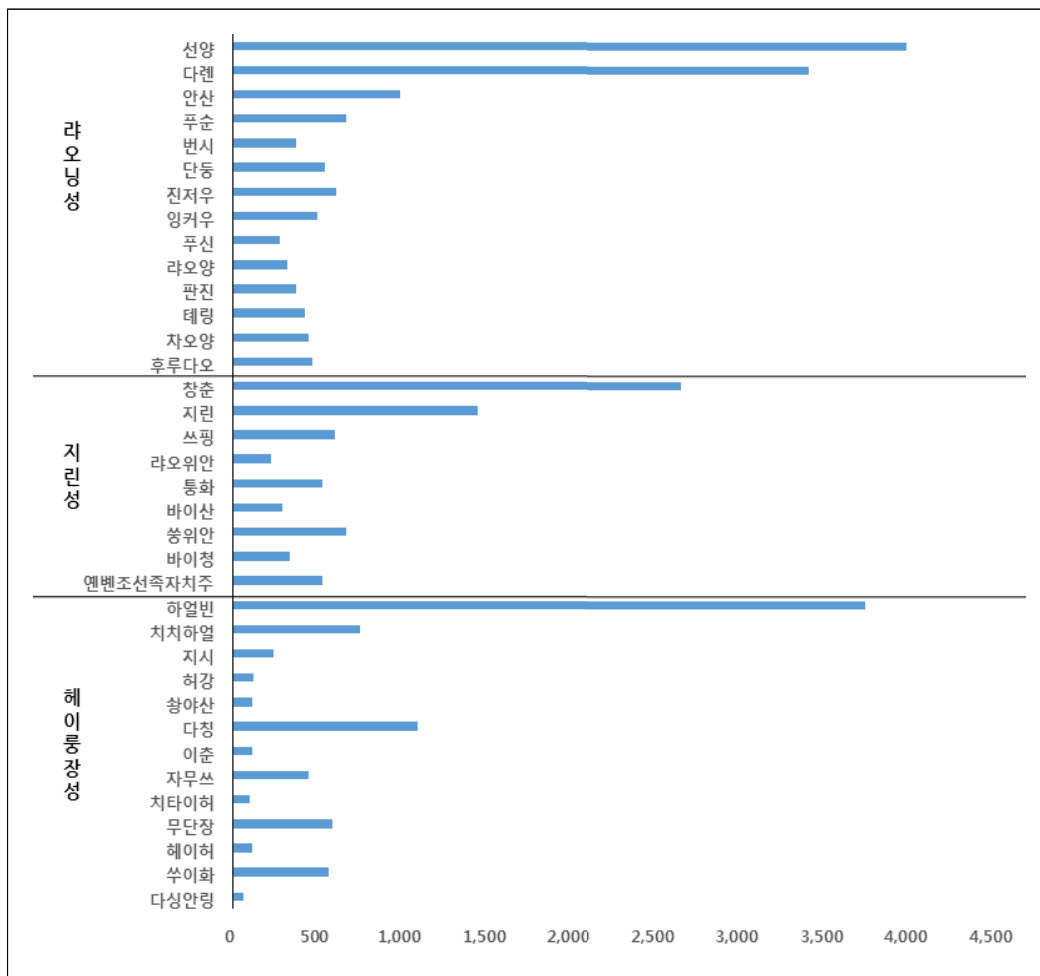
랴오닝성 차원에서 보면 선양시와 다롄시의 사회소비품판매액 합계가 7,396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선양경제구에 포함되어 있는 안산시(992억 위안), 푸순(670억 위안)이 전체의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해경제대의 진저우(611억 위안), 단둥(542억 위안), 잉커우(503억 위안), 후루다오(471억 위안)가 전체의 12%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랴오닝 서북부 도시들의 사회소비품판매액의 합계는 500억 위안 미만으로 성 전체의 4% 미만에 불과하다.

지린성에서는 창춘시가 2,650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3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린시가 1,447억 위안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두 도시의 비중이 성 전체의 56%를 넘는다. 옌벤조선족자치주는 531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7% 수준을 보이고 있다.

헤이룽장성에서는 하얼빈이 3,744억 위안으로 성 전체의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칭시 1,093억 위안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개 도시 외에 나머지 도시들의 소비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의 소비시장은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위도시와 기타 자급시간의 경제규모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헤이룽장 및 지린 등 동북 내륙도시의 이런 현상은 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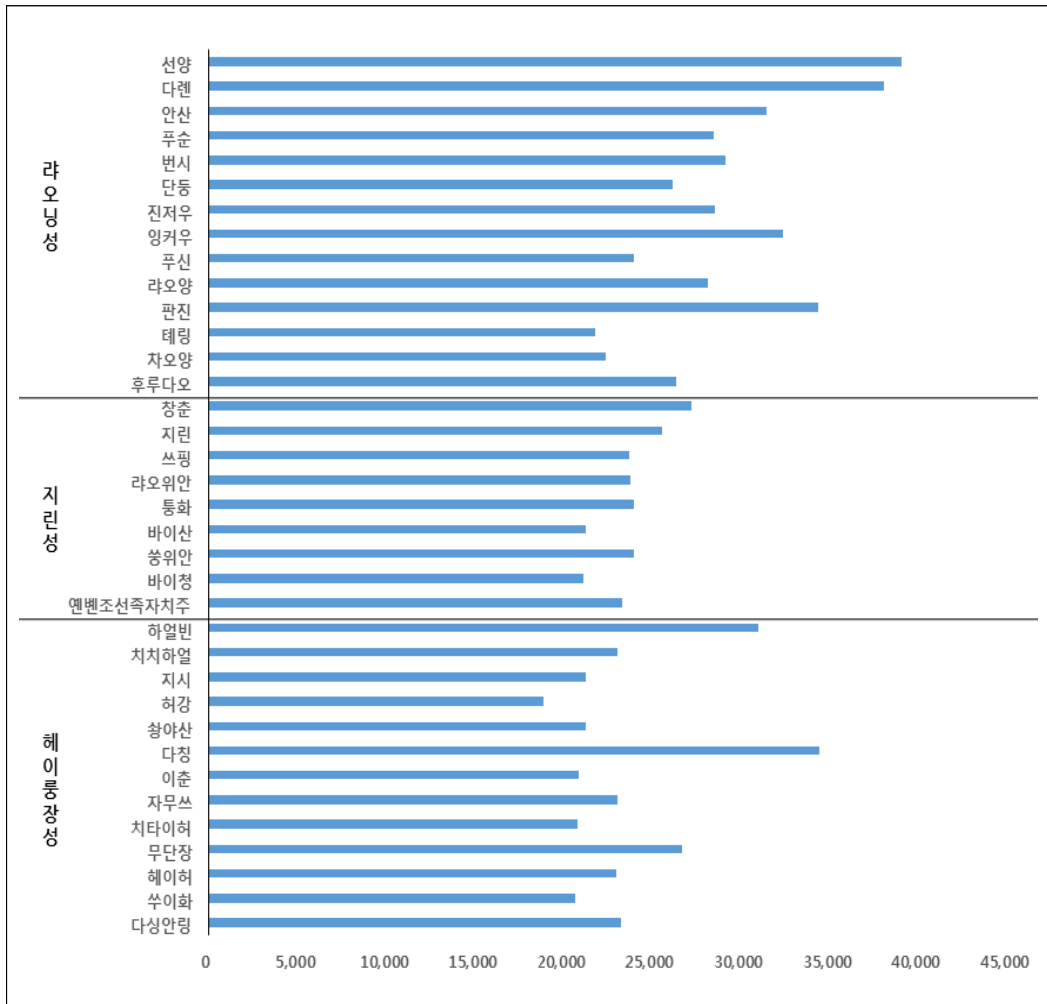


〈그림 27〉 동북지역 지급시 사회소비품판매총액 규모 (2016년) /(단위 : 억 위안)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3) 지급시 1인당 가처분소득 비교

2016년 기준 동북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25,875위안을 기록했다. 선양시는 38,995위안으로 동북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랴오닝성 14개 지급시 가운데 테링(21,788위안), 차오양(22,381위안), 후루다오(26,338위안) 3개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들은 평균보다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린성 지급시는 창춘시(27,195위안)를 제외하고는 평균 보다 낮으며 헤이룽장성 지급시 또한 하얼빈(30,978위안) 외 나머지 도시들이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28〉 동북지역 지급시 1인당 가처분소득 규모 (2016년) /(단위 : 위안)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동북 지급시 대외경제

동북 도시들의 대외경제 역량을 수출입, FDI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

〈표 20〉 동북지역 지급시 대외경제 현황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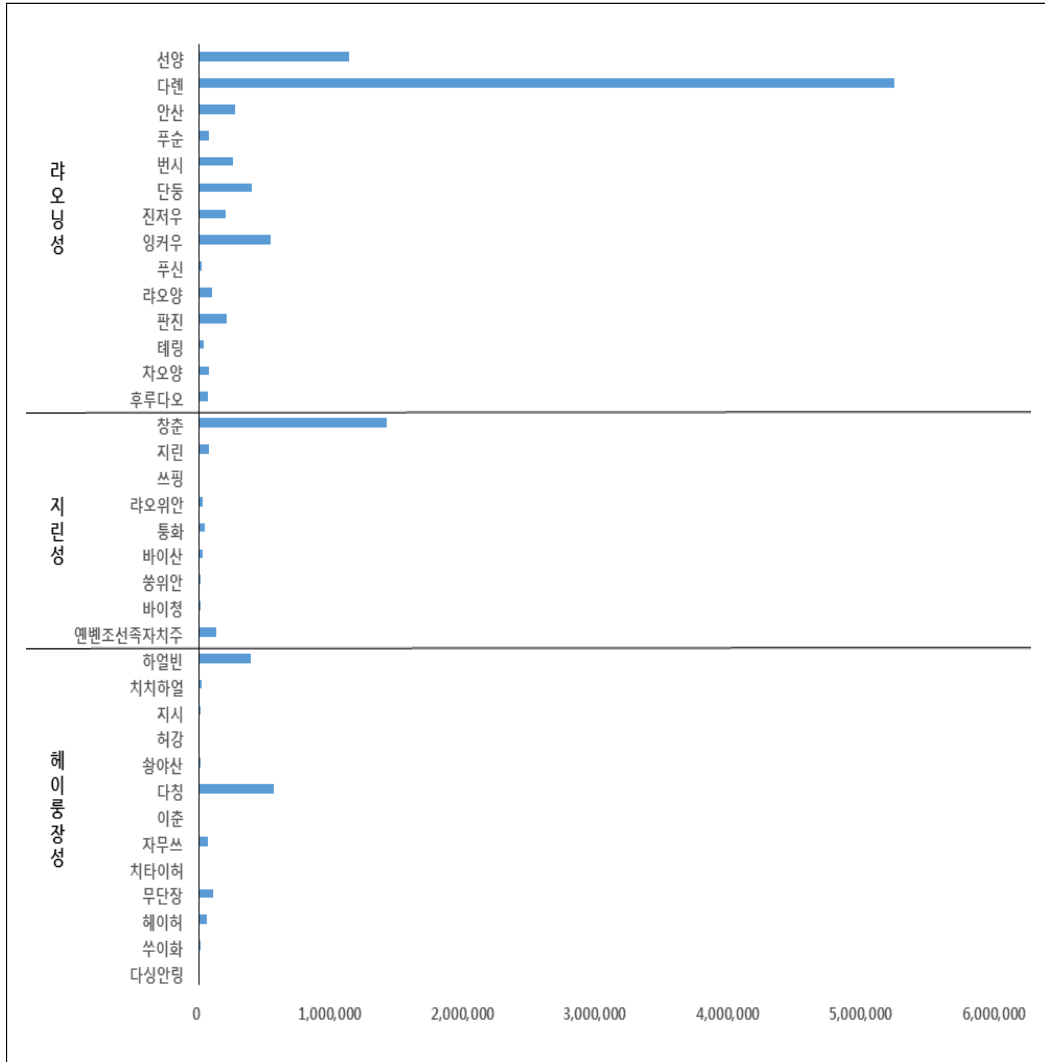
(단위 : 만 달러)

성	지급시	수출입/	비중	FDI	비중
랴오닝성	선양	1,133,141	9.7	81,606	4.4
	다롄	5,236,462	44.7	169,877	9.2
	안산	272,864	2.3	2,634	0.1
	푸순	77,999	0.7	16	0.0
	번시	257,985	2.2	6,076	0.3
	단둥	397,789	3.4	578	0.0
	진저우	200,601	1.7	2,142	0.1
	잉커우	540,714	4.6	2,414	0.1
	푸신	23,033	0.2	677	0.0
	랴오양	104,954	0.9	8,390	0.5
	판진	215,199	1.8	18,501	1.0
	테링	37,993	0.3	5,337	0.3
	차오양	79,846	0.7	1,337	0.1
	후루다오	73,547	0.6	322	0.0
지린성	창춘	1,416,291	12.1	649,792	35.0
	지린	77,684	0.7	115,403	6.2
	쓰핑	7,370	0.1	28,516	1.5
	랴오위안	29,868	0.3	32,455	1.8
	통화	45,216	0.4	46,939	2.5
	바이산	32,129	0.3	29,860	1.6
	송위안	18,624	0.2	38,557	2.1
	바이청	13,175	0.1	17,512	0.9
	옌벤조선족자치주	134,700	1.1	18,472	1.0
헤이룽장성	하얼빈	391,525	3.3	310,730	16.8
	치치하얼	25,942	0.2	50,788	2.7
	지시	18,994	0.2	14,842	0.8
	허강	7,812	0.1	7,482	0.4
	샹야산	13,725	0.1	3,000	0.2
	다칭	562,234	4.8	68,943	3.7
	이춘	6,005	0.1	459	0.0
	자무쓰	66,755	0.6	25,468	1.4
	치타이허	236	0.0	5,985	0.3
	무단장	113,704	1.0	48,868	2.6
	헤이허	61,008	0.5	11,879	0.6
	쑤이화	18,217	0.2	28,067	1.5
	다싱안링	1,188	0.0	98	0.0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1) 지급시 수출입 총액 비교

동북지역의 대외경제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급시 수출입 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동북지역 지급시 수출입 규모 현황 (2016년) /(단위:만 달러)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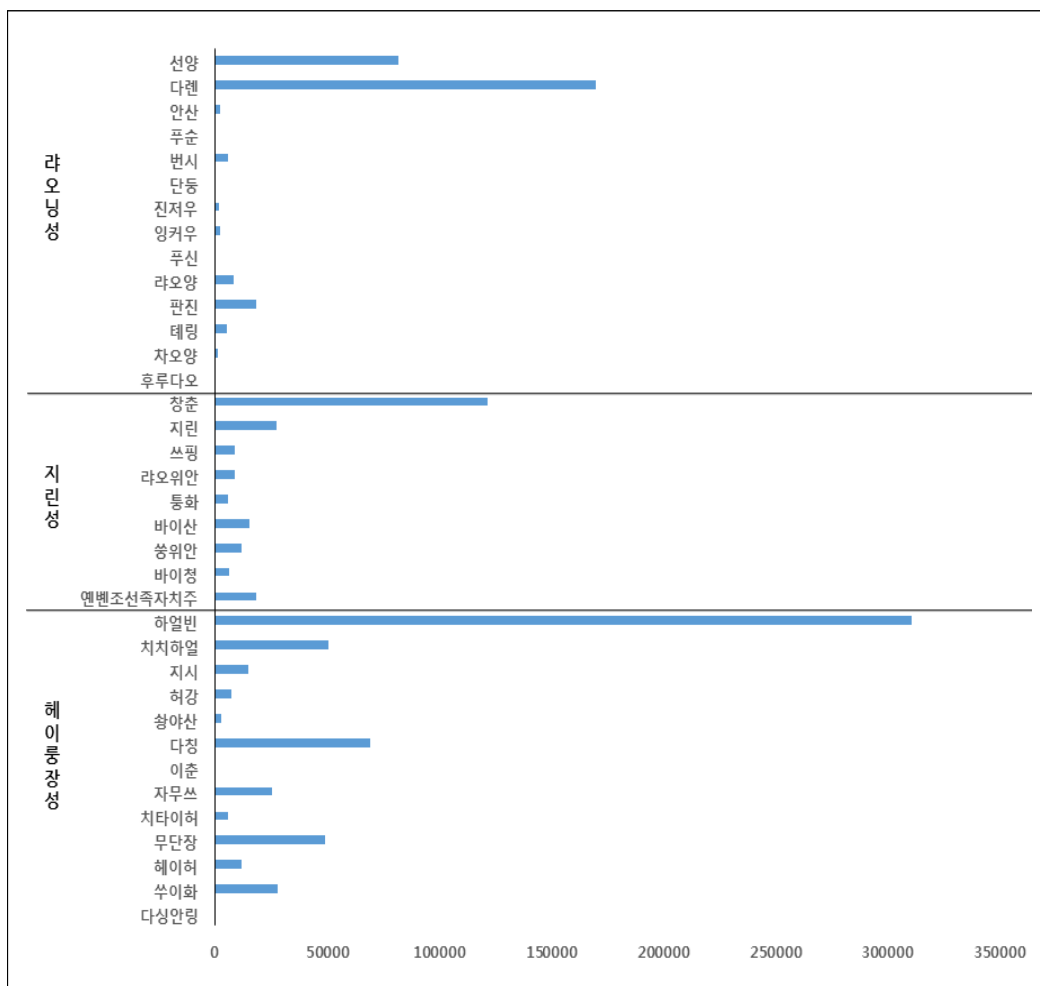
2016년 기준 다롄시가 5,236,462만 달러를 기록, 동북 전체의 4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춘시가 1,416,291만 달러, 다칭시 462,234만 달러, 하얼빈시 391,525만 달러로 뒤를 잇고 있지만 1위를 기록한 다롄시와의 교역액 규모 차이는 매우 크다.

랴오닝성 차원에서 보면 14개 지급시 가운데 다롄시의 교역 총액이 성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처럼 국제해운·물류 중심지로서의 다롄 위상이 매우 공고하다. 선양경제구 중심도시인 선양시는 1,113,141만 달러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선양경제구와 연해경제지대에 모두 속해 있는 잉커우가 540,71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이 397,789만 달러로 각각 성 전체에서 6%, 5% 비중을 나타냈다. 그밖에 도시들의 교역액은 모두 30만 달러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린성 경제 수위도시인 창춘의 교역액은 성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옌벤조선족자치주가 134,700만 달러(8%)로 뒤를 잇고 있다. 헤이룽장성 12개 지급시, 1개 지구 가운데 원전이 있는 다칭시가 562,234만 달러로 44%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하얼빈(391, 525만 달러), 무단장(113,704만 달러)이 뒤를 잇고 있으며 성내 비중 각각 30%, 9%이다. 그밖에 나머지 도시들은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입 규모와 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지급시 FDI 비교

2016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하얼빈시(310,730만 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동북지역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롄시(169,877만 달러), 창춘시(121,386만 달러), 선양시(81,604만 달러)로 각각 동북지역 FDI 총규모의 15%, 11%,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위도시들 가운데 하얼빈시가 월등히 높은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2014년 이후 동북지역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선양, 다롄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각각 580,435만 달러, 1,235,033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2년 대비 2015년에 5배, 6배 가량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림 30〉 동북지역 지급시 FDI 규모 현황 (2016년) / (단위:만 달러)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랴오닝성 차원에서 보면 수위도시인 다롄(169,877만 달러), 선양(81,604만 달러)로 각각 57%,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선양경제구 도시인 판진이 18,501만 달러로 6%를 차지했다. 그밖에 나머지 도시들은 10,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3% 이하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린성에서는 창춘시가 121,386만 달러로 5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지린(27,718만 달러), 옌벤조선족자치주(18,390만 달러), 바이산(15,700만 달러), 쑹위안(11,970만 달러)로 각각 12%, 8%, 7%, 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 나머지 도시들은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며 10,000만 달러 이하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헤이룽장성 수위도시인 하얼빈이 성 전체의 54%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칭(68,94

3만 달러), 치치하얼(50,788만 달러), 무단장(48,868만 달러)으로 50,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12%, 9%, 8%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 나머지 도시들은 수위도시인 하얼빈과 해외투자규모 차이가 현격히 크며 헤이룽장성 내에서 6%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절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구조 및 특화도

1. 지급시 1·2·3차 산업구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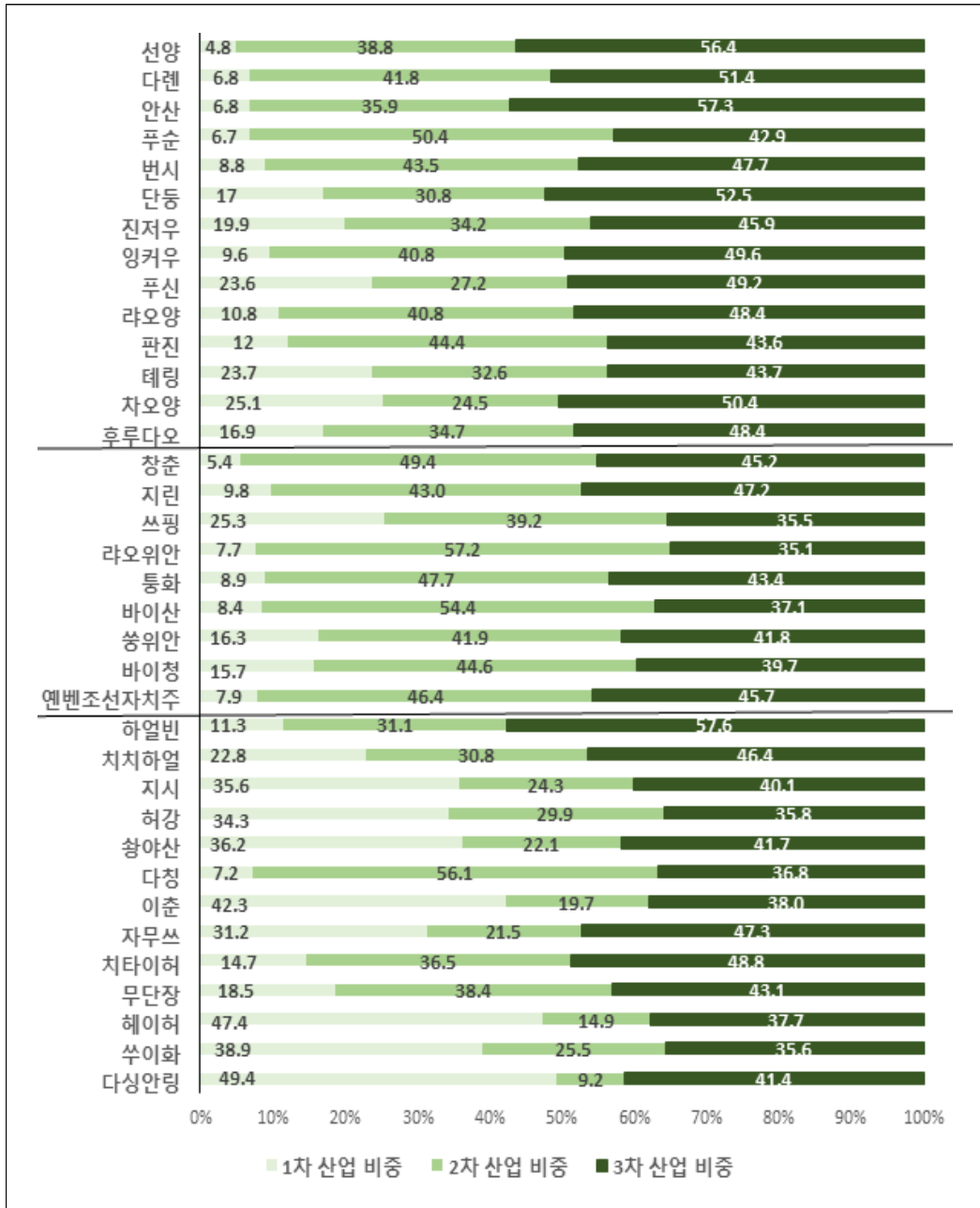
2016년 기준 동북3성 도시들의 1·2·3차 산업의 규모와 비중을 <표 21>과 같이 정리한다. 랴오닝성 지급시 가운데 2·3차 산업 비중이 90% 이상인 도시는 선양, 다롄, 안산, 번시, 잉커우시 등 5개 도시가 있다. 랴오닝성 14개 지급시의 2차 산업 비중 평균은 37.2%이며 3차 산업 비중 평균은 49.1% 이다. 선양(56.4), 다롄(51.4), 안산(57.3), 단둥(52.5), 차오양(50.4) 등의 5개 도시의 3차 산업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지린성 지급시 가운데 2·3차 산업 비중이 90% 이상인 도시는 창춘, 지린, 랴오위안, 통화, 바이산, 옌벤조선족자치주 등 6개 도시가 있다. 지린성 9개 도시의 2차 산업 비중 평균은 47.1%이며 3차 산업 비중 평균은 42.2% 이다. 헤이룽장 지급시 가운데 2·3차 산업 비중이 90% 이상인 도시는 다칭 1곳 뿐이다. 경제수위도시인 하얼빈시의 경우에도 1차 산업 비중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 평균은 42.3%이다. 하얼빈시 외 4개 도시는 평균 수치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얼빈시는 2016년 기준 3차 산업 비중이 57%로 동북지역 도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차 산업 평균은 27.7%이며 13개 도시 가운데 6개 도시가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다칭시는 56.1%로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1차 산업 평균은 30%로 2차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8개 도시가 3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헤이룽장성 도시들은 다른 성의 지급시와 달리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규모 및 비중 (2016년)

(단위:억 위안/%)

성	지급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랴오닝성	선양	266	4.8	2,152	38.8	3,129	56.4
	다롄	433	6.8	2,850	41.8	3,480	51.4
	안산	100	6.8	524	35.9	838	57.3
	푸순	58	6.7	436	50.4	371	42.9
	번시	68	8.8	333	43.5	366	47.7
	단둥	128	17	231	30.8	392	52.5
	진저우	206	19.9	353	34.2	474	45.9
	잉커우	111	9.6	471	40.8	574	49.6
	푸신	96	23.6	111	27.2	201	49.2
	랴오양	72	10.8	272	40.8	323	48.4
	판진	121	12	449	44.4	442	43.6
	테링	140	23.7	192	32.6	258	43.7
	차오양	179	25.1	176	24.5	361	50.4
	후루다오	109	16.9	225	34.7	313	48.4
지린성	창춘	324	5.4	2,957	49.4	2,706	45.2
	지린	240	9.8	1,056	43.0	1,158	47.2
	쓰핑	302	25.3	468	39.2	424	35.5
	랴오위안	59	7.7	438	57.2	269	35.1
	통화	84	8.9	452	47.7	411	43.4
	바이산	59	8.4	379	54.4	259	37.1
	송위안	269	16.3	692	41.9	691	41.8
	바이청	110	15.7	312	44.6	278	39.7
헤이룽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69	7.9	406	46.4	401	45.7
	하얼빈	691	11.3	1,897	31.1	3,514	57.6
	치치하얼	302	22.8	409	30.8	615	46.4
	지시	185	35.6	126	24.3	208	40.1
	허강	91	34.3	79	29.9	95	35.8
	황야산	158	36.2	97	22.1	182	41.7
	다칭	187	7.2	1,463	56.1	959	36.8
	이춘	106	42.3	49	19.7	96	38.0
	자무쓰	264	31.2	182	21.5	400	47.3
	치타이허	32	14.7	79	36.5	106	48.8
	무단장	228	18.5	473	38.4	530	43.1
	헤이허	223	47.4	70	14.9	178	37.7
	쑤이화	513	38.9	336	25.5	468	35.6
	다싱안링	71	49.4	13	9.2	60	41.4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비중 (2016년)/(단위:%)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吉林统计年鉴(2017)』, 『黑龙江统计年鉴(2017)』 활용하여 작성

2. 동북지역 지급시 산업 특화도

〈표 22〉와 같이 2016년 기준 동북3성 지급시의 업종별 종사자 수치를 활용하여 지급시 특화도를 산출하였다.

〈표 22〉 랴오닝성 지급시 LQ(2016년)

지급시	3차																		
	1차	2차				소비자			생산자					공공					
	농림 목어	채광	제조	전력 가스 용수 생산 공급	건축	도 소 매	숙박 요식	문화 체육 오락	교통 운송 창고 우정	부 동 산	임대 비즈 니스	IT, SW 서비 스업	금융 업	R& D 서비 스업	교육	수리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주민 서비 스, 수리 및 기타	위생 및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공공 관리 사회 조직
선양	0.19	0.61	0.72	1.37	1.11	1.13	0.87	1.40	1.12	0.89	0.96	1.83	1.33	1.71	1.02	1.94	0.80	1.30	0.77
다렌	0.45	0.06	1.30	0.79	0.47	0.91	3.02	1.18	0.81	1.57	0.88	0.83	1.83	1.47	0.85	0.96	0.33	0.93	0.67
안산	0.50	0.22	1.15	1.52	0.89	0.41	0.37	0.95	0.66	0.79	0.96	1.54	0.99	1.10	1.07	1.84	0.94	1.12	1.02
푸순	1.33	4.73	0.86	2.46	0.57	0.22	0.49	1.21	0.71	0.65	0.52	0.82	1.25	0.85	0.98	2.25	0.37	1.21	1.16
번시	0.30	1.97	1.09	1.80	0.87	0.36	0.86	0.81	0.41	0.52	1.09	0.51	1.29	0.91	0.81	1.62	0.27	1.43	1.19
단둥	1.79	0.35	0.74	1.85	0.89	0.57	0.84	0.98	0.57	1.86	0.32	1.64	1.14	0.71	1.29	2.71	0.49	1.65	1.36
진저우	2.42	0.63	0.64	2.08	0.76	0.27	1.14	1.30	0.56	0.80	1.27	1.66	1.61	1.07	1.45	1.48	0.95	1.46	1.39
잉커우	0.30	0.05	0.87	1.99	0.43	0.80	0.73	0.90	0.93	0.53	0.69	0.61	1.55	3.32	0.89	2.08	0.35	1.04	1.68
푸신	1.86	4.75	0.21	2.70	0.63	0.23	0.91	1.21	0.56	0.60	0.36	0.70	1.82	0.58	1.74	2.69	0.38	1.81	1.80
랴오양	1.45	0.07	1.13	0.48	0.85	0.12	0.67	1.01	0.39	0.88	0.48	0.66	1.24	0.66	1.07	2.85	0.41	1.46	1.59
판진	30.5	8.05	0.27	0.61	0.36	0.29	0.23	0.71	0.27	0.37	0.91	0.45	0.66	0.39	0.43	1.35	0.25	0.42	0.77
테링	6.00	6.55	0.33	2.01	0.45	0.08	0.71	0.74	0.76	0.67	0.41	1.22	0.85	0.63	1.34	1.98	0.28	1.45	1.70
차오양	0.60	0.53	0.48	2.13	0.66	0.16	0.68	0.64	0.75	0.66	0.36	0.57	1.99	0.68	1.73	2.60	2.77	1.57	2.37
후루다오	1.85	1.44	0.80	1.54	0.76	0.35	0.75	0.45	0.40	0.53	0.84	0.97	1.44	0.75	1.31	2.14	0.62	1.31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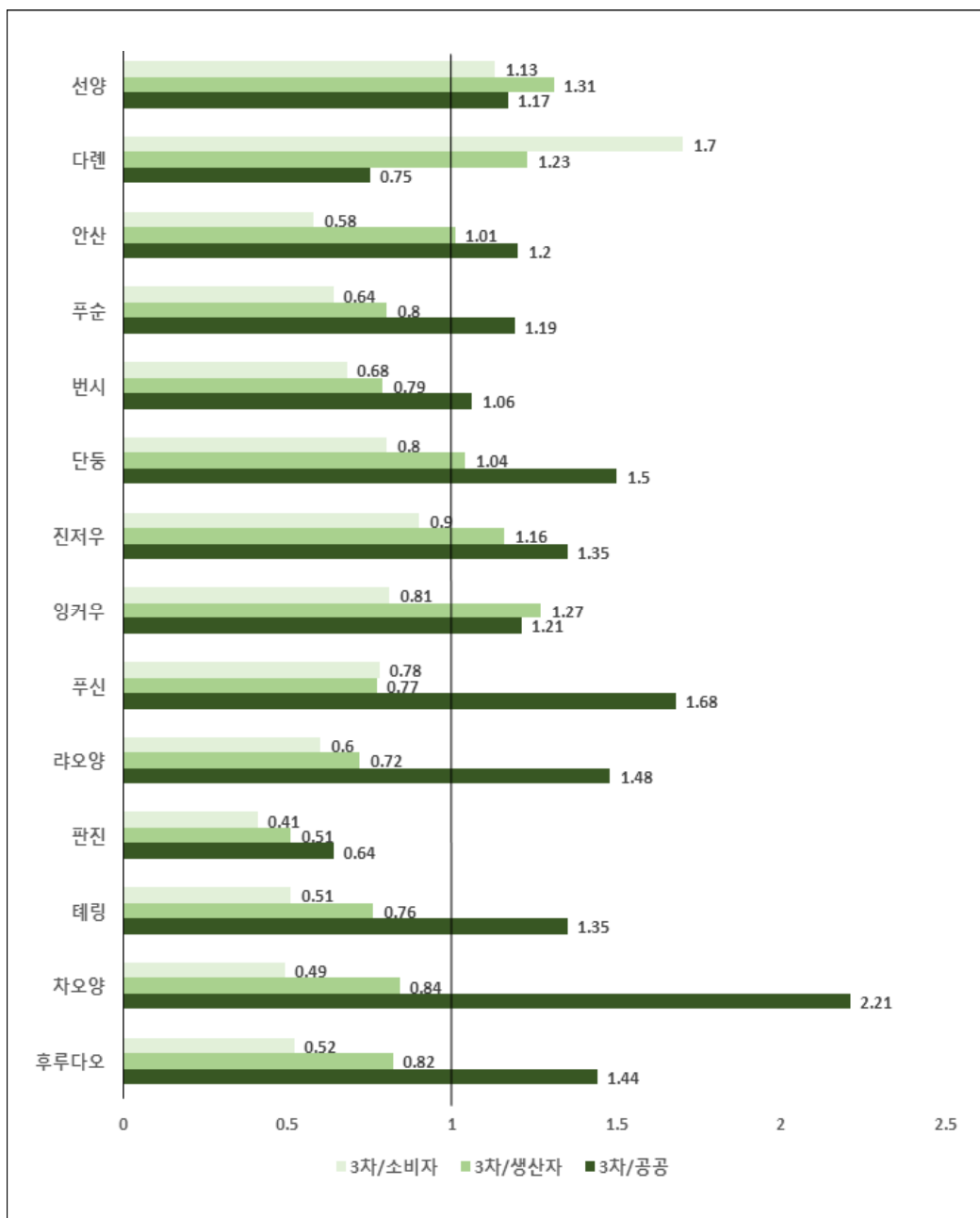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 랴오닝성 지급시 산업 특화도

2016년 기준 랴오닝성 각 지급시 업종별 입지계수를 다음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14개 지급시 가운데 선양(0.19), 잉커우(0.3), 번시(0.3), 다렌(0.45), 안산(0.5), 차오양(0.6) 등 6개 도시가 1차 산업 입지계수가 1 이하를 기록했다. 나머지 8개 도시의 경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잉커우(0.84), 다렌(0.66), 랴오양(0.63)을 제외한 랴오닝 대부분 지급시의 2차 산업 LQ평균 값이 2.34에서 0.95 사이를 기록하는 등, 채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생산·공급 업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다렌(1.3), 안산(1.15), 랴오양(1.13), 번시(1.09)의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

랴오닝성 14개 지급시의 3차 산업 특화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양(1.31), 잉커우(1.27), 다렌(1.23), 진저우(1.16), 단둥(1.04) 안산(1.01) 등 선양경제구 및 연해경제벨트 중심도시들의 생산자서비스업 입지계수 평균이 1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다렌(1.7), 선양(1.13) 2곳만이 소비자서비스업 LQ 평균 1 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다렌(0.75)와 판진(0.64)를 제외한 12개 지급시 모두 1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랴오닝성 지급시 전반에 걸쳐 1차 및 2차 산업 특화도가 높으며, 3차 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경제 수위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급시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양 및 다렌시 그리고 일부 경제 수위도시들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금융업 등의 생산자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랴오닝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지린성 지급시 산업 특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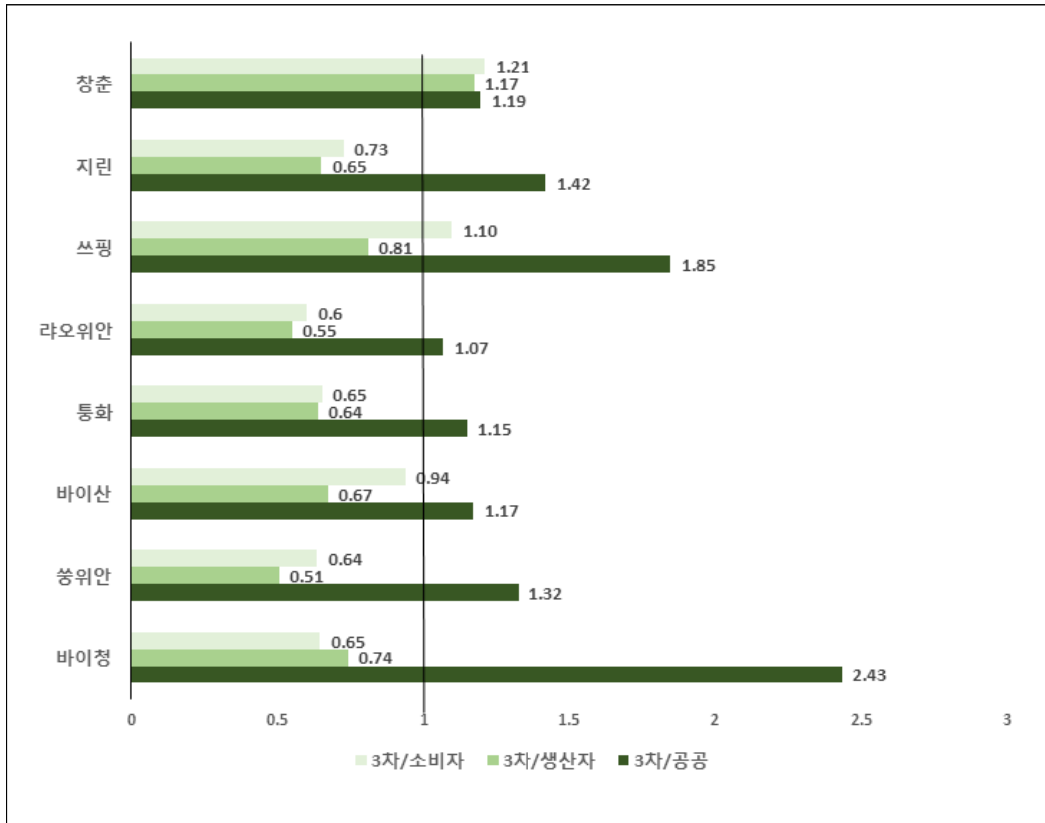
2016년 기준 지린성 각 지급시 1·2·3차 산업의 각 업종별 입지계수를 다음 <표 23>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우선 8개 지급시 가운데 창춘(0.78)을 제외한 모든 도시의 1차 산업 입지계수가 1 이상을 기록, 지린성 전역에 걸쳐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쓰핑(0.81), 바이청(0.61)을 제외한 지린성 지급시의 2차 산업 LQ평균 값이 2.42에서 1.07를 기록, 2차 산업 역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통화, 랴오위안, 창춘, 지린 등 도시의 제조업 입지계수가 1을 상회하고 있다.

<표 23> 지린성 지급시 LQ(2016년)

지급시	1차	2차				3차													
						소비자				생산자				공공					
	농림 목어	채광	제조	전력 가스 용수 생산 공급	건축	도 소 매	숙박 요식	문화 체육 오락	교통 운송 창고 우정	부 동 산	임대 비즈 니스	IT, SW 서비 스업	금 융 업	R& D 서비 스업	교육	수리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주민 서비 스, 수리 및 기타	위생 및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공공 관리 사회 조직
창춘	0.78	0.27	1.05	2.60	0.73	0.75	1.43	1.45	0.89	1.34	1.22	1.64	1.06	0.88	1.07	1.56	1.57	1.03	0.74
지린	2.07	0.90	1.03	1.90	0.54	0.31	0.74	1.13	0.53	0.87	0.31	0.72	0.84	0.63	1.42	2.38	0.19	1.60	1.51
쓰핑	3.34	0.14	0.50	2.12	0.47	0.26	1.34	1.69	0.64	0.66	0.13	1.33	1.24	0.86	2.05	2.67	0.47	2.43	1.62
랴오위안	1.58	5.52	1.16	1.83	0.20	0.11	0.77	0.92	0.36	0.61	0.18	0.54	1.07	0.54	1.12	1.51	0.21	1.23	1.27
통화	1.28	0.81	1.45	1.51	0.52	0.23	0.81	0.92	0.50	0.85	0.36	0.60	1.01	0.51	0.97	1.41	0.96	1.08	1.32
바이산	9.14	5.30	0.45	2.16	0.31	0.28	0.71	1.82	0.35	0.42	1.17	0.51	1.04	0.55	1.05	1.21	0.29	1.11	2.19
쑹위안	6.28	6.85	0.59	1.75	0.47	0.42	0.59	0.90	0.51	0.40	0.15	0.54	0.84	0.59	1.24	1.67	1.12	1.13	1.46
바이청	8.78	0.07	0.40	1.55	0.42	0.32	0.72	0.90	0.59	0.45	0.31	1.28	1.24	0.58	1.68	3.47	3.16	1.48	2.38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지린성 8개 지급시의 3차 산업 특화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린성 지급시 가운데 창춘(1.17)을 제외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 도시는 없다. 소비자서비스업 역시 창춘(1.21), 쓰핑(1.1)의 단 2곳만이 LQ 평균 1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8개 도시 모두 1 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지린성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가 낮은 가운데, 성도이자 경제 수위도시인 창춘시만이 제조업 및 관련 생산자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지린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3) 헤이룽장성 지급시 산업 특화도

2016년 기준 헤이룽장 각 지급시 1·2·3차 산업의 각 업종별 입지계수를 다음 <표 24>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표 24> 헤이룽장성 지급시 LQ(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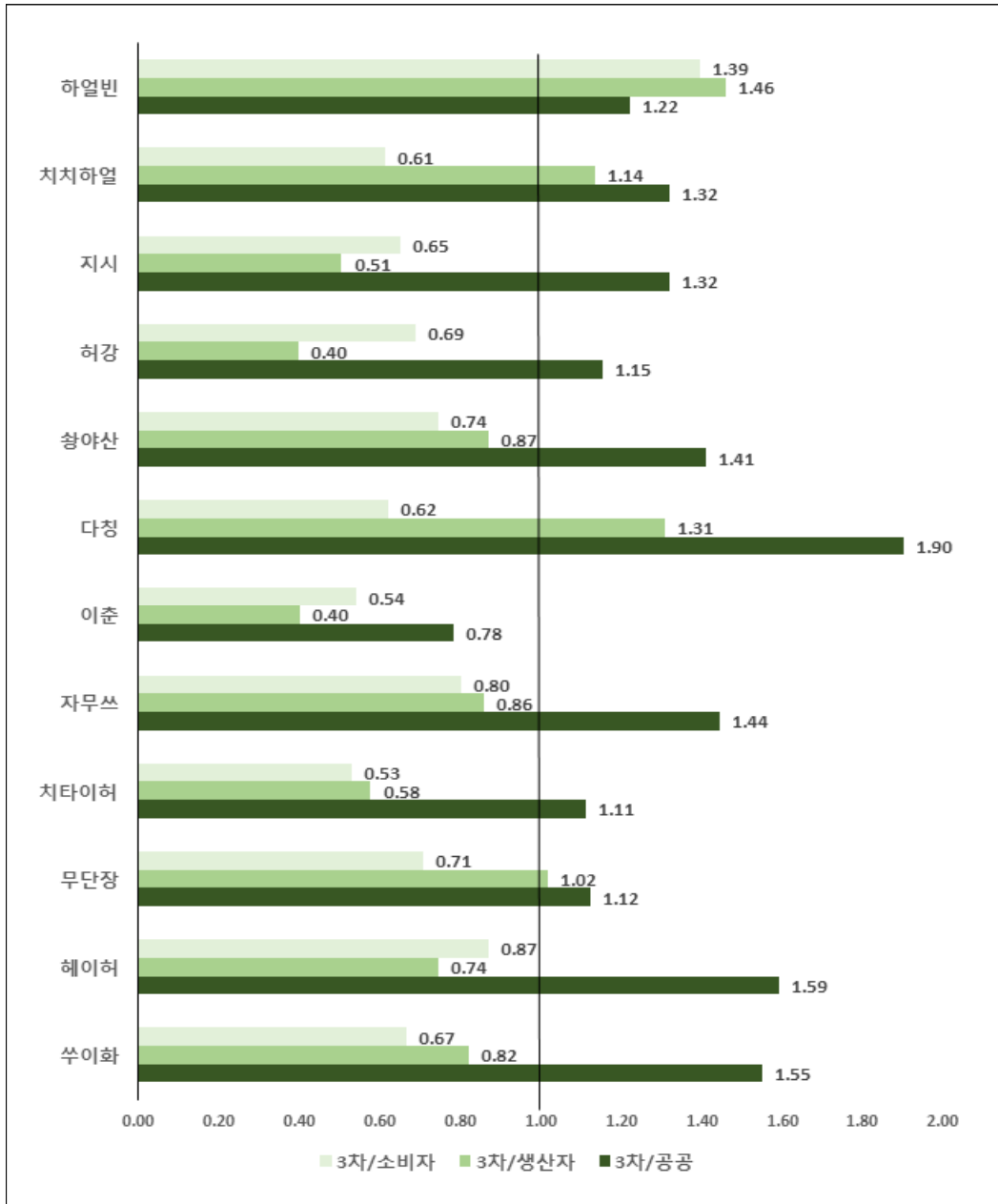
지급시	1차	2차				3차													
	농임 목어	채광	제조	전력 가스 용수 생산 공급	건축	소비자			생산자						공공				
						도 소 매	숙박 요식	문화 체육 오락	교통 운송 창고 우정	부 동 산	임대 비즈니스	IT, SW 서비스업	금융 업	R& D 서비스업	교육	수리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위생 및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공공 관리 사회 조직
하얼빈	2.22	0.08	0.62	2.78	0.55	1.22	1.47	1.49	1.41	1.15	1.34	1.48	1.63	1.75	1.19	1.71	0.99	1.20	1.02
치치하얼	9.86	0.01	0.64	2.22	0.29	0.07	0.72	1.05	0.50	0.53	0.55	0.74	1.77	2.72	1.26	2.25	0.27	1.55	1.26
지시	19.8	7.64	0.23	1.39	0.34	0.36	0.79	0.80	0.54	0.24	0.05	0.19	1.18	0.83	0.82	3.12	0.82	0.74	1.09
허강	22.7	7.60	0.30	1.12	0.28	0.87	0.43	0.76	0.75	0.14	0.06	0.15	0.67	0.61	0.67	1.49	1.45	1.17	0.99
쑹야산	3.61	7.42	0.25	2.65	0.30	0.23	0.68	1.32	1.17	0.57	0.81	0.47	1.07	1.12	1.00	2.63	0.45	0.81	2.16
다칭	0.47	8.43	0.42	3.14	0.60	0.29	0.64	0.93	0.65	0.80	0.06	4.06	1.61	0.67	0.83	0.60	6.44	0.86	0.78
이춘	44.3	0.11	0.25	1.52	0.18	0.18	0.69	0.75	0.20	0.27	0.16	0.46	0.81	0.51	0.78	1.10	0.11	0.89	1.04
자무쓰	9.84	0.16	0.32	2.27	0.61	0.31	0.98	1.11	1.14	0.40	0.19	0.78	1.48	1.16	1.50	1.83	0.34	1.55	2.00
치타이허	3.98	14.8	0.22	1.13	0.15	0.06	0.62	0.91	0.31	0.25	0.21	0.60	1.34	0.75	0.91	1.68	0.28	1.20	1.48
무단장	12.5	0.26	0.49	2.38	0.64	0.39	0.63	1.10	0.67	0.60	1.14	0.47	2.52	0.71	1.14	1.34	0.32	1.50	1.32
헤이허	16.6	0.88	0.16	2.72	0.23	0.33	0.99	1.29	0.59	0.26	0.20	0.58	1.40	1.43	1.22	2.56	0.28	1.41	2.48
쑤이화	3.25	0.48	0.59	1.79	0.42	0.12	0.84	1.04	0.91	0.56	0.19	0.61	1.63	1.02	2.04	1.80	0.36	1.45	2.09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우선 12개 지급시 가운데 유전 및 에너지 생산업이 발달해 있는 다칭(0.47)을 제외한 모든 지급시의 1차 산업 입지계수가 매우 높다. 성도인 하얼빈이 다칭 다음으로 낮은 2.22의 1차 산업 LQ를 기록하였다. 한편 헤이룽장 각 도시들의 2차 산업 입지계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춘(0.52)을 제외한 11개 도시의 경우 4.08에서 0.79 사이의 2차 산업 LQ평균 값을 기록하였다. 자무쓰(14.8), 하얼빈(8.43), 쑹야산(7.64), 지시(7.6), 허강(7.42)의 채광업이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 에너지 생산·공급업의 경우 전체 11개 도시 모두 1이상의 특화도를 보였다. 한편 제조업 및 건축업의 경우 1이상의 산업특화도를 기록한 도시는 없다.

헤이룽장성 11개 지급시의 3차 산업 특화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헤이룽장 지급시 가운데 하얼빈(1.46), 다칭(1.31), 치치하얼(1.14), 무단장(1.02) 4개 도시의 생산자서비스업 LQ 평균이 1을 넘었다. 성도인 하얼빈(1.41) 및 접경의 쑹야산(1.17), 자무쓰(1.14)의 교통물류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한편 다칭시의 IT/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 입지계수가 4.06을, 하얼빈은 1.48을 기록하고 있다. 치치하얼(2.72), 하얼빈(1.75), 헤이허(1.43), 자무쓰(1.16), 쑹야산(1.12), 쑤이화(1.02) 등의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1이상의 LQ 평균 값을 기록한 도시는 하얼빈(1.39)이 유일하다. 한편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이춘(0.78)을 제외한 10개 도시 모두 1 이상의 특화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헤이룽장성 지급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2차 산업 가운데 채광업 및 에너지 생산·공급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생산자서비스업 역시 채광업과 에너지 관련 업종이 발달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소비자서비스업의 발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34〉 헤이룽장성 지급시 3차산업 평균 LQ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제4절 동북지역 주요 거점도시 조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지역 각 성 가운데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에 경제 역량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제4절에서는 동북지역 주요 도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각 도시 개요 및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본다.

개요에는 도시 일반 현황과 주력 산업, 정책환경 그리고 한국과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등 정보를 담았다. 다음으로 각 도시들의 산업특화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고, 지급시 <13·5규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동북지역 4대 수위도시 외에 향후 북한과의 접경협력 거점인 단둥시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사도 추가하였다.

1. 랴오닝성 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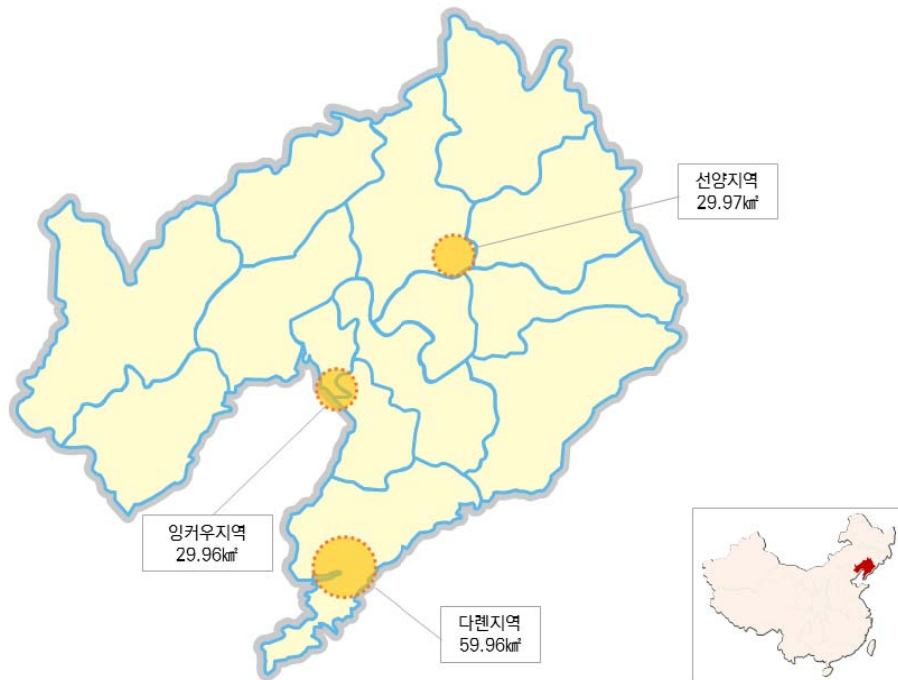
1) 도시 개요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동북지역의 정치·경제 중심 도시인 선양시는 2016년 기준 인구(730만명), 면적(12,948km)로 각각 랴오닝성의 17.3%, 8.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5,546억 위안으로 랴오닝성 내 2위, 동북지역 내에서 4위를 기록했다. 사회소비판매총액(3,986억 위안), 수출입(1,133,141만 달러)으로 랴오닝성 가운데 각각 30%, 13%를 차지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업, 항공장비가 주력 산업이며, 물류 및 현대서비스 등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선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군인 선양경제구가 2010년 국가신형공업화종합개혁시범구로 지정되었다. 중국 최초의 신형 공업화 육성시범구,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혁 선도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6년에는 ‘중국(선양)·독일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독일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선양시는 다롄, 잉커우와 함께 랴오닝자유무역시범구 지정되었다. 선양시가 한국과 맺고 있는 도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로는 대전(2003), 대구(2003), 광주(2007), 인천(2014) 등 4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맺고 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경북 구미시, 경기 성남시 등 8개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인천 동구와 선양 동령구는 자매우호 결연을 맺었다.

〈표 25〉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개요

구역	중점 육성 산업
다롄	• 항만물류, 금융 비즈니스, 선진장비제조, 하이테크, 순환경제, 운수서비스
선양	•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업, 항공장비 등의 제조업 •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잉커우	• 비즈니스물류, 국제 전자상거래, 금융 등 서비스업과 신세대 IT, 첨단장비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



- 다롄(大連), 선양(沈陽), 잉커우(營口)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성, 119.89km²의 면적
-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의 비전과 전략적 위상은 △시장지향적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추진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경쟁력 강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임
- 랴오닝 시험구는 동북의 노후된 공업을 첨단 장비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롄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물류센터와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교통 허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 참고

〈표 26〉 선양시 개요

위치	동북지역 남쪽 / 랴오닝성 성도			
기본 현황	행정구역	10구, 1현급시, 2현	GRDP(억 위안)	5,546
	인구(만명)	730	사회판매총액	3,986
	면적(km2)	12,948	수출입(만 달러)	1,133,141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업, 항공장비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정책 환경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양하이테크산업개발구(沈阳高新技术产业开发区) (1988년) 선양경제구 국가신행공업화종합개혁신범구 지정 (2010년) '중국(선양)·독일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조성 (2016년)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선양 다롄·잉커우) 지정 (2016년) 국가중심도시 및 국가 선도 제조업 기지 			
자매우호	광역	대전(2003), 대구(2003), 광주(2007), 인천(2014)		
	기초	경북 구미시(1997), 경기 성남시(1998), 강원 춘천시(1998), 충남 공주시(1999), 전북 군산시/전주시(2003/2006), 전남 광양시(2007), 경남 거제시(2011) 인천 동구-선양 동령구(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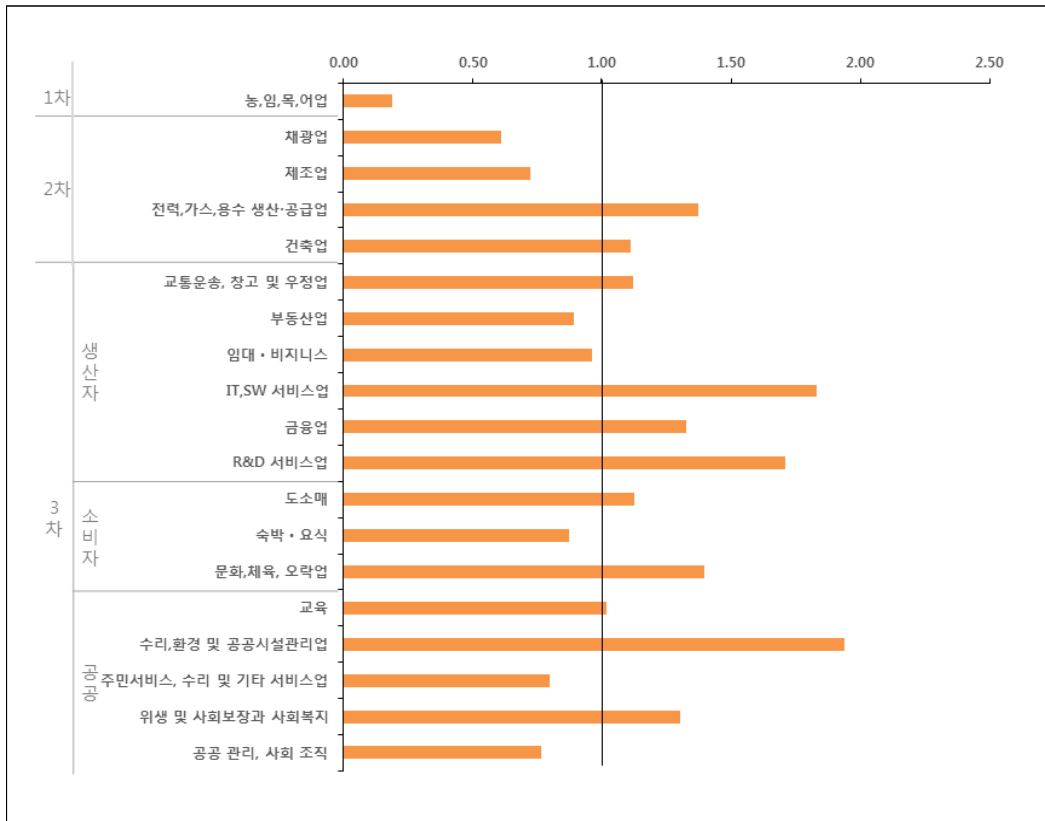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바이두(정책환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두피디아(지도)

2) 경제산업

(1) 산업구조

선양시 2016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수 수치를 활용하여 입지계수를 산출하면 다음 <그림 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선양시 산업 특화도 LQ를 살펴보면 2차 산업 가운데 에너지 생산·공급업종이 1.37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산업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 관련 업종이 대부분 특화되어 있다.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 금융업(1.33), R&D 서비스업(1.71), IT·SW(1.83)으로 특화되어 있다.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요식을 제외한 관련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림 35> 선양시 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주요 정책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3·5규획>기간 선양시는 제조업 질적 발전 추진과 서비스업 수준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선양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제조업기업 확대계획 전면 실시 스마트제조 업그레이드 신형-지속가능한2445'공업체계 구축 “중국제조2025” 시험 도시 건설 2020년까지 공업 부가가치 연평균 6.5%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성장거점: 스마트제조장비/항공장비 우위산업: 차세대정보기술(IT)/전력장비/자동차/기계장비 신흥산업: 현대건축산업·전용설비/첨단궤도교통장비/신소재/BIO제약·디지털의료 전통산업업그레이드: 야금산업/화학공업산업/BIO산업/방직업
서비스업 수준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발전을 위한 액션플랜 실시 서비스업 규모 확대·산업구조 최적화 2020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연평균 8% 이상 지역총생산 대비 50%,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연평균 11% 이상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서비스업: 금융/과학기술/무역/물류업 소비자서비스업: 무역유통업/관광업/보건/양로/가정/부동산 신흥 서비스업: 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양로/스마트관광/저탄소금융/환경보전

자료: <선양 13·5 규획> pp.33-39. 참고하여 내용 정리

선양시는 국가전략인 “중국제조2025”에 발맞추어 스마트제조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부가가치 연평균 6.5% 달성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주요 육성 산업으로는 스마트제조장비, 항공장비를 들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첨단궤도교통장비, 신소재, BIO·제약 등을 육성한다. 한편 서비스업 수준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업 규모 확대 및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2020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연평균 8% 이상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으로 무역 및 물류업, 소비자서비스업으로는 관광업, 보건, 양로, 부동산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유망업종으로는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관광, 환경 등을 들고 있다.

2. 랴오닝성 다롄시

1) 도시 개요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이자 랴오둥반도 남단부에 위치한 다롄시는 2016년 기준 인구(594만명), 면적(13,237km)로 각각 랴오닝성의 14%, 8.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은 6,810억 위안으로 동북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대외개방 출구, 국제물류 중심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다롄시 수출입 규모는 동북지역 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주변 도시와의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

산업 부분에서는 항만물류, 금융 비즈니스, 선진장비제조, 운수서비스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교 우위를 이용하여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육성하고 있다. 다롄시는 국가급 도시군 전략인 연해경제벨트의 중심도시이다. 그리고 2014년 동북지역 최초로 국가급신구인 진푸신구가 지정되었다. 2016년에는 랴오닝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되었다. 동북권역 거점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다롄시는 국제전자상거래시험지로도 선정되었다. 다롄 시정부는 시 <13·5규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회로 활용하여 다롄이 구비하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와 생산자서비스 강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롄시가 한국과 맺고 있는 도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인천(1994), 광주(2011) 등 2개 광역지자체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다. 기초지자체로는 전남 광양시, 경기 평택시 등 5개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다.

〈표 28〉 다롄시 개요

위치	랴오둥반도 남단부 /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			
기본 현황	행정구역	7구, 2현급시, 1현	GRDP(억 위안)	6,810
	인구(만명)	594	사회판매총액	3,410
	면적(km2)	13,237	수출입(만 달러)	5,236,462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 금융 비즈니스, 선진장비제조, 운수서비스 • 자동차, 선박, 해양플랜트 장비 제조업 •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하이테크 산업 발전 			
정책 환경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롄하이테크산업개발구(大连高新技术产业开发区) (1991년) • 『랴오닝연해경제벨트』 (2009년) • 다롄 진푸신구(金普新区) 지정(동북지역 최초 국가급 신구) (2014년)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선양·다롄·잉커우) 지정 (2016년) • 연해 지리 조건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 			
자매우호	광역	인천(1994), 광주(2011)		
	기초	전남 광양시(1999), 경기 평택시(2000), 제주도(2001), 강원 춘천시(2003), 경북 포항시(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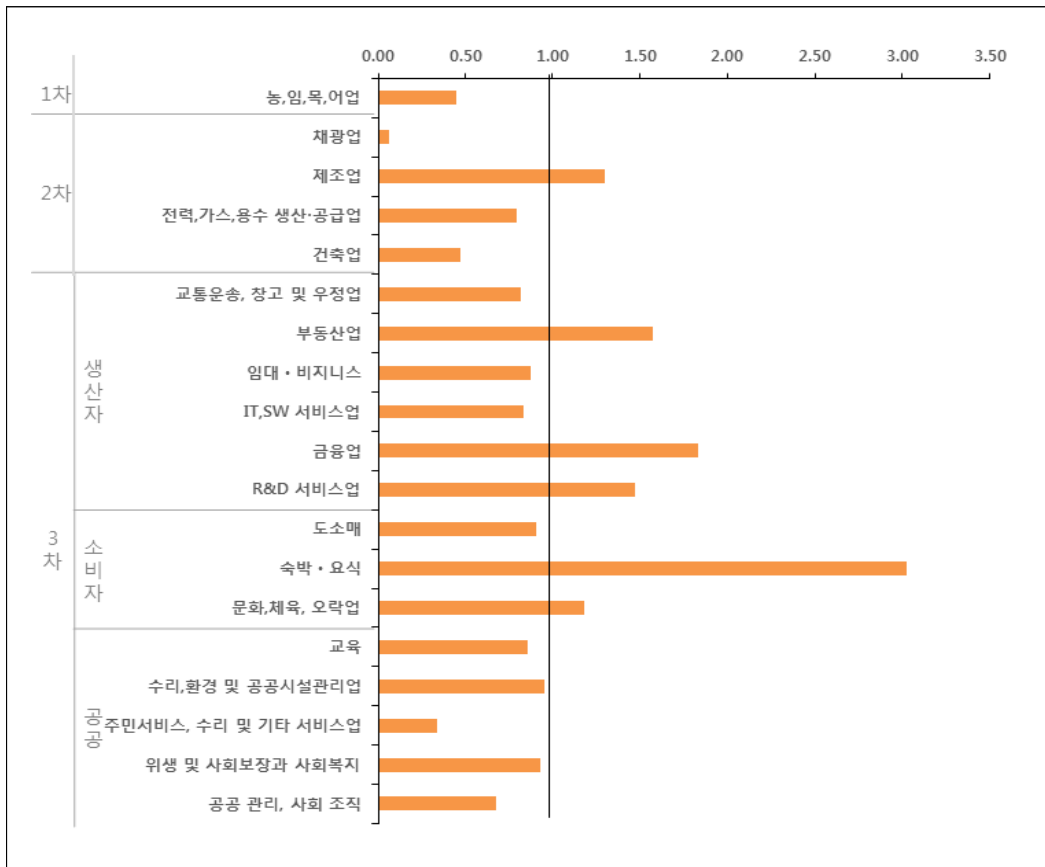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바이두(정책환경·특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두피디아(지도) 갈무리하여 작성

2) 경제산업

(1) 산업구조

다롄시 2016년 기준 LQ계수는 다음 <그림 36>과 같다. 다롄시는 2차 산업 가운데 제조업 (1.3)이 특화되어 있다. 3차 산업 생산자서비스업은 부동산업(1.57), 금융업(1.83), R&D(1.47) 업종이 특화되어 있으며, 소비자서비스업은 숙박·요식업업의 특화도가 3.02로 높다. 한편 공공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1 미만을 기록하였다.



<그림 36> 다롄시 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주요 정책

〈13·5규획〉기간 다롄시는 현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업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해양경제 육성에 대한 경제산업·정책방향 과제를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다롄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현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서비스·소비서비스 우선발전 전략 실시 • 전통서비스 + 현대서비스 병존 • 서비스경제 선도하여 산업구조 조정 • 동북아지역서비스업 중심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금융/정보/관광/무역유통/보건
제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제조2025”다롄 액션플랜 실시 • 정보화공업화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제조 육성 • “인터넷플러스” 전략 적극 추진 • 제조업혁신중심 건설 가속화 • 경공업진흥계획 실시하여 첨단소비재 산업 기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공작기계·로봇/선진교통장비/첨단기술 선박·해양공정/녹색석유화학/첨단소비품
전략적 신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을 두 자릿수 성장 목표 •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량이 되어 국내선두 신흥산업클러스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회로/차세대정보기술(IT)/신에너지·에너지저장장비/BIO의약품/신에너지차/신소재/통용항공/환경보존 산업
해양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전통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 • 해양서비스업 발전 • 해양자원대도시—해양경제우수도시로 전환 • 국내 일류 현대해양경제발전 시범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해양산업 최적화(다롄시현대해양목장 창하이시범구 건설) • 해양서비스업(해양관광) • 신흥해양산업(해양BIO의약, 해양기능식품)

자료 : <다롄 13·5 규획> pp.31-42. 참고하여 내용 정리

다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현대 서비스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육성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제조2025” 다롄 액션플랜을 실시하여 정보화·공업화 융합을 통한 스마트제조를 육성하고자 한다. 관련 산업으로는 선진교통장비, 첨단기술선박·해양공정 등이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으로는 차세대 IT, 신에너지, BIO의약품 등이 있다. 동북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다롄시만 해양경제 산업 정책 방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롄시는 〈13·5규획〉기간 해양전통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관광, 해양 BIO의약 및 해양기능식품을 육성 방안이 제기되었다.

3. 지린성 창춘시

1) 도시 개요

지린성의 성도이자 동북 내륙 중심지인 창춘시는 2016년 기준 인구(754만명), 면적(20,565km)로 각각 지린성의 29.1%, 10.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5,928억 위안으로 지린성 내 1위, 동북지역 내에서 3위를 기록했다. 사회소비판매총액(2,650억 위안), 수출입(1,416,291만 달러)은 지린성 가운데 각각 36%, 80%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부분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의약 제품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창춘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생산능력이 연간 260만대 수준이며 중국 기차생산 본거지로 중국 객차의 44%가 창춘에서 생산되고 있다.

창춘시 정책환경을 살펴보면 2009년 비준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건설을 통해 창춘-지린을 중심으로 하여 옌지, 훈춘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창춘-지린 도시군의 대외연계성 강화와 동북지역 물류허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창지투개발계획은 2007년 동북지역 진흥 종합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성급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2009년 국가 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다. 한편 2016년에는 17번째 국가급 신구로 창춘신구(长春新区)가 지정되었다. 창춘을 중심으로 주변도시와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과의 도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는 울산(1994) 하나의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맺었다. 한편 기초지자체로는 강원 태백시, 전북 전주시, 경기 성남시 등 4개 지자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표 30〉 창춘시 개요

위치	지린성 성도 / '자동차 도시(汽车城)'			
기본 현황	행정구역	7구, 2현급시, 1현	GRDP(억 위안)	5,928
	인구(만명)	754	사회판매총액	2,650
	면적(km2)	20,565	수출입(만 달러)	1,416,291
산업	• 자동차, 화학, BIO, 정보통신, 의약			
정책 환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춘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长春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1991년)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창춘-지린-투먼) (2009년) • '창춘신구(长春新区)' 지정 (2016년) • 창춘시의 완성차 생산능력은 연간 260만대 수준 • 중국 기차생산 본거지(중국 객차의 44% 창춘에서 생산) • 창춘객차공장(중국 최대 철도(전공)객차 생산기지 소재) 			
자매우호	광역	울산(1994)		
	기초	강원 태백시(2003), 전북 전주시(2006), 경기 성남시(2009), 경북 포항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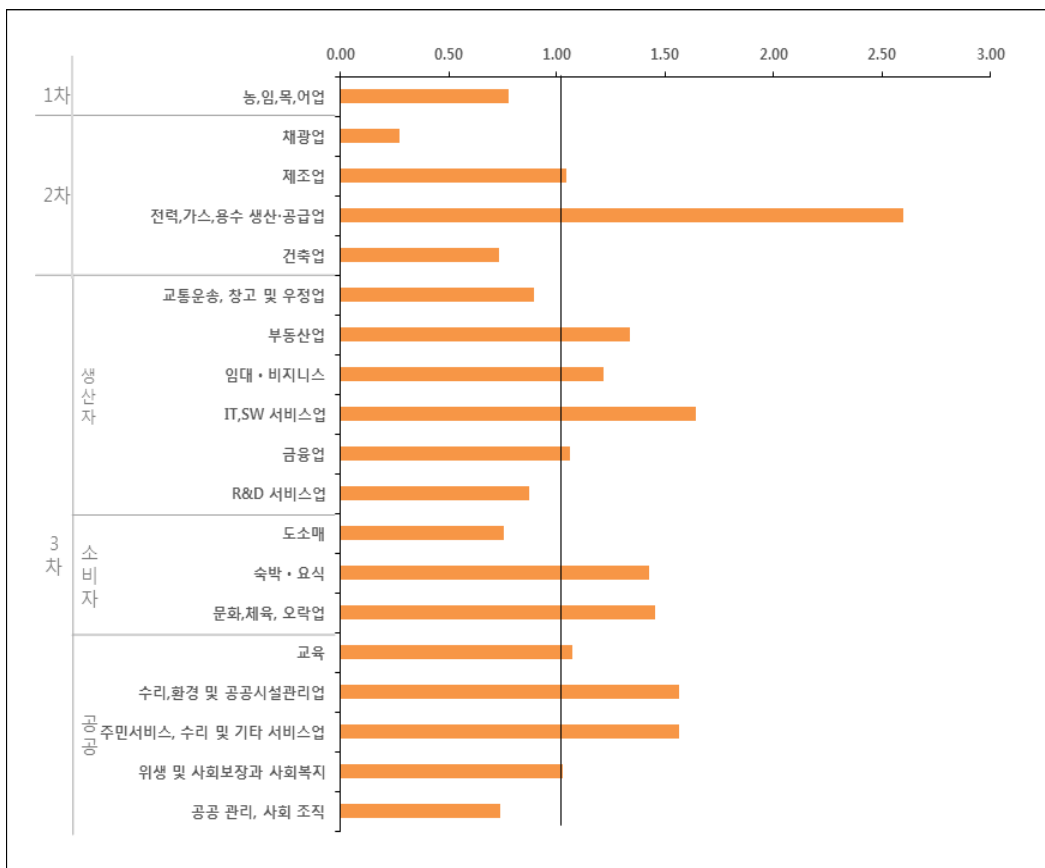


자료 : 『吉林统计年鉴(2017)』, 바이두(정책환경·특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두피디아(지도), 코트라 〈중국 성·시·별 진출정보(2018)〉 갈무리하여 작성

2) 경제산업

(1) 산업구조

창춘시 2016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수 수치를 활용하여 입지계수를 산출하면 다음 <그림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창춘시는 2차 산업 가운데 전력생산 업종이 2.6으로 특화되어 있다. 3차 산업 가운데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교통운수, R&D서비스업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1이상으로 특화되어 있다. 소비자서비스업은 숙박·요식과 문화·체육·오락이 각각 1.43, 1.45로 특화되어 있다.



<그림 37> 창춘시 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주요 정책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3·5규획>기간 창춘시는 제조업고도화를 중심으로 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및 현대 서비스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창춘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강세 도시 제조업 스마트화, 녹색화, 서비스화 발전 자동차, 농산품가공, 궤도열차 3대 중점 산업으로 시 전체의 공업 비중 79% 차지 2020년까지 공업고정자산투자 연평균 10% 이상 증가 동북아선진제조업 기지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위산업 : 자동차산업연구개발생산기지 건설(차정비, 부품)/농산물가공업개발생산기지 건설(육수수목축업, 식품)/국제궤도교통설비산업연구개발산업기지 건설(차정비, 부품)
전략적 신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전환을 위한 산업발전 공간 확대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을 공업 비중에서 30% 이상 증가 동북아신흥산업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장비제조업/BIO보건/에너지정보/BIO제조/신에너지·신에너지자동차/신소재
현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서비스업 동시 성장 생산자서비스업 전문화·가치사슬 첨단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서비스시범구 조성 동북아 지역 서비스 중심 도시 2020년까지 GDP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 47%, 서비스업 대비 생산자서비스업 55%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서비스업 : 금융/정보기술/문화창의성/현대물류/인력자원 소비자서비스업 : 현대무역/관광·보건·양로/부동산

자료 : <창춘 13·5 규획> pp.44-57. 참고하여 내용 정리

창춘시 <13·5규획>기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관련하여 창춘시 역시 “중국제조2025” 전략에 발맞추어 제조업 스마트화, 녹색, 서비스화 발전을 추진하며 동북아선진제조업 기지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연구개발생산기지 건설, 국제 궤도교통설비 산업연구개발 산업기지 구축 방안이 제기되었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동북아신흥산업기지 조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공업 비중을 30% 이상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관련 산업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 선진장비제조업 등이 있다. 창춘시는 생산자서비스업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시범구를 조성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GDP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를 47%, 서비스업 대비 생산자서비스업을 5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금융, 정보기술 등 생산자서비스업 및 관광, 보건·양로의 소비자서비스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1) 도시 개요

헤이룽장성의 성도이자 러시아 협력 중심 도시인 하얼빈시는 2016년 기준 인구(961만 명), 면적(53,076km)로 각각 헤이룽장성의 26.2%, 11.3%를 차지한다. 지역내총생산은 6,102억 위안으로 헤이룽장성 내 1위, 동북지역 내에서 다롄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사회소비판매총액(3,744억 위안), 수출입(391,525만 달러)로 헤이룽장성 가운데 각각 46%,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중국 주요 석유공업기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석유화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계설비, 전력설비, 항구설비, BIO의약에 주력하고 있다. 하얼빈시는 일대일로 전략에 발맞추어 2015년 <중-몽-러경제회랑 헤이룽장육해상 실크로드경제벨트(中蒙俄经济走廊 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를 발표하였다. 하얼빈시는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헤이룽장성에 하얼빈신구(哈尔滨新区)가 지정되었다. 2016년에는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급 서비스무역혁신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하얼빈시는 인천과 2009년 우호결연을 맺었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부천시(1995), 서울중구(2009)등과 교류하고 있다.

〈표 32〉 하얼빈시 개요

위치	동북아 중심부 위치 / 헤이룽장성 성도			
기본 현황	행정구역	9구, 2현급시, 7현	GRDP(억 위안)	6,102
	인구(만명)	961	사회판매총액	3,744
	면적(km2)	53,076	수출입(만 달러)	391,525
산업	석유화학, 기계설비, 전력설비, 항구 설비, BIO의약			
정책 환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얼빈하이테크산업개발구(哈尔滨高新技术产业开发区) (1991년) • 하얼빈신구(哈尔滨新区) 지정 (2015년) •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中蒙俄经济走廊 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 발표 (2015년) • 서비스무역혁신시범도시 지정(동북지역 유일) (2016년) • 대 러시아 협력 중심 도시 			
자매우호	광역	인천(2009)		
	기초	경기 부천시(1995), 서울 중구(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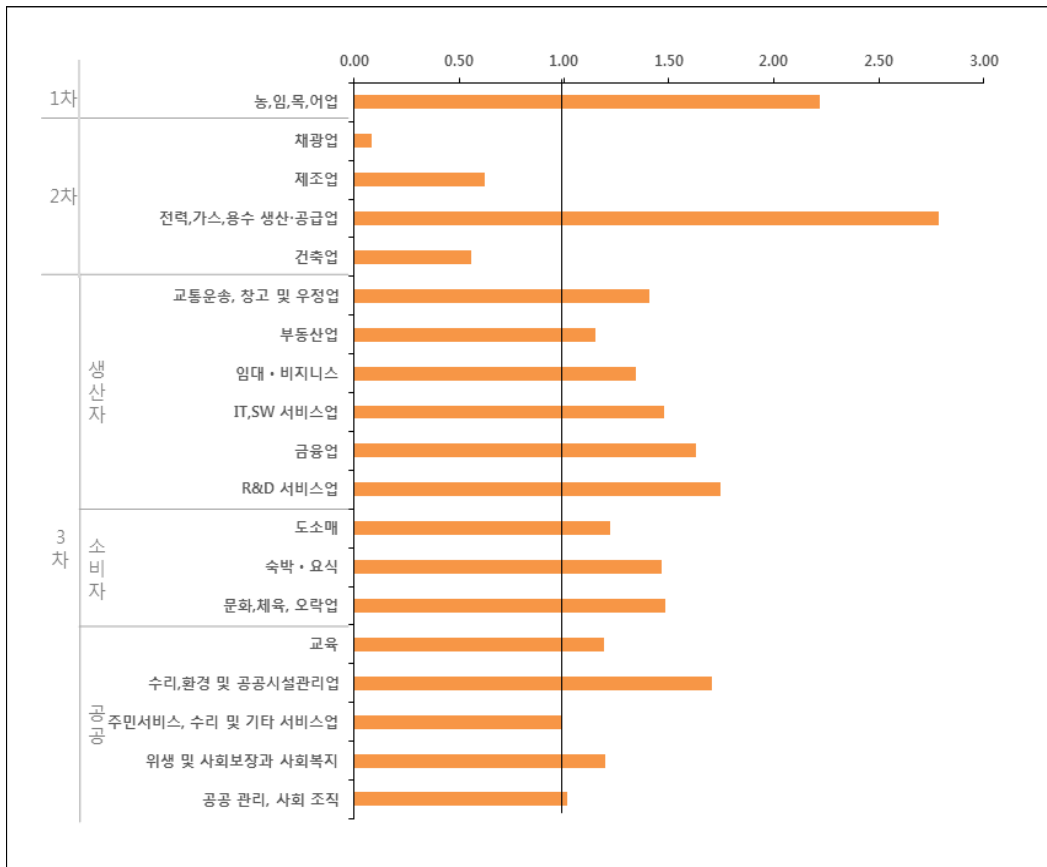


자료 : 『黑龙江统计年鉴(201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바이두(정책환경·특징), 두피디아 (지도) 갈무리하여 작성

2) 경제산업

(1) 산업구조

하얼빈시는 1차 산업 LQ가 2.22로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전력설비 생산 중심지인 하얼빈시는 전력,가스,용수 공급업이 2.78를 기록했다. 3차 산업의 경우 소비자/생산자서비스업 모든 업종에 걸쳐 1이상의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 IT산업(1.48), 금융업(1.63), R&D 서비스업(1.75)로 특화도가 높다.



〈그림 38〉 하얼빈시 산업 LQ(2016년)

자료 :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주요 정책

하얼빈시 <13·5규획>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 서비스업 가속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얼빈시 “중국제조2025”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공업부가가치 연평균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제품, 음료가공 등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IT/BIO, 신소재, 친환경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신범지로서 2020년까지 GDP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5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동북아물류허브·MICE 거점을 구축하며 국제관광산업을 집중 발전시킨다.

<표 33> 하얼빈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발전 가속화로 새로운 동북 구공업 기지 진흥 전략 실현 <하얼빈시“중국제조2025”행동계획> 실현 2020년까지 공업 부가가치 연평균 7%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위산업 : 식품산업(식물유가공, 현대식품가공, 유제품가공, 음료가공)/첨단장비제조업(민용항공, 자동차제조업, 신에너지장비, 스마트제장비, 해양장비, 신형농업기계장비, 석유화학공업) 신흥산업 : IT산업(전자정보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위성), BIO산업(BIO의약, BIO농업, BIO제조), 신소재산업(그래핀·탄소, 고성능금속신소재, 고성능섬유·복합소재, 화학공업신소재, 반도체신소재), 환경절약산업(환경보호절약기술장비, 환경절약식품)
현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신범 심화 생산자서비스업 전문화 가치사슬 첨단화 소비자서비스업 정밀화·고품질 전환 동북아 지역 서비스 중심도시 건설 2020년까지 GDP 대비 서비스업부가가치 55% 달성 서비스업 증가치 대비 금융, 과학기술 등 현대서비스업 부가가치 45% 비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서비스업: 동북아중요물류중심 건설, 동북아 중요비즈니스컨벤션 건설 소비자서비스업: 빙동국제관광문화유명도시 건설, 국제보건서비스기지 건설 신흥 서비스업 : 금융, 문화관광, 현대물류, 비즈니스 컨벤션, 무역, 보건

자료 : <하얼빈 13·5 규획> pp.29-45. 참고하여 내용 정리

5. 랴오닝성 단둥시

1) 도시 개요

〈표 34〉 단둥시 개요

위치	랴오둥 반도의 동남부/ 환발해, 황해경제권의 중요 교차점			
기본 현황	행정구역	3구 2현급시, 1자치현	GRDP(억 위안)	751
	인구(만명)	238	사회판매총액	542
	면적(km2)	15,222	수출입(만 달러)	397,789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제어 시스템, 설비 전문용도의 계기, 전자 검측계기, 의료, 과학 검측계기, 센서 제조 			
정책 환경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둥변경경제합작구(丹东边境经济合作区) (1992년)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표 (2009년) 단둥하이테크산업개발구(丹东高新技术产业开发区) (2012년) 중국-북한, 랴오닝-북한간 무역 창구 지리상 북한과 인접, 북한과의 비즈니스 활발 			
자매우호	광역	인천(1995)		
	기초	경기 의정부시(1996), 전남 순천시(2003), 전북 군산시(2009/2015) 인천 서구-단둥 동강시(1998)		



자료 : 『辽宁统计年鉴(2017)』, 바이두(정책환경·특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등

북한 접경도시 및 환발해, 황해경제권의 중요 교차점인 단둥시는 2016년 기준 인구(238만명), 면적(15,222km)로 각각 랴오닝성의 5.6%, 10.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751억 위안으로 랴오닝성 14개 지급시 가운데 9위를 기록하였다. 사회소비판매총액(542억 위안), 수출입(397,789만 달러)로 각각 랴오닝성 가운데 4%, 5%의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제어 시스템 및 전차 검측계기, 과학 검측계기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1992년 국가급 경제개발구인 단둥경제협력합작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연해경제벨트에 포함되었다. 단둥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변경시범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단둥시는 인천과 1995년 우호결연을 체결하였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 의정부시(1996), 전남 순천시(2003) 등 3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맺었다. 또한 인천 서구-단둥 동강시와 1998년에 교류를 맺었다.

2) 경제산업

단둥시는 <13·5규획>기간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관광산업 집중 육성 등의 경제산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5〉 단둥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제조2025”를 통한 신홍공업화 견지 전통산업 구조 조정 최적화 신홍산업을 통한 특색 산업 클러스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우위산업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광산 자원 개발 및 가공업 심화, 농식품가공업, 방직의류업 전략적 신홍산업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자정보 및 스마트장비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산업, BIO 기술산업 특색산업 : 자동차 및 부품, 계측 기기, 섬유보호제품, 비금속신소재, 정보기술서비스, 공예미술품
서비스업 구조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생산자서비스업 적극 발전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서비스업 : 현대물류, 과학기술, 금융, 정보, 비즈니스 컨벤션 소비자서비스업 : 무역유통, 부동산, 보건·양로
관광 산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의 장소성, 교통 물류 허브 강점 활용 압록강 국제 관광 브랜드 구축 단둥 관광 지명도 제고 	

자료 : 〈단둥 13·5 규획〉 pp.23-29 정리

단동시는 스마트제조업그레이드를 강조, 자동차·부품제조업, 방직의류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략적 신항산업으로는 스마트 장비, 신소재, BIO기술 등을 들고 있다. 현대물류, 과학기술, 금융 등 생산자 서비스, 무역유통, 부동산 등 소비자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접경의 장소성과 교통 물류 허브 강점을 활용하여 압록강국제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6.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1) 도시 개요

지린성 동부에 위치해있으며 중국의 접경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재중동포가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다. 2016년 기준 인구(145만명), 면적(43,300km)로 각각 지린성의 5.6%, 22.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875억 위안으로 지린성 5.6%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소비판매총액(531억 위안), 수출입(134,700만 달러)은 지린성 가운데 각각 7%, 8%를 기록했으며 낙후된 지역경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관련하여 광산, 장비 제조업, 목재품 가공업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 환경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주도로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IT)이 출범되었고 2009년 창춘-지린-투먼에서 북한 및 러시아를 통해 해양 출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한편 2012년에는 훈춘 지역에 국제합작시범구를 설립하여 동북공업기지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내륙 변경지역의 개발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동북지역의 중요한 경제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자 했다. 같은 해 포스코가 훈춘 지역에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를 건설했다. 목재·곡물·수산물·사료·자동차부품 등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를 훈춘 국제물류단지에서 보관, 재가공해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운송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⁴⁴⁾

44) 동아일보 기사 참고하여 정리(<http://news.donga.com/3/all/20120910/49291651/1> 검색일:2018-11-6)

〈표 36〉 옌볜조선족자치주 개요

위치	지린성 동부 위치 / 중국의 접경지역			
기본 현황	행정구역	6현급시, 2현	GRDP(억위안)	875
	인구(만명)	145	사회판매총액	531
	면적(km2)	43,300	수출입(만달러)	134,700
산업	광산, 장비 제조업, 의약, 목제품 가공업, 섬유			
정책 환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먼경제개발구(图们经济开发区) 발표 (성급 경제개발구) (1992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출범 (2005년) • 옌지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延吉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2010년)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창춘-지린-투먼) 발표 (2009년) • 훈춘국제합작시범구(珲春国际合作示范区) (2012년)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건설 (2012년) 			
자매우호	광역	충남(2002), 강원(2015)		
	기초	서울 구로구(2014) 인천 서구-옌볜 옌지시(1998), 인천 남동구-옌볜 룡징시(2016)		



자료 : 『延边州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매우호), 바이두(정책환경·특징), 두피디아(지도) 갈무리하여 작성

엔벤조선족자치주와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활발하다. 광역지자체는 충남(2002), 강원(2015) 2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를 맺었다. 기초지자체는 서울 구로구(2014) 하나의 도시와 교류 협력을 맺었다. 또한 인천 서구-엔벤 엔지시(1998), 인천 남동구-룡징시(2016)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었다.

2) 경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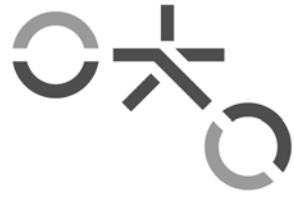
〈13·5규획〉기간 엔벤조선족자치주는 제조업 녹색 구조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업 구조 최적화에 대한 경제산업·정책방향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7〉 엔벤조선족자치주 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정

방향	주요 내용	주요 산업
제조업 녹색 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구동 발전 •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발전 • 생태보건산업 우선 발전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보건산업 : 식품산업(백두산생태식품, 민족식품, 백두산광천수, 해산물, 축산물, 음료), 의약산업(현대 중의약, 생물자원추출물, 농업BIO제품), 정보산업(정보기술응용, 클라우드컴퓨팅, 전자제품가공) • 전통산업 개조 : 목제품가공업(통나무집, 원목창문, 원목맞춤가구), 에너지산업(신에너지, 현대화탄광구, 오일세일채광가공업), 야금광산업(금속정밀가공, 고부가가치금속 및 합금 재료), 장비제조업(농업기계, 전용설비, 자동차부품), 건재공업(전통건재-환경보호건재)
서비스업 구조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서비스업 전문화·가치사슬 첨단화 • 소비자서비스업 정밀화·고품질 전환 •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 대비서비스업 부가가치 45% 이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서비스업 : 현대물류, 전자상거래, 금융업, 무역, 과학기술 • 소비자서비스업 : 관광, 양로, 의료, 문화산업, 무역유통

자료 : 〈엔벤조선족자치주 13·5 규획〉 참고하여 내용 정리

엔벤조선족자치주 〈13·5규획〉에서는 제조업 녹색 구조 고도화와 서비스업 구조 최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녹색 구조 고도화를 통해 생태보건산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으로는 생태보건산업으로 식품산업, 의약산업, 정보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통산업 개조를 통해 목제품 가공업, 에너지 산업, 장비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세웠다. 서비스업 구조 최적화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45%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현대물류, 전자상거래, 금융업 등이 있으며 소비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관광, 의료, 문화산업 등을 육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V

결론: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종합

제2절 인천-동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V. 결론: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 종합

1. 국가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연동한 동북지역 개발 정책 흐름

동북진흥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역 발전패러다임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권역별 발전전략 기조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동북진흥전략이 개시되었다. <12·5규획>기간 도시군 위주의 발전전략에 따라 동북3성은 성장거점으로서 성별 도시군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이 같은 도시군과 그 중심도시에 대한 경제역량이 집중되었다.

<13·5규획>기간 일대일로와 연계한 서향(西向)대외 교통·물류 루트 개척이 본격화되었다. 각 성의 주요 도시들은 이 같은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북핵 실험 등으로 인해 경색되었던 북중관계 속에서 동북지역과 한반도 간의 접경협력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북한을 통한 출해항구 개척 구상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중협력 재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북중 접경인 단둥 및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 동북3성 경제·산업 특징

동북3성의 경제규모와 성장세를 비교해 보면 랴오닝성 선도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 부문에 있어 연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내륙의 지린성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비록 동북3성이 사회주의 중국의 중공업 기지로 육성되었지만 각 성간의 산업체계의 고도화 수준 및 특화도 차이 역시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랴오닝성의 경우 2차 산업의 제조업 기반이 견조하며 중고위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다. 3차 산업 가운데

생산자·소비자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지린성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과 BIO산업이 특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2차 산업 가운데 중저위기술 산업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지린성의 경우 성도인 창춘시가 단일 경제거점이라는 특징이 명확하다.

원전이 있고 부존지하자원이 풍부한 헤이룽장성의 경우 에너지 생산·공급업 제조업이 발달했고 이와 관련된 R&D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또한 의약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

3. 동북 지급시 경제역량 비교

동북 지급시 경제역량을 비교해 보면 각 성 주요 도시와 기타 지급시 간 경제역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대 수위도시의 GRDP, 소비·대외경제 선도성이 뚜렷하다. 각 성 수위도시의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동북지역 정치·경제 중심인 선양시는 중공업 위주 2차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북한 지방외교 중심지라는 특징을 지닌다.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인 다롄시는 환발해 권역 국제·항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 및 제조업 등 중공업이 발전해 있으며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동북 내륙 제조업 중심지인 창춘시는 자동차·BIO 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으며, 북한을 통한 출해루트의 중심지이다. 동북부 중심 도시인 하얼빈시는 에너지 업종 발달이 발달해 있고 관련 생산자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 교류·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북한 접경도시인 단둥시는 대북 인프라·인적 자원 풍부하며, 북한 신의주와의 초국경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조선족 집거지인 옌볜조선족자치주는 한반도 교류협력 인문자원이 풍부하다. 대북 협력 거점·동북의 출해루트로서 훈춘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

〈표 38〉 동북 지역 발전전략·경제/산업 분석 종합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동북지역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역 발전패러다임과 연동한 동북진흥전략의 단계적 변화 • 동북3성 성별 도시군 집중 육성. 지역 성장거점 육성 • 일대일로와 연계한 서향(西向)대외 교통·물류 루트 개척 • 최근 북중협력 재개에 따른 단둥,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목 	
2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랴오닝성 선도성 뚜렷. 대외경제 부문 성 간 격차 큼 • 산업체계의 고도화 수준 및 특화도 차이 큼 	
		성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랴오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산업 : 제조업 기반 견조. 중고위기술 산업 발달 - 3차 산업 : 생산자·소비자서비스업 특화 • 지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BIO 특화. 중저위기술 산업 발달 - 창춘시 단일 경제거점 • 헤이룽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생산·공급업 제조업 및 관련 R&D 특화 - 의약제조업 발달 - 농업 비중 큼
3	동북 지급시 경제산업 역량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성 주요 도시와 기타 지급시 간 경제역량 차이 큼 • 4대 수위도시의 GRDP/소비·대외경제 선도성 뚜렷 • 각 성 수위도시의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주요 도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지역 정치·경제 중심 - 중공업 위주,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 발달 - 한국·북한 지방외교 중심지 • 다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지역 대외경제 선도 도시 - 환발해 권역 국제·항만 물류 허브 - 중공업 발전,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 특화 • 창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내륙 제조업 중심지 - 자동차·BIO 고도 특화 - 북한을 통한 출해루트의 중심 • 하얼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부 중심 도시 - 에너지 업종 발달. 관련 생산자 서비스업 특화 - 러시아 교류·비즈니스 거점 • 단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접경도시 - 대북 인프라·인적 자원 풍부 - 북한 신의주 초국경 협력 지대 • 연변조선족자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족 집거지 - 한반도 교류협력 인문자원 풍부 • 대북 협력 거점·동북의 출해루트

제2절 인천-동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1. 기본 방향

1) 방향 및 과제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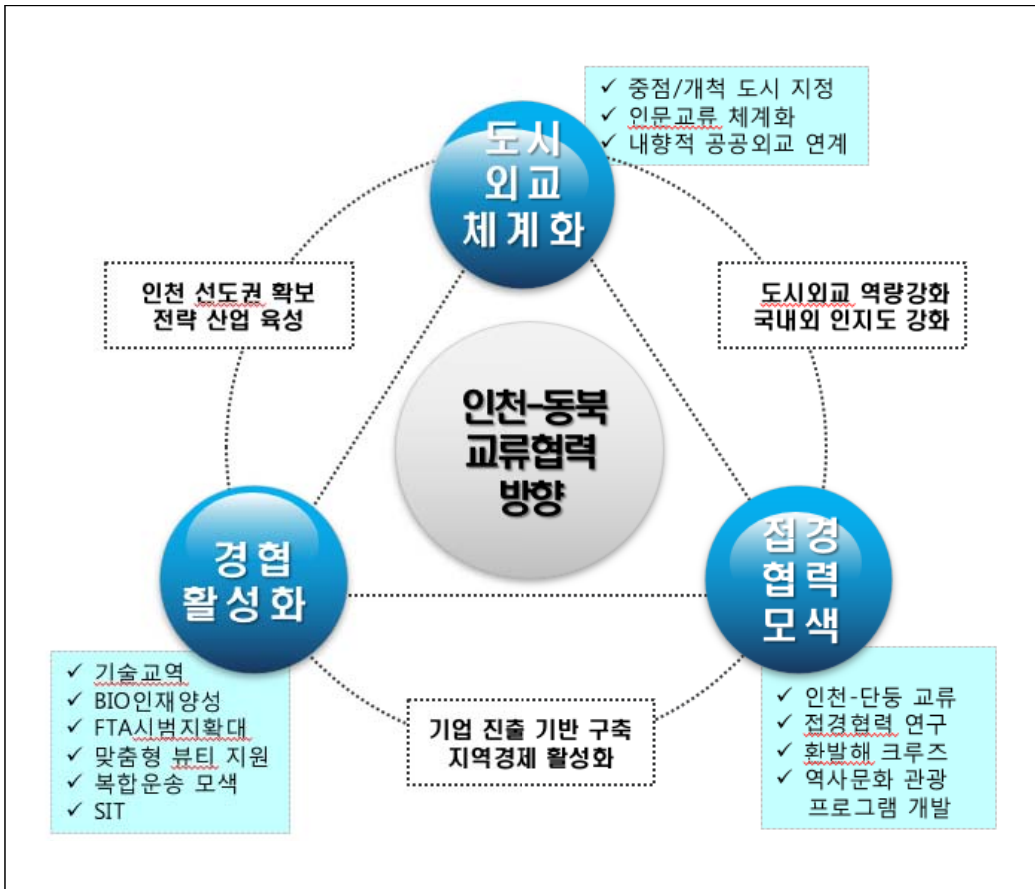
본문의 동북지역 지역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현황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천-동북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과 같은 전문가 자문과 실무자 면접 조사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 현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연구 과정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정에 부합하는 교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39〉 면접조사 개요

	대상	주요 내용	주요 참석자	유형	일시
1	현지전문가 자문	동북 경제산업 현황 소비재 진출 여건 및 특이점	코트라 다롄무역관장 및 직원	면접	0427
2	중국 공무원 면접조사	다롄시의 지역 위상 및 특징 인천-다롄 교류협력 과제	다롄 방인 공무원	면접	0730
3	교류기관실무자 면접조사	기관별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인천관광공사 인천대중국학술원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인천지부	면접	0824
4	공무원 면접조사	동북 교류현황 및 계획 시 추진 주체 및 체계 평가	시 국제협력과장, 중국팀장, 팀원	면접	1106
5	중국 학자 좌담회	중국 동북지역 문화산업 현황 인천-동북 관광 교류 방안 검토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진	면접	1112
6	전문가 자문	인천-중국 동북 경험 및 접경협력 방향과 사업안 검토	코트라인천지원단 뷰티업체중국법인장 국책기관 연구자 시도연구원 연구자	유선	1127

2) 교류협력 방향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교류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천-동북 지역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도시외교 체계화가 필요하며 ② 인천-동북지역 경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③ 한반도-중국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인천-중국 동북지역 교류협력 기본 방향

(1) 도시외교 체계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인천시는 중국 동북지역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
- 이 같은 도시외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리적 인접성 및 교통물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중점 교류 대상 지정 필요
- 지역 기관 및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과의 교류활동 파악을 통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중국동포 집거지인 동북지역의 특성에 주목하여 지역 거주 동포를 통한 도시외교 방안 모색

나. 주요 과제

- ① 중점교류지역과 개척지역 지정을 통한 내실있는 도시외교 추진
- ② 인천 지역 기관·대학의 동북 인문교류 사업 공조 및 협력
- ③ 중국동포·유학생 내향적 공공외교 추진 및 연계 도시마케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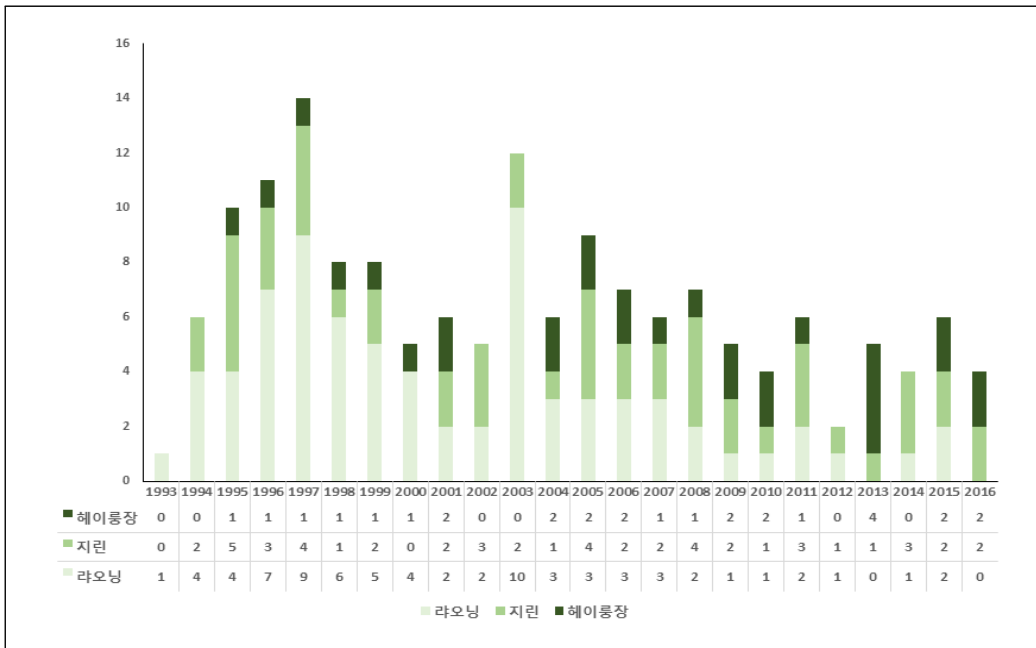
다. 기대효과

- 형식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넘어서 경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남북·중 접경협력을 위한 인적·조직적 토대 마련
-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약화된 인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역량 보완



〈그림 40〉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분포 현황

자료 :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



〈그림 41〉 동북지역 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 정리

(2) 경험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동북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고도화 추세에 맞춘 경험 분야 개척
- 인천-동북 공통의 전략 산업을 활용한 협력사업 모색
- 환황해권 해운·물류 중심지 여건을 활용한 통관 편리성 제고
- 북방 초국경 교통물류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운송시스템 및 루트 창출
- 동북지역 기업 특성을 고려한 관광 아이템 기획

나. 주요 과제

- ① 기술 교역을 통한 산업협력
- ② BIO산업 정보·기술 교류 및 인재 공동양성
-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 경험 및 성과 확대 적용
- ④ 현지 맞춤형 소비재·뷰티 진출 지원
- ⑤ 해륙복합운송시스템 적용 모색
- ⑥ 특수목적관광을 통한 동북지역 관광·MICE 확대

다. 기대효과

- 인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역외 경제영토 개척
- 인천 전략 육성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 요인 제공
- 대중국 물류·교통 중심지로서의 인천 이니셔티브 확보

(3) 접경 협력 모색

가.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북중 접경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북중 교류의 확대는 북한 개방 및 시장화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산업 의존의 심화와 구조화의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
- 북중 접경인 단둥-신의주 일원에서의 초국경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나. 주요 과제

- ① 인천-단둥 도시교류 재개
- ② 인천-단둥-신의주 협력방안 연구
- ③ 환발해 남북·중 크루즈 루트 개척
- ④ 남북·중 역사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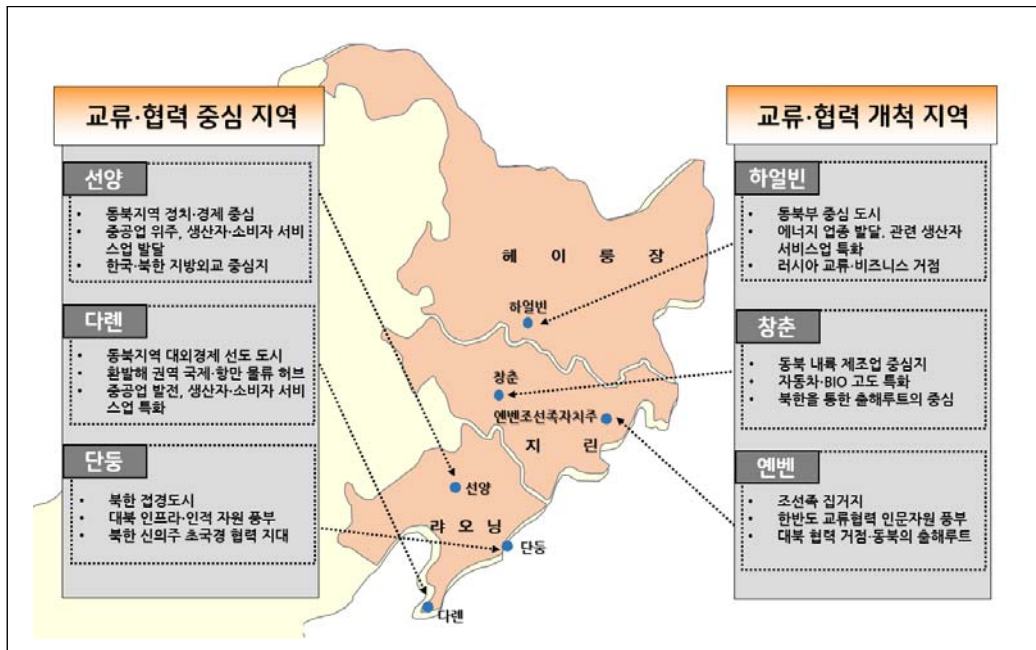
- 인천 기업의 대북사업 진출 루트 다양화 기반 마련
- 지역 참여 역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U턴 기업 유치
- 도시개발 및 정책 경험을 활용한 역외 인프라·산단 개발 가능성 탐색
- 남북중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평화경제 활성화

2. 분야 별 주요 과제

1) 인천-중국 동북 도시외교 체계화

(1) 중점·개척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시는 동북지역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동북의 정치·경제 중심인 선양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대외개방 선도 도시인 다롄, 북부 중심도시 하얼빈 그리고 북한 접경인 단둥시와 우호도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지린성 창춘시와는 우호도시 전 단계인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한반도 동부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직접적인 도시외교 관계는 없지만 조선족 자치구역으로서 갖는 인적·문화자원에 대한 고려에 바탕을 두고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인천 대 동북지역 교류협력 중심지/개척지 분포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 각 성간 경제·산업 격차가 크고 지역의 경제역량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랴오닝성의 선양시·다롄시와 지린의 창춘, 헤이룽장의 하얼빈 간 경제 역량 차이가 크다.

인천과의 도시 파트너십 인프라, 경제산업 역량 수준, 물류 등 산업 연계성, 대북 접경협

력 사업을 위한 지리적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천의 대 중국 동북지역 교류·비즈니스는 선양시를 축으로 한 다렌, 단둥의 삼각지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권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류협력 및 연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9년부터 실행될 인천시 선양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용하여 활동의 교두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⁴⁵⁾ 한편 창춘과 하얼빈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교류·협력 개척 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2) 인문교류 체계화

한중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등 연성(延性)자산에 바탕을 둔 인문교류는 인천-중국 동북지역 도시외교의 중요한 분야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속에서 지역 대학 및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 동북지역 인문유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로 북한과의 남북·중 인문교류 플랫폼 구축을 기대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재 연변대학 및 산하 조선반도연구원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⁴⁶⁾

인천-중국 동북 인문교류와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유사한 분야의 경우 지역 대학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 규모의 확대와 내용의 내실화 그리고 효과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연계 지역의 차원에서 보면, 인천이 속해 있는 환황해권역의 랴오닝 지역과 인문교류 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천 강화도의 고인돌, 성곽 등 고대 유적의 기원을 랴오닝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⁴⁷⁾

45) 다렌시와 실행해 왔던 공무원 교류사업의 대상지를 2019년부터 선양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인천시 관계자 인터뷰(2018년 11월 16일)

46)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해외분소를 연변대학 훈춘캠퍼스에 설치하였고, 인천대 통일후통합연구원은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연변대가 참여하는 남북중 문화연구플랫폼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 연구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인천대 중국학술원과 인천문화재단 관계자 인터뷰 (2018년 8월 24일)

47) 인천 강화도 고대 유적과 랴오닝성 일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 및 랴오닝사회과학원 학자 인터뷰에서 집중 논의 되었다. (11월 12일)

〈표 40〉 중국 연변자치주 주요 교육·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중국 연변대학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설립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 지역에 최초로 세운 대학>
	위치	중국 동베이지방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면적	296만 제곱미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년 문리학, 이공학, 의학, 농학전과 4개 학부로 출범• 1958년 의학부와 농학부가 각각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공학원으로 독립• 1996년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사범고등전과학교, 길림예술학원 연변분원 합병하여 새로운 연변대학 건설• 1996년 10월 중외합작운영기구인 연변과학기술대학 합병	
	박사, 석사연구생(4,000명), 학부생(18,605명), 전문대학생(414명) 평생교육학원(20,740명), 유학생(481명)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개 국가, 2개 지역(홍콩, 대만) 등 450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 및 국제학술조직과 협력 및 교류 관계 맺음• 유학생 교육 안정적 발전 시켜 ‘중국정부장학생’ 확대• 동북아국가 및 지역교류를 기초로 러시아 극동대학, 일본메이지대학, 서울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 교류하여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연변 조선반도 연구원 (조선·한국연구센터)		
구분		주요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조선반도 연구 기관• 1979년 조선문제연구소 설립 (한국사, 한국 철학, 한반도 경제 연구)• 1989년 조선·한국학연구센터 설립 (한반도 철학, 경제, 정치, 교육)• 2001년 중·조선·한 일문화비교연구센터 설립• 2007년 중·조선·한 일문화비교연구센터 → 조선·한국연구센터로 개편• 2014년 연변대학조선반도연구원 확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반도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분야 등 종합적 연구• 국내일류, 국제적으로 학술 영향력이 있는 조선반도연구 기구 건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연구, 국제교류, 인재양성, 정보자료, 자문서비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중심(아시아연구중심, 조선한국연구중심)• 6개 연구소(국제정치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역사연구소, 비교문학연구소, 철학연구소)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자료 : 연변대학 및 조선반도연구원 홈페이지 참고하여 정리

(3) 내향적 공공외교 연계

국가 및 지역의 장소매력을 중국 현지에 직·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주 외국인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우리 안의 중국, 생활 속의 외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중국 동북지역 출신 지역 거주자에 대한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⁸⁾

다음 <표 41>과 같이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212,072명의 재중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24,8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전국 34%, 인천 31%에 해당한다. 재중동포 대부분 동북3성 출신이다.

지역의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외교는 내향적 국제화와 연결되어 시민의 다문화 수용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지방 공공외교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직간접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전파함으로써 지역 명소화(名所化)를 구현, 해외의 소비·문화·관광 수요 흡수를 기대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인천-동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있어 지역 거주 재중동포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뷰티 상품 등 소비재의 유통채널로서 개인 SNS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 소비자 수요 및 특성, 판매 및 판촉 루트 파악에 있어 재중동포 커뮤니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⁵⁰⁾

공공외교 문화 커뮤니케이션 접근방식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문화적 매개 및 상호이해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호의를 갖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 노무를 위해 체류하는 경우와 장기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체류 기간 및 적응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중동포의 지역 생활 안내와 적응, 지역활동 참여 등의 지원 정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⁵¹⁾

48) 공공외교는 중앙·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사회까지 외교의 주체가 되어 보유한 소프트파워를 운용, 자국(도시)의 매력을 상대방 국가, 기업, 민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중장기적 외교행위와 전략을 말한다.

공공외교의 개념 및 내향적 공공외교 지방전략에 대해서는 김수한 외(2014:6-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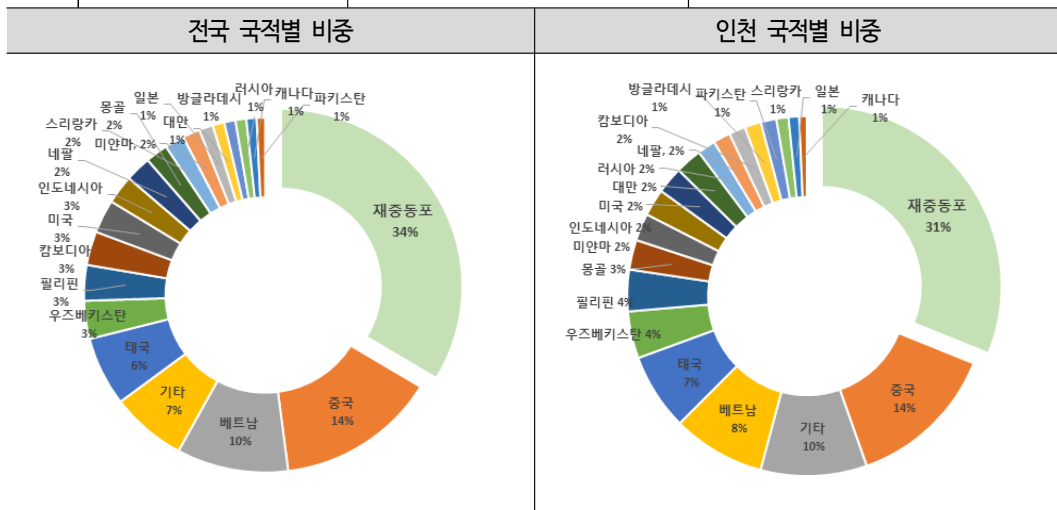
49) 지방공공외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김수한 외(2014:9) 참고

50) SNS를 활용한 뷰티상품 초국경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중국 현지 관계자 인터뷰 (2018-11-27)

51) 적응단계에 따른 호감도 변화와 이에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김수한 외(2014:48-49) 참고

〈표 41〉 전국/인천시 국적별 외국인 인구 현황(2017년)

국적	전국	인천
전체	1,479,247	79,170
중국	212,072	10,802
재중동포	497,656	24,837
대만	15,502	1,905
미국	45,032	1,928
일본	18,376	764
필리핀	48,033	2,980
인도네시아	38,418	1,947
태국	93,077	5,502
베트남	147,519	6,679
방글라데시	14,780	1,180
몽골	29,730	2,140
우즈베키스탄	51,117	3,376
러시아	14,293	1,300
파키스탄	11,226	1,116
캄보디아	45,406	1,191
네팔	34,293	1,235
스리랑카	25,759	870
미얀마	22,985	1,956
캐나다	13,564	549
기타	100,409	7,636



자료 :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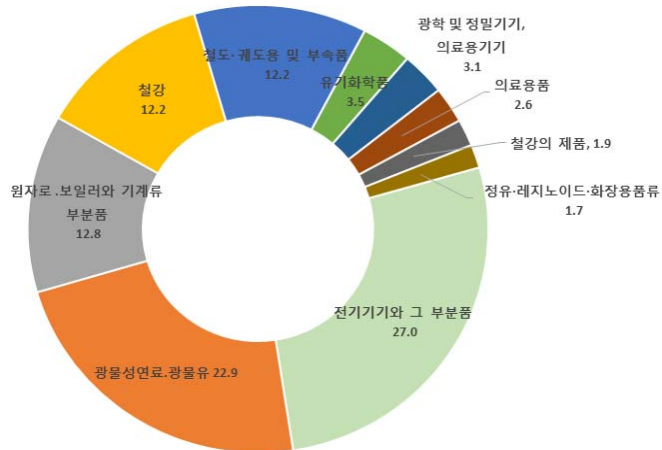
2) 인천-중국 동북 경험 활성화

(1) 기술 교역을 통한 산업협력

2017년 액수 기준 인천 기업의 중국 수출입 상위 품목은 전기기기 및 부분품 (27%), 차량·기계 부품(23%)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외에 화공제품(22.9%)과 철강(12.2%)이 35%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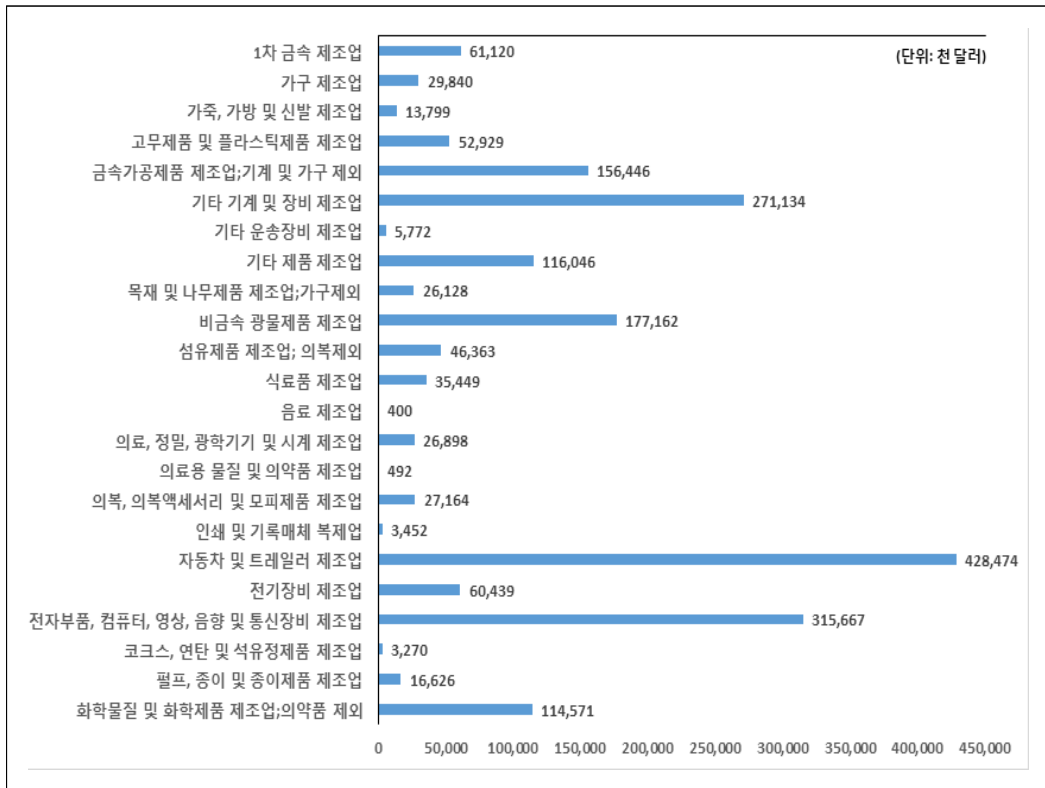
〈표 42〉 인천 중국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2017년)

품목명	수출입(천 달러)	비중(%)
전기기기·부분품	16,831,090	27.0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과 부품	7,578,735	12.2
원자로/보일러/기계류·부분품	8,004,028	12.8
철강	7,631,153	12.2
유기화학품	2,209,572	3.5
광물성연료.광물유.증류물,역청물질,왁스	14,265,274	22.9
의료용품	1,617,456	2.6
광학/사진/영화/측정/검사기기,정밀/의료기기	1,947,475	3.1
정유·레지노이드,조제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1,046,219	1.7
철강의 제품	1,200,201	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정리

인천의 제조업종별 중국 누적투자 총액을 살펴봐도 자동차·트레일러·전자부품 제조업,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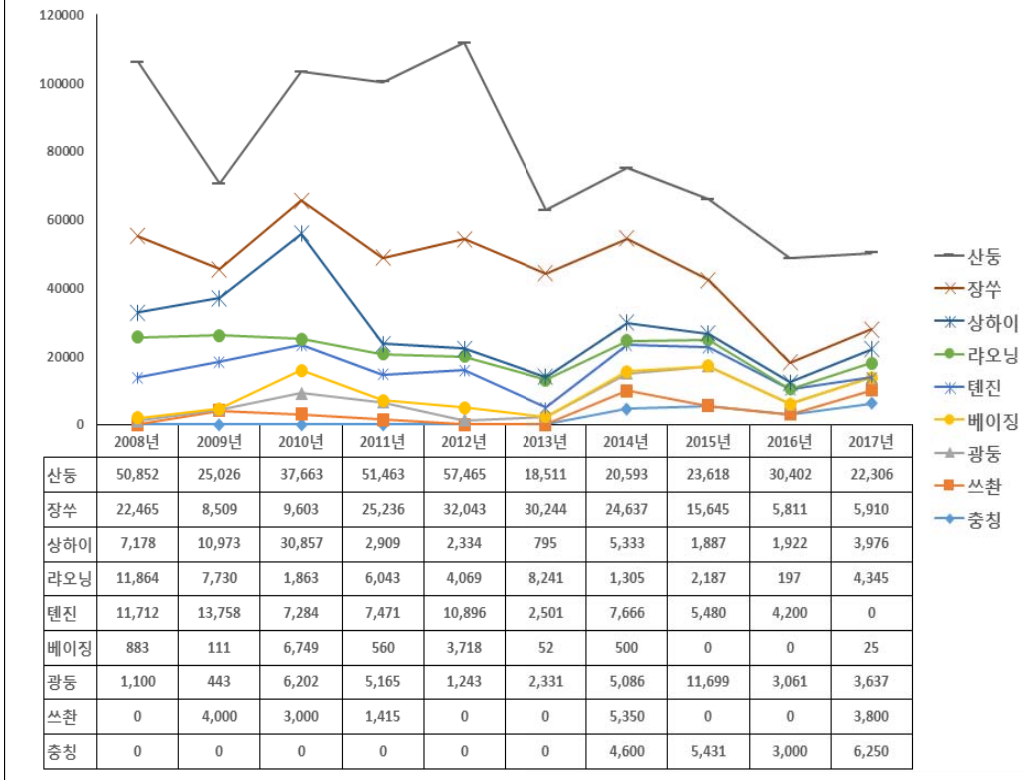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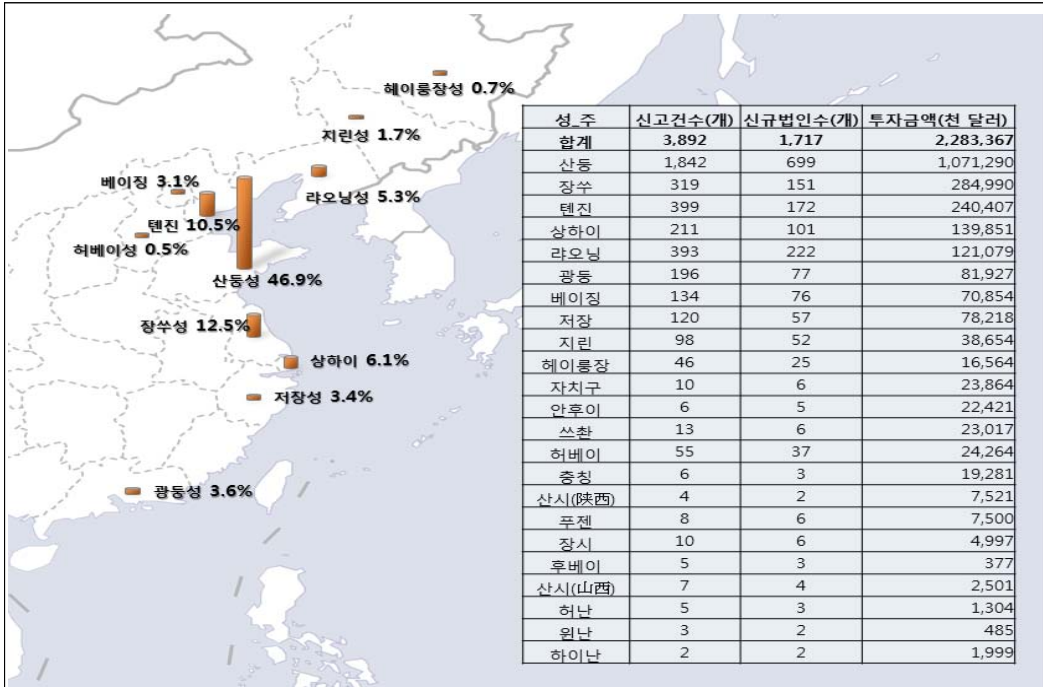


〈그림 43〉 인천의 제조업종별 중국 누적투자 총액(1992-2017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정리

이 같은 인천 기계·자동차, 전자기기 위주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은 본문에서 확인한 동북 지역 주력 업종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천의 지역별 투자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중국 간의 투자 등 경험은 주로 산둥성, 장쑤성 그리고 텐진시 등 동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천-동북 간 주력 산업이 유사하지만 실질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산업연관 정도 역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위주 계열화된 중공업 산업체계에서 인천 중소 제조업의 판촉과 협력 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⁵²⁾

52) 기계·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 산업구조 및 대 동북지역 교역 확대 한계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자문 참고 (2018-11-27)



〈그림 44〉 인천의 중국 지역별 투자 누적 총액 및 추이(2008년-2017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정리

이 같은 여건에서 인천-동북 경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교역을 통한 산업 연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은 첨단 기술을 도입한 전통제조업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완성차 업종 역시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으로 자동차 동력 부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촘촘하게 짜여져 있던 수직계열화 부품 조달체계가 이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변화와 정책 환경에 주목하여 기술 교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천-동북 경험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설립된 산업공기기술(IAT) 벤처기업인 올스웰의 경우, 산업현장 공기정화 기술 및 관련 설비를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산강철에 공급했다.⁵³⁾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중공업 업체에 수출을 성사시킨 사례로서 향후 동북지역을 타겟으로 한 판로 개척이 기대된다.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하여 중국 산업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수출 분야 및 기술력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지원과 투자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⁵⁴⁾

〈표 43〉 인천-중국 친환경 기술 교역 사례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설립된 올스웰은 산업현장 발생 유해가스 오염물을 제거해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위한 시스템·설비 기술/설비 업체임 • 2018년 5월 초 바오산강철에 냉연설비 공기정화기술 수출 확정 • 중국 2위 국영기업인 안산강철 등 수출 협의 중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의 환경 단속 강화되면서 산업공기기술(IAT) 주목을 받고 있음 •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 과정에 맞춘 판로 개척 가능




자료 : 중앙일보 (2018-8-24) 및 올스웰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53) 올스웰은 2018년 중국 수출 매출 20억원 이상을 예측하고 있으며 2019년 중국 40억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8-8-24) 참고

54) 전문가 자문 참고 (2018-11-27)

(2) BIO산업 정보·기술 교류 및 인재 공동양성

동북지역의 주력 산업 가운데 인천과의 경협이 유망한 업종으로 BIO 및 의약제조업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린성의 창춘시와 하이룽장성의 하얼빈시의 경우 BIO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인천시의 경우 세계적 BIO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센트리온과 삼성BIO 등 앵커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해 있으며, 관련 연구소·대학 등 지식생태계, 행정기관 등 지원조직과 같은 산업 기초가 매우 우수하다.⁵⁵⁾ BIO산업 정보·기술 교류 및 인재 공동양성과 같은 경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인천-지린성 창춘시 공동으로 “한중BIO기술산업박람회”를 기획하여 상호 개최함으로서 한중 BIO정보·기술교류의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한 BIO 인재 양성을 대학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동북지역 BIO 특화대학인 지린대학과 공동으로 한중BIO인력 양성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 경험 및 성과 확대 적용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중심지로서의 공고한 위상을 갖는다. 2008년 부산항을 추월하여 대중국 교역 1위 항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17년 현재 대중국 수출입액 기준 36%가 인천항을 통해 처리된다. 또한 <표 44>와 같이 인천의 대외 수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이 2015년 22.2%를 기록한 이후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동북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 경험 및 성과를 다렌 등 동북지역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FEZ와 웨이하이시는 각 도시에 대표처를 설치하고 해운물류 및 통관 등에 있어 상호편의 증진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시범지를 동북 해운물류 허브 도시인 다렌시 그리고 한국 역시 황해해권 항만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양국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1:1 이 아닌 황해권역 다자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한중FTA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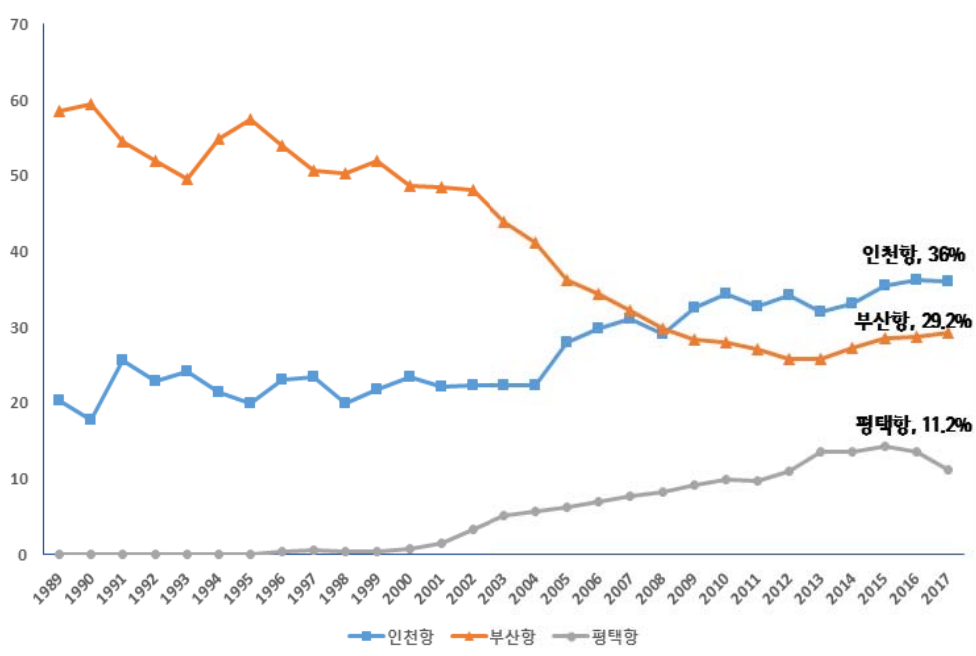
55) 전문가 자문 참고 (2018-11-27)

56)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 효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2015) 참고

〈표 44〉 국내 항만 대중국 수출입액 및 비중(2017년)

	수출		수입		수출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85,621,527	100.0	69,339,755	100.0	154,961,283	100.0
인천	26,006,996	30.4	29,814,759	43.0	55,821,755	36.0
부산	19,724,639	23.0	25,576,099	36.9	45,300,738	29.2
평택	10,438,358	12.2	6,871,352	9.9	17,309,710	11.2
울산	6,465,496	7.6	762,779	1.1	7,228,275	4.7
광양	6,404,253	7.5	1,804,962	2.6	8,209,215	5.3
여수	3,867,105	4.5	196,384	0.3	4,063,489	2.6
군산	1,013,642	1.2	819,488	1.2	1,833,130	1.2
포항	752,061	0.9	853,127	1.2	1,605,188	1.0
목포	34,277	0.0	114,043	0.2	148,320	0.1
기타	10,914,700	12.7	2,526,762	3.6	13,441,462	8.7

대중국 교역 주요 국내항 비중 변화(1989년-2017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정리

〈표 45〉 인천 수출입 현황 및 비중 추이(2004년-2017년)

연도	중국		세계		중국 비중(%)	전국:인천 비중(%)
	수출입(천달러)	증가율(%)	수출입(천 달러)	증가율(%)		
2004년	3,549,390	31.8	24,219,262	28.8	14.7%	4.5%
2005년	4,824,757	35.9	29,492,058	21.8	16.4%	4.8%
2006년	5,440,691	12.8	36,684,108	24.4	14.8%	4.6%
2007년	7,021,193	29.0	45,033,635	22.8	15.6%	4.8%
2008년	7,587,008	8.1	50,011,650	11.1	15.2%	4.5%
2009년	5,800,823	-23.5	38,598,229	-22.8	15.0%	4.1%
2010년	8,049,791	38.8	50,548,392	31.0	15.9%	4.3%
2011년	9,368,246	16.4	65,474,712	29.5	14.3%	4.2%
2012년	8,911,749	-4.9	66,961,954	2.3	13.3%	4.1%
2013년	9,797,142	9.9	65,948,004	-1.5	14.9%	4.3%
2014년	11,476,714	17.1	70,354,632	6.7	16.3%	4.9%
2015년	14,799,899	29.0	66,634,296	-5.3	22.2%	6.5%
2016년	16,772,551	13.3	70,062,619	5.1	23.9%	7.9%
2017년	17,742,362	5.8	78,420,984	11.9	22.6%	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정리

(4) 현지 맞춤형 소비재·뷰티 진출 지원

동북지역은 소비시장 진출 대상지로서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동부 연해 도시 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지역의 성장 대도시에 비해서도 동북지역은 취약한 소비시장이다. 도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판촉 파급효과가 부진하다.⁵⁷⁾ 그러나 다른 한편 현지 경쟁자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은 기회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양, 다렌, 창춘, 하얼빈 등의 각 성 주요 거점도시의 소비경제 규모는 양호한 수준이다. 따라서 주요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국 생산 소비재와 뷰티상품 진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서는 투자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과 중국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뷰티산업을 유망업종으로 집중 육성해 왔다. 인천 뷰티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2014년 3월 공동브랜드 참여 10개 기업 공모를 통해 24개(기초-13, 기능-7, 헤어-4)화장품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어울어지다. 진실해지다. 진심을 담다”라는 뜻의 「어울(oull)」을 명칭으로 한 화장품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다. 인천시는 뷰티산업을 시의 전략 산업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⁵⁸⁾

이제 현지 맞춤형 진출 지원으로 뷰티산업 육성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드 갈등으로 한국 뷰티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중소기업 사례도 있다. 이 기업의 경우 중국 소비자 수요에 전적으로 특화된 맞춤형 디자인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방 전통원재료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중국 뷰티시장을 빠르게 개척했다. 특히 이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주무대로 하여,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지 맞춤형 판촉을 실행했으며 현재 한류스타를 모델로 쓰는 등 공세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⁵⁹⁾

인천 뷰티 및 생활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이 단순히 박람회 참가 조직, 일회성 현지 시장 개척단 운영 등에 머물면 안 된다. 중국 소비자 니즈의 민감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57) 최근 동북지역 인구 감소 및 소비시장 약세뿐만 아니라, 시장화 초기에 주로 조선족 보타리상들이 주도한 비정식 유통관행이 남아있다. 관련 내용은 중국 뷰티산업 관계자 자문 참고.

58) 인천 중소기업 생산 화장품 공동브랜드의 론칭에 대한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2014-10-27) 참고

59) 중국 소비자 맞춤형 상품개발 및 판촉에 대한 중소기업 사례는 JM SOLUTION 홈페이지 및 뷰티업체 관계자 인터뷰 참고 (2018-11-27)

〈표 46〉 중국 소비시장 맞춤형 뷰티상품 판촉 사례 (JM솔루션)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론칭한 중국 특화 화장품 유통기업 • 런칭 2년만에 7억 개 상품 판매 선전 • 마스크팩 등 중국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판촉 주력 • 2018년 하반기 한류스타를 활용한 지상파/케이블 TV 예정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판촉을 통해 기업 성장 • 전자상거래 등 유통루트 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 개척



JMsolution
FLAGSHIP STORE
In Myeong-dong

欢迎
享受购物的乐趣

韩国进口化妆品
K STAR 210,000
韩国进口

韩国进口化妆品
K STAR 140,000
韩国进口



一瓶简单的维生素,呵!
一天一瓶呵护肌肤的30 Days安瓶套装
水油养急救针剂安瓶套装(周臻版)

자료 : JM솔루션 홈페이지 및 관련 언론보도 참고하여 작성

(5) 해륙복합운송시스템 적용 모색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5규획>기간 동북진흥전략은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서항의 교통·물류망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다렌을 기점으로 한 철도망은 동북지역을 관통하여 유라시아로 연결된다. 최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남과 북을 지나 중국 동북지역으로 연계하는 철도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의선 철로 연결 사업의 우선 진행이 예상된다.⁶⁰⁾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환황해 교통물류 허브로서 인천의 강점요인을 강화하고 신규 요인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해륙복합운송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동성 엔타이와 랴오닝성 다렌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열차페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항-다렌 뒤통향을 잇는 열차페리의 시범 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60) 2018년 11월 30일 남북이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길이는 약 400km로 단둥을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표 47〉 중국 다롄-산둥 열차페리 사례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둥성 옌타이와 랴오닝성 다롄을 연결하는 여객선에 열차를 실어 운송하고, 부두에는 철도 인프라 구축 • 뤄순 지선을 거쳐 하얼빈-다롄철도로 연결, 동북철로망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산둥철도와 연결. 해상운송거리는 86.28해리임 • 2006년 11월6일 운행이 시작. 운송량은 초기 연간 650만톤, 2018년 830만톤 달성. 1240만톤 운송을 목표로 함 • 철도공사 산하 국유기업 운영 • 2018년 현재 182.6미터 길이의 3개 여객선을 운영 중. 80톤의 화물열차 50량, 20톤의 화물차 50대, 25대의 중소형 차량 탑재 가능
	
열차페리	열차페리 내부
	
열차 연결 가변 교량	옌타이-다롄 연결노선

자료 : 중국 다롄 뤄순항 현지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2018-4-27)

(6) 특수목적관광을 통한 동북지역 관광·MICE 확대

인천관광공사는 동북지역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로드쇼를 2018년 하반기 다롄, 선양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단체관광객 이외에도 청소년 수학여행, 보건의료, 재중동포 기업 인센티브 등 특수목적관광을 기획하고 있다.⁶¹⁾

국유기업 중심의 동북지역 기업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과 2015년 인천에서 실행되었던 텐진시 국유기업 경영진 연수프로그램을 동북 지역 관광·MICE 확대방안으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북지역 국유기업 경영진 및 고급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의 비즈니스 연계 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관광공사는 2014년과 2015년 텐진시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천에서 텐진 주요 국유기업 경영진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연수기간 중 인천 산업시설 시찰 및 전문강의를 통해 텐진 국유기업 주요 경영진에게 인천시의 발전 현황 및 투자 적격지로서의 여건을 심층적으로 교육하고 전달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교류 활동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매개로 한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를 전개하였다 연수참여기관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이 같은 중국 기업인 방인 연수프로그램은 국제 투자·비즈니스 최적격지로서 인천의 장점과 매력을 중국경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 교류의 장이자, 인천의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⁶²⁾

61) 인천관광공사 실무자 인터뷰 (2018-8-24)

62)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 외(2016a:110-111) 참고

인천 공공시설 및 산업체 탐방



- 컴팩스마트시티
- 뷰티공동판매숍 '휴띠끄'
- U-CITY 통제센터
- 송도생활쓰레기집하시설
- 송도폐수처리장
- 인천국제항만 등

IFEZ 공공시설, 인천항 방문으로 도시운영 현황을 살펴봄

강좌



- 한국신흥산업발전정책 및 성공사례
- 인천해양물류산업
- 한국금융제도
- 한국발전모델
- 인천경제산업
- 한류·브랜드육성전략

중국어 원어강의를 통해 한국 및 인천에 대한 교육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 소래포구
- 월미도/월미전통공원
- 신포시장 등

인천 시민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의 명소를 방문하고, 시민들과의 교류기회 제공

의료시설 시찰 및 의료검진 체험



- 인하대학병원
- 길병원
- 국제성모병원

지역내 대형병원을 방문, 한국의 첨단 의료 설비를 시찰하고, 의료검진 체험 제공

〈그림 45〉 텐진국유기업 경영진 인천연수프로그램 주요 활동 (2014.8.24.-29)

자료 : 인천연구원 사업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 김수한 외(2016a:111)에서 재인용

3) 한반도-중국 접경지역 협력 모색

(1) 인천-단둥 도시교류 재개

랴오닝성 지급시인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도시이다. 북한과의 교역 중심지인 단둥은 관련 초국경개발 경험 및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서, 향후 북한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9년 북중 지도부가 합의한 접경개발 구상에 따라 2013년까지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을 초국경협력지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 기구, 법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토지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아울러 신압록강대교 및 호시 그리고 단둥 신도시 등의 도시 교통·상업 인프라가 구비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보다 앞서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산업 구조적 의존의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 개혁개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압록강 유역의 초국경협력지대를 남북중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⁶³⁾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의 경우 단둥과의 협력을 위한 도시외교 기반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인천단둥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단둥과의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인천-단둥 인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⁶⁴⁾

(2) 인천-단둥-신의주 협력방안 연구

아울러 랴오닝사회과학원, 단둥대학,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공동으로 환황해권역 도시정부간 교류 여건 조사와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관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로는 황금평 초국경협력지대에 대한 인천 지방정부·출자기관 참여 방안, 호시 등 변경무역시장에 대한 인천 중소기업 참여방안 탐색, 황해지역 교류 역사와 경험의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신도시 건설, 스마트주거환경·친환경생태주거단지/산업단지 조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단둥-신의주 초국경협력 건설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인천-단둥 공동으로 대북진출 중소기업·창업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집적형·복합형 글로벌 중소기업-창업단지 공동사업에 대한 장기적 기획이 필요하다.

63) 두만강유역의 GTI개발의 경우 중러몽골 등이 다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방정부회의(LCC) 형태의 지방정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 자문내용 참고(2018-11-28)

64) 인천단둥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은 인천일보 (2002-10-21) 참고

〈표 48〉 단둥 호시무역구 개요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신압록강대교 완공에 즈음하여 단둥신구에 건설된 4만평 규모의 북한물자 집산창고 및 도소매단지 • 20킬로이내 거주 시민은 변경주민증(边民证) 증빙 후 호시에서 북한 변경 주민과 상품교환 활동 가능 • 인민폐 8000원이하 상품의 관세·수출입세 면제 • 2018년 4월 현재 북중관계 악화로 실제 가동이 되지 않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입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물 외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출입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내부 상점</p> </div> </div>	

자료 : 중국 현지 조사 및 주민 인터뷰 (2018-4-28)

〈표 49〉 단둥 접경 제도 및 인프라 - 황금평 관련 계획 및 위치

구분	항목	내용
목표	중점항목	신의주, 단둥과 연계 특성 발휘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경공업 발전
	발전목표	1중심 4단지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
산업 배치	상업센터	단기 : 조중 공동시장 건설 장기 :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 결합된 첨단 상업센터 건설
	정보산업	단둥시와 연계, 소프트웨어 주문서비스
	관광문화	아리랑 등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시설농업	우량품종 육종, 관개시설 정비, 태양에너지온실, 채소과일화초생산, 농업기술 연구교류센터 건설
	피복가공업	피복 공장 유치하여 주문생산, 유연성 생산, 장기적으로 피복상표 개발
인프라	항구	황금평, 신의주 간 여객 및 화물부두 건설. 단둥 대동항 이용
	도로	그물망 형식 도로 건설, 단둥과 2개 출입도로 건설
	기타	단둥공항 활용, 단둥에서 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 건설, 인터넷망통신망



자료 : 민족21(2011-124호), 동아일보(2012-02-11), 현지촬영 (2018-4-28)

〈표 50〉 단둥 접경 인프라 - 신압록강대교 및 압록강철교 인근 교역시설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압록강대교 2015년 완공. 단둥신구-신의주 연결 사장교. 6,026m, 연결 도로까지 포함하면 20km 길이 • 단둥신구, 대규모 오피스텔과 세관건물 조성 •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단교(斷橋)는 북중혈맹 상징. 관광유적으로 활용 • 압록강철교 부근 단둥해관 주위에 200여 개의 북중무역도매상가 밀집 	
		
신압록강대교		신압록강대교 귀면(國門)빌딩 모형도
		
압록강철교		단교(斷橋)
		
단둥해관		북중물품 도소매거리

자료 : 중국 현지 조사 및 주민 인터뷰 (2018-4-28)

(3) 환발해 남북·중 크루즈 루트 개척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재개될 경우 다음 <그림 46>과 같이 인천을 기항지로 하여 북한의 남포항, 중국의 단둥-다렌-텐진-칭다오 그리고 인천의 백령도를 경유하는 환발해 크루즈 노선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항지로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경제의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인천을 비롯하여, 중국의 다렌, 텐진, 칭다오는 이미 크루즈항이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남포항을 이용하더라도 관광객들의 숙박은 크루즈 선상에서 해결하여 미흡한 북한의 숙박설비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 서해평화수역 진전에 따라 중국 산둥반도에서 백령도를 거쳐 인천으로 회귀함으로서 서해5도를 활용한 평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발해권역 관광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이 크루즈 노선을 단계적으로 황해권역과 일본으로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림 46> 환발해 남북·중 크루즈 노선 구상

〈표 51〉 중국 주요 크루즈항만 개발 현황

도시명	항만명	선석수 (개)	선석 길이 (m)	수심 (m)	접안능력 (GRT)	동시접안 선박 수	완공년도
상 하 이	상하이국제 여객터미널	5	263	9	2만	4	2008
			70	6	100		
			288	11	8만		
			288	11	8만		
			288	11	8만		
	우송커우 국제크루즈 터미널1기	2	420	13	25만	4	2011
			354	11	15만		
	우송커우 국제크루즈 터미널2기	2	380	13	25만		2017말 (예정)
			446	13	25만		
싼 야	봉황도 국제크루즈항 1기	1	370	9.6	8만	6	2006
	봉황도 국제크루즈항 2기	1	347	11.6	15만		2015
		4	n/a	11.6	10만		2017 (예정)
					2*15만		
					2*22.5만		
샤 먼	샤먼국제 크루즈모항	1	166	9.2	3만		1984
		1	510	10.5	15만		2008
		3	1,432	n/a	2*10만		2017 (예정)
					1*15만		
선 전	타이즈완 크루즈모항	2	409	12	22만	2	2016
			289	10	12만		
광 저 우	난샤항 컨테이너 3기	1	346	17	15만	3	2016
			325	n/a	10만		
	난샤 국제 크루즈항	2	445	n/a	22.5만		2019 (예정)
텐 진	텐진크루즈 모항 1기	2	652	11.5	22.5만	4	2010
	텐진크루즈 모항 2기	2	442	11.5	22.5만		2014
칭다오	칭다오 크루즈모항	3	476	8	8만	3	2015
			490	13.5	22.7만		2016
다롄	다롄항 국제크루즈 센터	2	430	10.7	10만	2	2016
			478	10.3	15만		202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2017) 내용 참고하여 정리

(4) 남북·중 역사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북방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인천 강화 일원으로 이어진 역사문화 유산 및 유적을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과 북한 지방 그리고 랴오닝성간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천 강화도의 고인돌, 성곽 등 고대 유적의 기원을 랴오닝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육로를 통해 북한을 거쳐 랴오닝으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는 단둥-인천 페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루트 활용이 가능하다.

3. 추진체계 정비

1) 인천시 주무 조직 역량 강화

인천시 중국 교류 주무부서 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쳤다. 민선 5기에는 정무 부시장 산하 국제협력담당관실 중국팀이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다. 이후 민선 6기에는 정무 부시장 산하 중국협력담당관실로 조직이 확대되어, 과급의 3개 팀(중국기획팀, 중국교류팀, 중국투자팀)이 운영되었다. 민선 5기와 6기는 기본적으로 도시외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선 7기에는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국제협력과 중국팀으로 조직이 축소되었고, 부서체계 역시 경제형으로 전환되었다.⁶⁵⁾ 우선 국제협력과 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일자리경제본부와 다른 경제산업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동북지역과의 경협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뒤에서 다루는 해외사무소 및 파견 공무원 협력 체계화, 정책네트워크 구축, 한중 도시외교 플랫폼 내실화를 통해 축소된 조직 규모 및 인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해외사무소 및 파견 공무원 협력 체계화

축소된 중국팀의 정책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 공무원 및 사무소의 공조가 필요하다. 우선 선양시 파견 공무원은 동북지역 정보의 취득·정리, 교류협력 현지 지원, 대북 사업 모색 등의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산둥성 웨이하이에 소재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경우 중국 현지 총괄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 전역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교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직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중국 선양 파견공무원과 웨이하이 사무소를 허브로 하여 텐진, 칭다오에 연수 파견 중인 인천시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중국 현지 협력을 체계화하도록 한다.

6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부서의 도시외교 체계 및 경제형 체계에 대해서는 김수환·최종원(2013) 참고

3) 정책네트워크 구축

(1) 업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관계기관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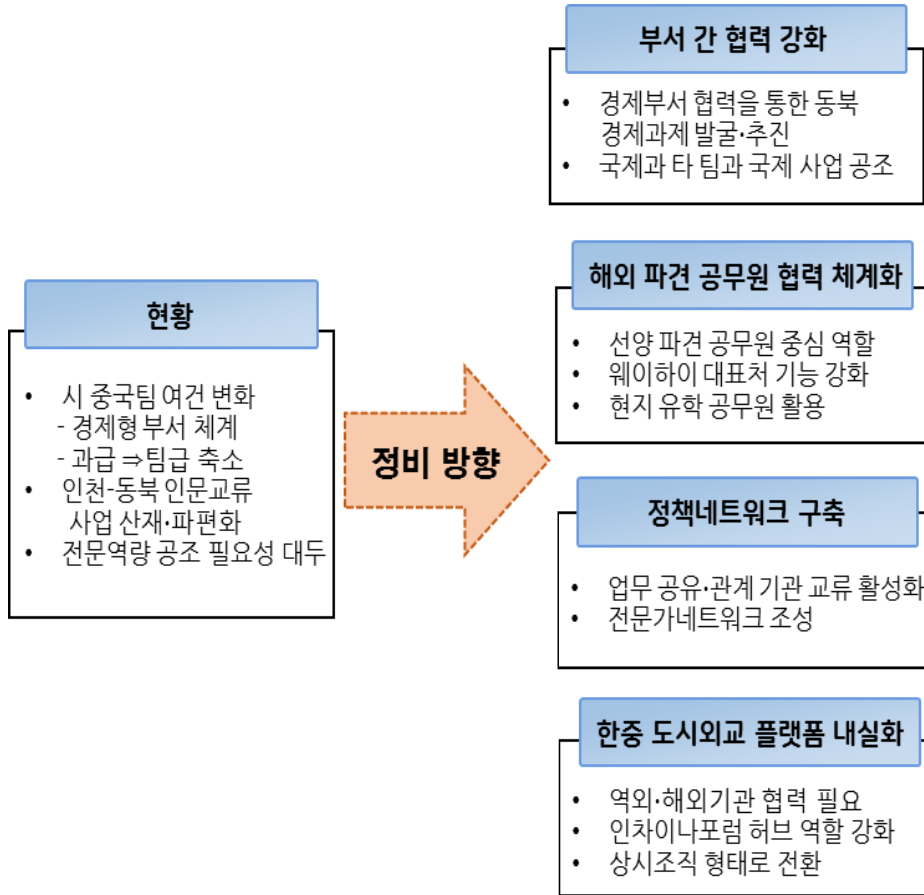
동북지역과의 도시외교 및 경험 활성화 그리고 접경협력 모색을 위해서는 시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중국 교류·협력 및 내향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거주 재중동포 유관 기관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와 현황 파악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전문가네트워크 조성

동북지역 및 남북중 도시외교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관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인천 도시외교에 대한 R&D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4) 한중 도시외교 플랫폼 내실화

인천-동북지역 도시외교 및 경험 활성화, 남북중 초국경 협력 모색을 위해서는 역외 기관·전문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역외·해외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인차이나포럼>의 활동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인천시는 민관산학 각 분야의 중국 교류역량을 모아내기 위한 플랫폼인 <인차이나포럼>을 구성하여 2016년부터 매년 1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맞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포럼이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회성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조직 형태로 포럼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7〉 추진체계 정비 방향 및 과제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이 글은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동북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시 차원으로 분류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지방외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토대 자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을 매개로 한 초국경 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에서 지역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경제지표의 기준 연도는 2016년으로 일정한 시기적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지역 특히 랴오닝성의 통계지표 변동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랴오닝성 및 성 주요 도시에 대한 경제역량·잠재력 평가와 전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국면이 급진전 되었지만 2018년 말 현재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북중 접경협력 모색기로서 관련 보다 정확한 정책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 같은 연구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연구 주제를 보다 예각화한 후속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환황해권역 도시정부간 교류 여건 조사와 협력 방안, 초국경협력지대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방안, 변경시장에 대한 참여방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단둥-신의주 초국경협력지대 인프라 분야 참여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김명아(2016). “중국의 무역 관련 시범지역 제도 활용을 통한 한중협력 제고 방안”, 『INChina Brief』. 321.
- 김명아(2014). “중국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정책 운용 현황과 시사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겨울호.
- 김수한(2018). “신북방정책 관련 중국의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CSF)』.
- 김수한(2017). “중국 국토공간 개발 방향과 특징:〈전국국토규획강요 2016-2030〉 주요 내용”, 『INChina Brief』. 333.
- 김수한(2016). “일대일로와 서부지역”.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 김수한(2015). “한중FTA지방경제협력 추진사례 : 인천-웨이하이를 중심으로”, CSF 중국전문가포럼
- 김수한(2014a). “중국 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NChina Brief』. 265.
- 김수한(2014b). “중국 권역거점도시 발전·분포 현황과 시사점”. 『INChina Brief』. 259.
- 김수한 외(2016a). 『중국 징진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발전정책 및 경제산업 현황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 외(2016b). 『중국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시사점-중국 중앙지방정부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 외(2015a). 『중국 산둥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경제산업 현황 및 발전정책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 외(2015b). “중국신창타이시기 지역발전의 재구성”, 『INChina Brief』. 288.
- 김수한 외(2014). 『인천시 중국인 유학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지방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김현수(2014). 『중국 중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권역 거점도시 육성과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김현수(2013). 『중국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도시군 형성 및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수한·전유정(2017). 『중국권역 거점도시 지역발전 조사-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 김수한·최종원(2013). “인천시 국제교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용웅·차미숙·강현수(2009). 『신지역발전론』, 한울.
- 김용하(2009). 『OECD 국가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배(2011). “중국의 거대도시군 형성과 지역정책 시사점”, 『국토』.354.
- 김원배 외(2006).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 김재덕(2017).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성장과 시사점 : 빅데이터거래교역소를 중심으로”,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연구원.
- 김천규 외(2011). 『중국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현수·김수한(2017). 『중국 도시군 연구 동향 고찰: CNKI(1979-2015)분석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5(2).
- 서종원 외(2012).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운철·유현정(2012). 『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종연구소.
- 이현주 외(2017).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 이현주 외(2016).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 임채운 외(20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현태 외(2017a). 『13·5 기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 외(2017b).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윤미(2004). 『중국의 동북개발 구상과 발전전략: 배경, 조건 및 쟁점』, 국가전략 10(3).
- 조명철 외(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수영(2010). 『중국의 대북한 정책 :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2017). 「중국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및 항만 발전 현황」,

제17-7호.

KOTRA(2018).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정보』.

蔡昉·吴敬琏(2003). 『中国经济』, 中国财政经济出版社.

方创琳(2014). “中国城市群研究取得的重要进展与未来发展方向”. 『地理学报』. 69(8).

Gregory C. Chow(2005). 『中国经济转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吴敬琏(1998). 『当代中国经济改革战略与实施』. 上海远东出版社.

刘士林, 刘新静(2016). 『中国城市群发展报告(2016)』. 东方出版中心.

岡本信広(2015). “一带一路は内陸部を發展させられるか? - 重慶を事例に -”. 『ERINA REPORT』. 127.

魏劭琨(2010). 『全球城市竞争力报告(2009~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發展規劃司(2016), 『2016中國城市綜合發展指標：大城市群發展戰略
中國城市綜合發展指標』, 人民出版社

李健建(2014). 『中国省域经济综合竞争力发展报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Chuanglin Fang & Dan Yu(2016). *China's New Urbanization : Developmental Paths, Blueprints and patterns*. Springer.

Chuanglin Fang(2015). Important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 of studies on China's urban agglomerations. *Journal of Geographical Sciences*. 25(8).

Doug Guthrie(2006). *China and Glob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Routledge.

Fulong Wu(2015). *Planning for Growth :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China*. Routledge.

■ 중국 정책 문건 및 통계자료

『“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

『吉林省统计年鉴(2017)』

『东北振兴“十三五”规划』

『东北振兴“十二五”规划』

『辽宁省统计年鉴(2017)』

『中国工业统计年鉴(2017)』

『中国城市统计年鉴(2017)』

『中国统计年鉴(2017)』

『黑龙江省统计年鉴(2017)』

佳木斯市人民政府(2017). 《佳木斯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鸡西市人民政府(2017). 《鸡西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锦州市人民政府(2017). 《锦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吉林省人民政府(2006).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计划纲要》

吉林省人民政府(2011).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计划纲要》

吉林省人民政府(2017).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计划纲要》

吉林市人民政府(2017). 《吉林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丹东市人民政府(2017). 《丹东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大庆市人民政府(2017). 《大庆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大连市人民政府(2017). 《大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辽阳市人民政府(2017). 《辽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辽源市人民政府(2017). 《辽源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辽宁省人民政府(2006). 《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计划纲要》

辽宁省人民政府(2011). 《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计划纲要》

辽宁省人民政府(2017). 《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计划纲要》

辽宁省人民政府(2018). 《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

牡丹江市人民政府(2017). 《牡丹江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抚顺市人民政府(2017). 《抚顺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盘锦市人民政府(2017). 《盘锦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白山市人民政府(2017). 《白山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白城市人民政府(2017). 《白城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本溪市人民政府(2017). 《本溪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阜新市人民政府(2017). 《阜新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四平市人民政府(2017). 《四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松原市人民政府(2017). 《松原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绥化市人民政府(2017). 《绥化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十三五规划纲要》

双鸭山市人民政府(2017). 《双鸭山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鞍山市人民政府(2017). 《鞍山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2017). 《延边朝鲜族自治州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营口市人民政府(2017). 《营口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伊春市人民政府(2017). 《伊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长春市人民政府(2017). 《长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齐齐哈尔市人民政府(2017). 《齐齐哈尔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朝阳市人民政府(2017). 《朝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铁岭市人民政府(2017). 《铁岭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七台河市人民政府(2017). 《七台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沈阳市人民政府(2017). 《沈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通化市人民政府(2017). 《通化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鹤岗市人民政府(2017). 《鹤岗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哈尔滨市人民政府(2017). 《哈尔滨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葫芦岛市人民政府(2017). 《葫芦岛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黑龙江省人民政府(2006). 《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计划纲要》
 黑龙江省人民政府(2011). 《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计划纲要》
 黑龙江省人民政府(2017). 《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计划纲要》
 黑河市人民政府(2017). 《黑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五规划纲要》

■ 홈페이지

JM솔루션 홈페이지(<http://jm-solution.com/>)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연변대 홈페이지(<http://www.ybu.edu.cn/index.htm>)
 올스웰 홈페이지(<http://www.all-swell.co.kr/>)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중국 하야오유한공사 홈페이지(<http://www.hayao.com/news/gronews/4223.html>)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한국어 인민일보 홈페이지(<http://korean.people.com.cn/73554/176256/index.html>)

■ 신문기사

동아일보(2012-2-11)

동아일보(2018-9-16)

아주경제(2012-6-18)

인천일보(2002-10-21)

중앙일보(2018-8-24)

한국경제신문(2014-10-27)

2018년도 기초연구과제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 전략 및 경제·산업 역량 분석-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805-0 9332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로 98(삼곡동 307)

© 인천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 Analysi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Capacity in Northeast China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T. 032-260-2600 F. 032-260-2629 www.ii.re.kr



9 788956 788050
ISBN 978-89-5678-805-0